

1999年度  
國政監査

教育委員會會議錄

國會事務處

被監査機關 教育部

日 時 1999年10月13日(水)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10시10분 감시개시)

○委員長 咸鍾漢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교육부분부에 대한 1999년도 국정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공개로 하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여러 사학이 학내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사회변화속에서 대학이 상아탑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다양한 형태의 학내문제로 발목이 잡혀 교수의 연구와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신·구법인 임원간에 주도권 싸움, 교수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은 실로 유감일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몇몇 대학에 대하여 분규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여 불법행위를 한 재단의 관계자를 처벌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신속하지 못하고 미온적인 교육부의 조치 때문에 불법행위를 자인한 사람마저도 해외로 버젓이 빠져 나가버려 사태의 수습은커녕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버렸으며 여타대학에서도 계속적으로 분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는 분명 교육부 관계자들이 문책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겠으나 우리나라 사학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아 원인규명과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궁극적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사립학교법 개정의 취지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던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사학분규의 원인과 실태를 소상히 파악하여 우리 교육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대학발전소위원회 활동에 준거로 삼고 궁극적으로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분규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충정을 심분 이해하시고 숨김없이 양심에 따라 증언해 주셔서 우리나라 사학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한 자기반성과 문제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모색에 한층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일정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상지대학교, 대구대학교 그리고 경문대학의 증인들에 대하여 학내문제와 관련한 신문을 한 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순서는 우선 교육부장관께서 이상 3개 대학의 학내문제 관련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해 주신 다음 3개 대학의 증인이 일괄해서 증인선서를 한 후 각 대학교별로 신문하고자 합니다.

대학교별 신문순서는 상지대학교, 대구대학교, 경문대학교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金德中 교육부장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長官 金德中 교육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咸鍾漢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분규 사립대학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립대학은 고등교육의 72.3%를 담당하면서 교육발전과 국가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하는데 있어서도 더욱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립대학에서 분규가 발생하여 대학사회의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이러한 분규 사립대학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 지도대책을 수립하여 지도하는 등 분규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분규 사립대학들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충고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분규대학에 관한 현안보고에 있어서는 먼저 이에 대한 우리 부의 일반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고 분규대학별 분규 발생 원인, 경과, 현 상황, 문제점과 향후계획 등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쪽의 분규대학에 대한 일반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규발생 원인은 사학의 분규는 구성원간의 갈등으로 법인 및 학교의 설립목적 달성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상태로 학교법인의 독단적 운영, 부정, 비리관련 등 그 발생원인이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분규해결을 위하여 행정지도, 조정과 중재, 행정감사, 행·재정 제재, 임시이사 선임과 총·학장 해임요구, 법인해산과 학교폐쇄 등의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 3쪽의 분규해결 대책으로는 원칙적으로 분규 당사자를 포함한 학내 구성원들의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단계별 지도대책으로서는 자율 해결촉구, 두 번째로 조장적 중재, 세 번째로 행정적 지도, 네 번째로 행정적 조치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지대, 대구대, 경문대 학교별 분규 발생 원인, 경과, 현 상황, 문제점과 향후계획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상지대학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규발생 원인은 93년3월 金文起 이사가 부동산 투기 및 학교비리 혐의로 구속되고 누적되어 온 학내문제가 표출되면서 학내소요가 발생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임시이사 선임 후에 학원이 정상화되었으나 임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金文起 이사장측의 문제제기에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 등의 반발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경과는 93년6월4일자로 임원취임승인 취소와 아울러 임시이사를 선임하였으며 95년11월 8일자로 학내소요가 지속되고 이사 7명이 사표를 제출하여 임시이사진을 개편하였습니다.

현 상황은 학생수업 등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99년9월22일자로 金燦國 총장이 사임하고 99년10월12일 이사회에서 韓完相 전 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이 후임 총장으로 선임되었으며 金文起 전 이사장의 재단복귀 문제를 둘러싸고 대학측과 金文起 전 이사장 지지측 간의 갈등양상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金文起 전 이사장의 재단복귀 문제로 현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대학측과 金文起 전 이사장측이 대립하고 있어 학교 및 법인운영의 불안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학내 구성원 및 지역여론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학교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학교법인 임원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구대학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규발생 원인은 李泰榮 총장이 88년10월부터 신병치료차 미국에 장기체류함에 따라서 학교 및 법인의 지도력 부재와 아울러 구심점이 상실되었고 93년4월 申相俊 대학원장에 대한 총장선임 과정에서 학내여론 수렴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으로서 교육부 총감사 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지적되어 시정 요구한 사항을 이행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학원소요에 대한 이사진의 문제해결 능력과 정상화 의지가 부족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의 경과는 94년2월22일자로 임원취임승인 취소와 아울러 임시이사 7명을 선임하였고 95년8월23일자로 金起東 이사장 등 8명의 이사를 해임

하고 김철수 서울대 교수 등 7명을 임시이사로 개 임하였습니다.

현 상황은 임시이사 선임 이후 학생수업이 정상 화되고 안정적 면학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으나 설립자 가족측에서는 학내가 정상화됨에 따라 임시 이사체제의 존속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정이사체제로의 전환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정이사체제로의 전환이 학내·외 이해관계인 대부분의 궁극적 희망사항이나 현재 이에 대하여 찬·반 양론이 대립되어 있고 일방의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분규재연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이사진 개편문제는 현 총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2000년2월16일이 되겠습니다. 후임총장 선출 등과 관련하여 매우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학내 구성원 및 지역여론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학교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학교법인 임원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문대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규발생 원인은 학교법인 경영권과 관련하여 沈奎燮 전 이사장과 全載旭씨 간에 부채변제 문제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교수봉급 삭감을 계기로 평소 대학운영에 대한 교수들의 불만이 표출 되었고 全載旭 개인에 대한 교수들의 불신에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의 경과는 99년8월4일부터 8월26일까지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여 학사행정이 마비된 사실이 있었으나 99년8월27일부터 학장 및 학생회 간 농성해산 합의 후 학사행정이 정상화되었습니다.

현 상황은 학생수업은 대체로 정상적으로 진행 되고 있으나 간헐적인 학내시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교수협의회 측에서 경문대 운영비리를 고발함에 따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교육부의 감사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수사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교수 및 일부 학생들은 대학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심하여 근본적으로 현 임원진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현 대학경영진들은 퇴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간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일차적으로 대학측과 교수들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지도·중용하고 학내소요가 장기화되어 현 대학경영진들이 학교운영 능력을 상실할 경우 임시이사 선임

을 통한 대학정상화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威鍾漢 다음은 증인선서를 할 순서입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부 간부들은 지난 9월29일 교육부 본부감사 시 증인선서를 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출석하신 3개 대학의 증인들로부터만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199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상지학원 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지학원 李相禧 이사장 외 21인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李相禧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李相禧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0월13일

- 證人 李相禧
- 證人 金文起
- 證人 張光洙
- 證人 朴正元
- 證人 金燦鎬
- 證人 金東均
- 證人 金淵東
- 證人 鄭大和
- 證人 李成大

- 證人 朴鈞忻
- 證人 黃鍾東
- 證人 金春一
- 證人 孫光濟
- 證人 李鍾漢
- 證人 張華煥
- 證人 李相集
- 證人 金相浩
- 證人 李龍九
- 證人 姜眞哲
- 證人 沈奎燮
- 證人 權五福
- 證人 安曾鏞

○委員長 咸鍾漢 증인들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순서와 같이 증인신문은 먼저 상지학원 상지대학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구대학교와 경문대학 증인들께서는 귀가하지 말고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대학교의 증인신문이 끝난 후 교육부장관에 대한 질의시 모두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지학원 상지대학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여덟 분을 성명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金東均 전 부총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文起 전 이사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淵東 전 사무처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燦鏞 전 교원징계위원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元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相禧 이사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光洙 전 부총장 겸 총장직무대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大和 법인사무국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인사)

金燦國 전 상지대학교 총장은 지난 9월22일자로 사표를 제출한 후 접촉되지 않고 있으며 출석요구 통지서는 2번이나 반송되어 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신문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급적 사실확인 차원에서 일문일

답 식으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신문시간은 간사간 합의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한시간이 지나면 전원을 차단하여 마이크가 꺼지게 되며 더 이상 전원을 연결하지 않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範珍委員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예, 말씀하세요.

○朴範珍委員 그동안 우리가 국감하는 동안에 일반적으로는 위원들간의 첫째 질의시간을 15분 또는 10분씩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합의를 지키지 않는 위원들이 유감스럽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거의 더블로 합니다. 다른 위원은 10분 하는데 혼자서 20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서는 원만하게 위원회가 운영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시간을 3당 간사간에 합의된 대로 철저히 지키면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咸鍾漢 오늘은 전원을 끄겠습니다. 껐다 켜드리지 않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樂均委員 저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약속대로 전원을 끄시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2분 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예, 그것은 해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安相洙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相洙委員 안녕하십니까, 安相洙 위원입니다.

어제 사랑과 포용을 가르쳐야 하는 종교계 어느 집단에서 갈등을 폭력으로까지 비화시키는 사건들을 보고 우리 국민 모두는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론과 합의를 가르쳐야 하는 대학교에서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이런 분위기는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이면서 또한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하는 일입니다.

특히 교수들이나 장학에 뜻을 가진 학교 이사진들이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보다 자기 자신이나 혹은 자기 집단의 이기주의에 빠진 주장들을 하면서, 또한 가끔 학생들을 자기들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동원해서 같이 충돌하는 모습은 정말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기회에 그동안의 문제들을 드러내서 바람직

한 합의점을 찾아낼 것을 부탁하고 또한 우리 정책당국에서는 새로운 규정과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해서 이번 기회에 대학에서 분규라는 단어가 사라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선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李相禧 증인에게 물었습니다.

첫째, 교수협의회는 '상지학원 발전상 및 향후 발전과제'라는 책자에서 지난 92년과 98년 사이의 상지대학교 발전상이라는 대조표를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지대학교정상화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는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 내용 중 일부에 대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92년 4,912㎡였던 강의동 건물이 98년 현재 1만8,621㎡로 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4,912㎡면 평수로 계산할 때 1,623평에 불과한데 현 대학본부 건물만 해도 2,700여평이나 되는데 1,000여평은 어디로 갔으며 구 재단시설 건축한 6개 강의동의 면적은 어디로 갔는지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이사체제 6년간 구 재단에서 설계하고 건축허가를 신청중이었던 종합강의동밖에는 신축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각기 주장하는 내용의 팩트가 틀리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교수협의회 주장과 재단측 주장 중 어느 쪽이 사실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證人 李相禧 이 문제는 교수협의회……

○安相洙委員 어느 쪽이 맞지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證人 李相禧 교수협의회 쪽의 뜻이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安相洙委員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찬국 전 총장의 징계사유로 되었던 이른바 '사소한 행정적 실수'라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證人 李相禧 김찬국 총장의 행정적인 실수라는 것은 우산동 52-1 산을 사들일 때 감정평가를 안 받고 샀다 하는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安相洙委員 그 다음에는 김찬호 증인, 김찬국 총장 해임 당시 징계위원장이었지요?

○證人 金燦鎬 예.

○安相洙委員 그 당시 과정이나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혹시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證人 金燦鎬 외부의 압력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安相洙委員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證人 金燦鎬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찬국 총장께서 행정적인 사소한 실수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교원 신규채용할 때부터 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회의 감사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계처리가 부정했고 교육부의 명을 받고 학교를 관리하는 임시이사진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법과 규정을 어겨가면서 독선적으로 땅도 사고 기타 등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범법행위를 한 사람들 즉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거나 혹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사람들을 신규임용하거나 혹은 징계를 하지 않고 계속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모두 교육부 감사 결과에 나온 사항입니다.

○安相洙委員 그 다음에 朴正元 증인, 사립학교법 개정이 구 재단의 복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신 근거가 무엇인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이사체제라는 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닐지 모르지만 일반기업에서는 법정관리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시이사일 뿐이고 정상적이고 항구적인 운영체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임시이사의 임기를 정한 것은 임시이사 자체도 항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어느 기간을 주어서 긴장해서 학원 정상화에 노력하라는 의미고 또 반드시 그것이 구 재단으로 복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결정한 것을 무슨 구 재단 편에 서서 일을 한 것으로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證人 朴正元 물론 임시이사가 영원히 갈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분규가 발생해왔던 대학에 한해서 임시이사가 파견되는데 그 임기를 2년으로 딱 제한해 놓고나면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적어도 2년 후에는 새로운 재단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학교를 혼란에 빠트리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화로는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사립학교법 개정이 있고 난 다음에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金文起 증인 나와 계시지만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는 식으로 계속 지역에서 여론을 퍼트리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므로써 실제로 대학이 혼란에 빠

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安相洙委員** 그것은 특수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일 뿐 임기가 없는 직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반드시 구재단 복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박정원 증인께서는 그런 것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피력해 주세요.

○**證人 朴正元** 저희도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金文起 구 재단과 같은 비리재단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대학 운영을 할 수 없는 재단이라면 영입을 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은 구 재단이 계속해서 진입해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멀쩡한 대학이 혼란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적절한 대안을 찾고 있고 또 교수 직원들이 본봉의 10%씩을 각출해서 앞으로 238억의 자금을 마련해서 학교발전기금으로 하려고 결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安相洙委員** 張光洙 증인에게 물겠습니다.

국감 전부터 많은 자료를 통해서 임시이사체제의 부정과 비리가 많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金文起 이사장이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임시이사체제에 문제가 있다면 임시이사를 교체할 수도 있는데 꼭 金文起 전 이사장이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나 이유는 무엇입니까?

○**證人 張光洙** 상지대학의 설립은 金文起 이사장이 했고 또 여러 가지 경영마인드로 보나 또 그동안에 학교를 발전시킨 가장 기초가 金文起 이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安相洙委員** 그러나 우리가 임시이사에게 임기를 둔 것은 그 임시이사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구 체제에 넘겨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이번에 개정된 임시이사임기제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證人 張光洙** 물론 법 개정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 소견은 학교 운영에 능력있는 분에게 돌려주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薛勳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薛勳委員**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도표를 정리했는데 읽어 드리겠습니다.

상지대학이 임시이사체제가 되어 가지고 학교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것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된다

고 생각합니다. 92년에 교수 수가 14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에는 209명이었습니다. 65명을 신규임용했습니다. 교수가 확 늘어났습니다. 조교는 92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98년에는 90명의 조교가 생겼습니다. 비교가 안됩니다. 교원확보율이 92년에 44.3%였는데 98년에는 60.4%입니다.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37명에서 29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박사학위 취득 비율로 보면 92년에는 59%였는데 98년에는 88%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연구 부분에서는 교외 연구과제 수탁 교수 수가 92년에 3명에서 98년에는 117명으로 39배나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외 연구비수탁총액도 92년에 1,200만원에서 98년에는 14억 7,800만원으로 123배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내 연구과제 수탁 교수 수도 1명에서 98년에는 59명으로 59배 증가했습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도 150억에서 411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전산화 정도도 92년에 PC가 89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미니급 컴퓨터 한 대, W/S 12대, PC 1,200대를 연결한 종합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상희 이사장 제가 말한 것이 맞지요?

○**證人 李相禧**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薛勳委員** 학교는 임시이사체제가 되고 난 뒤로 말 그대로 비약적인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전 金文起 이사장 체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부정과 비리와 착복에 의해서 학교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발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데도 누구한테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김문기 이사장에게 물겠습니다. 김문기씨는 본인이 설립자라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金文起** 저는 설립자입니다.

○**薛勳委員** 그래요? 이것은 교육부에서 나온 공식문건입니다. 임시이사 파견대학 설립자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지대학교 상지학원 개교 원일 설립자 원홍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김문기씨가 설립자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설립자는 원홍목이라고 이미 교육부에서 판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 다 알아요. 지금 시간이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한 부분만 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증인께서는 계속해서 임시이사체제를 음해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부정을 저지른 사람은 증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이사장 이하 여러분들이 부정을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을 저지르면서 학교를 운영했으면 저런 상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잘못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미 교육부에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감사가 나와서 정리했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찬국 전 총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물러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證人 金文起 김문기가 설립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薛 勳委員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세요. 제가 묻는 부분만 답변하세요. 증인은 마음대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증인이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물겠습니다.

증인이 지금 사재 출연을 141억을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허구입니다. 지금까지 증인께서 탄원서와 언론인터뷰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자신이 퇴진 당시 사재 141억을 출연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했는데 그것을 임시이사체제에서 모두 탕진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지요?

○證人 金文起 모두 다 인출했으니까, 어떻게 썼는지 그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탕진한 것이지요. 제가 141억을 정기적금을 해놓고 무려 100억에 가까운 현금이 있었고 했는데 하나도 그냥 놓아두지 않고 다 인출해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제가 어떻게 압니까? 다 없어진 줄 알지요.

○薛 勳委員 다 증인이 낸 돈이지요?

○證人 金文起 그럼요. 제가 다 구상해서 제2의 발전을 갖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1992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薛 勳委員 알겠습니다. 이것은 증인이 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상지대학교 전문대 92년 이월금 112억원하고 93년도 학생등록금 29억을 합해서 낸 돈이라고 하는데 왜 증인 돈이라고 합니까?

○證人 金文起 저에게 말씀할 기회를 안 주시기 때문에 저도 도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지대학교 전체 캠퍼스입니다. 1992년도 마스터플랜에 이 안에 땅 한 평,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다른

사람이 갖다놓은 것 없습니다. 전체 제가 피와 땀을 흘려서 만들었고 제가 설립을 했고 또 구상을 했고 지금 현재 세금도 내가 내고 있습니다.

○薛 勳委員 증인, 가만히 계세요. 지금 내가 물어보는 141억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證人 金文起 위원님, 너무 무리하게 억압하면서 질의하지 마십시오.

○薛 勳委員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요. 증인이 길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내가 말하는 조건에 맞추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證人 金文起 위원님의 말씀이 옳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말씀할 기회를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이야기가 됩니까?

○薛 勳委員 해보세요.

○證人 金文起 아까 부정비리의 원흉이 김문기라고 했는데 부정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YS정권 때 제가 사정 1호로 걸려 가지고 3대 이전까지 다 조사를 해서 김문기는 부정비리없다, 모두 혐의없다 이렇게 결정난 사항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또 10년, 20년 되었는데 또 뭐라고 해서 제가 원주지청에 고소를 해놓았습니다.

○薛 勳委員 증인은 토착비리의 전형으로 구속된 거예요.

○證人 金文起 그것 말이지요? 그렇게 난무한 여러 가지 음해성 증상 모략한 것을 중수부에서 다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1993년4월15일 중앙일보에 나오는데, 거기보면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검사진이 다 모여 가지고 '金文起 조사해 본들 하등의 죄가 없다. 구속할 여지가 없구나.' 하는 것이 신문에 나왔는데 다 보셨지 않습니까?

○薛 勳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1년6개월 복역한 사실은 분명히 있지요?

○證人 金文起 그것은 뭐냐 하면……

○薛 勳委員 예, 아니오만 대답 하십시오. 1년6개월 감옥살이 했지요?

○證人 金文起 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薛 勳委員 시간이 없습니다.

예, 아니오만 대답하시라니까요. 복역하셨지요?

○證人 金文起 예, 했습니다.

○薛 勳委員 알겠습니다.

○證人 金文起 1년6개월을 안하고 중간에 제가 특사로 나왔습니다.

○薛 勳委員 예, 알았습니다.

○證人 金文起 나오자마자 복권이 됐습니다.

○薛 勳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년6월12일에 법인 운영권 반환소송은 대법원에서 패소했지요?

○證人 金文起 패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에게 지금 시간을 안주어서 자세하게 이야기는 못합니다마는 어떻게 학교에서 일어났던 사소한 일을 가지고 설립자겸 이사장 또는 전이사를 한꺼번에 그야말로 퇴출시키고 임시이사를 들여 놔가지고 그 많은 재산과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薛 勳委員 알겠습니다.

○證人 金文起 저는 너무 딱해서 이것을 말했습니다.

○薛 勳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현재 상지대학의 구성원 대다수가 증인이 복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證人 金文起 반대한다고 그러지만 반대 안하는 분이 80%이고 반대하는 분이 20%입니다.

○薛 勳委員 그래요?

○證人 金文起 그럼요. 이제는 거의 90%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薛 勳委員 가만히 계세요. 그것은 증인의 일방적인 얘기이고……

○證人 金文起 제가 존경하는薛 勳 위원님, 저의 입장도 감안하면서……

○薛 勳委員 증인, 가만히 계시라니까. 내가 얘기하고 있어요. 답변요구하는 부분만 답변하세요.

○證人 金文起 저도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薛 勳委員 내가 말하는 부분만 답변하시라니까요.

○證人 金文起 제가 죄인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薛 勳委員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상지대학 교원 193명중에서 153명이 증인이 이사장으로 들어 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79.2%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122명중에서 104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85%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계세요?

○證人 金文起薛 勳 위원님은 어디에서 그런 통계를 받았습니까?

○薛 勳委員 본위원의 조사가 아니에요.

○證人 金文起 어떻게 그렇게 나오니까?

○薛 勳委員 본위원이 조사한 것이 아니라니까.

○證人 金文起 그러지 마십시오.

○薛 勳委員 그 다음에 오늘 이 무대가 왜 만들 어졌는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증인이 여기 나와 있느냐, 증인을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청문회가 왜 열렸는지 아세요? 증인이 주도해 가지고 이 청문회가 열리게 된 것이예요. 알고나 얘기하세요. 증인이 뒤에서 다 조정해 가지고 이 모임이 이루어진 것이예요.

○委員長 咸鍾漢薛 勳위원!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金日柱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위원님들 이렇게 합시다. 흥분하지 마시고 사실을 확인하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薛 勳 위원님 이것이 청문회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디 구재단을 복귀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국정감사장이라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혼자 독단적으로 생각해서 얘기를 하지 마세요.

다음은……

○金日柱委員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委員長 咸鍾漢 오늘은 의사진행발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질의 시간에 말씀을 하십시오.

다음은……

○金貞淑委員 의사진행 발언 좀 주세요.

○委員長 咸鍾漢 그러세요.

○金貞淑委員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쁜 데 왜 이 시간을 갖겠습니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薛 勳 위원께서 흥분을 하셔서 그런지, 우리가 오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그리고 정말 국회를 모독하고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격하하는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다시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대로는 그냥 못갑니다. 이것이 청문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상지대학의 어느 한 사람을 다시 복귀시키는 목적이 있어서 이 자리가 열렸다 이것은 여기 앉아 있는 우리 교육위원 전체를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이것 취소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분류있는 사립대학을 모셔다가 여기서 듣고 하는 것은 나중에 교육부에 정책질의 할 때 참고로 하고 또 앞으로 교육부가 사립대학들을 행정지도를 할 때 어떻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참고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누구 잘 했다 잘못 했다 판가름내려고 하는 심판관이 아니에요. 어떻게 감히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이토록 격하시켜서 우리에게 스스로 모욕되는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는 도저히 진행이 안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알겠습니다.

○薛勳委員 의사진행발언었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말씀하세요.

○薛勳委員 지나치고 안하고 하는 문제는 위원들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본위원회가 정리한 대로 상지대학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金文起 전 이사장이 하고 있던 그 행태를 가지고 여기 와서 잘 하고 있는 대학을 흔들어서 바꾸려고 하느냐, 본위원회 주장하는 바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시 여기에 와서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상지대학을 흔들려고 하겠다는 자세는, 이것은 학생들에 대한 모독이고 학부에 대한 모독입니다. 본위원회는 그것을 지적하고자 했던 이야기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李源馥委員 위원장님,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薛勳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판단들에 대해서, 학교의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간에도 같이 동의하는 분들도 저는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닌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은 위원들 개인에 따라서 엇갈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개인들의 판단 여부를 떠나서 9개 대학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점들 때문에 이러한 분류가 나타나고 있고 또 이것이 장기화되기도 하는데, 이런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위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薛勳 위원님께서 동료위원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동료위원 전체가 金文起씨를 복귀시키기 위해서 金文起씨의 공작에 놀아난 것처럼 그러한 해석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을 하신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동료위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저희가 양해할 테니까 그것을 해명해 주시고 넘어가자구요.

○薛勳委員 알겠습니다. 해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주장하는 바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회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아까 말씀한 대로 상지대학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태가 과거의 구재단과 지금 재단을 비교하면 이것은 분규대학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모르느냐 알고 있다 말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위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른다면 얘기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임시이사 체제를 복돋아 가지고 더 좋은 학교로 만드려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 임시이사 체제를 흔들어서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결론은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간에 이런 모임을 하게 되면 결국은 흔들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구재단쪽에게 도움을 주는 결과 밖에 안나온다 본위원회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오해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李源馥委員 그런데 동료위원에 대한 것은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가세요.

○金貞淑委員 나는 상지대학에 대해서는 자세히 연구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9시 뉴스를 보니까 칼부림이 막 나고 그러더라고요. 상지대학이 9시의 메인뉴스를 타고 나올 정도로 지금 문제가 일고 있는데 무엇이 잘하고 조용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지금 불러다가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薛勳委員 그렇게 오해하셨다면 본위원회의 본래 뜻이 아니었으니까 지금 드린 말로 대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李在五委員薛勳 위원 말을 잘못 들으면 처음 참석하는 증인들에게 오해가 많을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원래 3당 간사간에 세개 대학만 감사를 하는 것으로 올라 왔는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에서 3개 대학만 감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9개 대학을 전부 감사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교육위원회 전체 의결사항입니다. 만장 일치로 의결해서 9개의 대학을 이번 감사기관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薛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물론 흥분하셔서 그랬는데 상지대학 운운을 위한 감사부분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도 흥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양해를 하시고 방청객들이 오해없기를 바랍니다.

○朴範珍委員 薛 勳 위원 본인이 그 말의 취지가 본의가 그것이 아니었다고 지금 해명을 했으니까 이것을 받아주고 빨리 갑시다.

○朴承國委員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분규대학이나 또는 말썽이 있는 대학을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들 국회의원 방에 교수협의회측이나 구재단측이나 현 임시이사 재단측에서 전부 진정이 한건이라도 들어온 학교입니다.

우리 국회에 어떤 진정이나 사건의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학교를 우리가 부를 이유가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한쪽의 얘기만 듣고 우리가 오판을 해서 교육부에다가 얘기를 하면 교육부가 오판할 일이 있으니까 여러 증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듣고 그 후에 교육부에다가 조치사항을 얘기하도록 하자 하는 뜻에서 오늘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단을 위하고 어떤 교수협의회를 위하고 어떤 임시이사를 위해서 모였다는 생각은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해하시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咸鍾漢 金日柱 위원 말씀하세요.

○金日柱委員 오늘 국정감사에서 9개 대학 증인 채택해 가지고 얘기들으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재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3당간사는 물론이지만 전체위원들이 모여서 몇 개 대학에 분규가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구재단과 현재 임시이사 체제의 의견을 들어 보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교육부에 우리 의견을 개진하자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薛 勳 위원 발언같으면 오늘 이 상임위원회 열 필요가 없잖아요. 薛 勳 위원은 이미 재판이 끝났는데 너무 잘하고 상지대학의 현 임시이사 체제가 대한민국의 모범된 대학처럼...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전체 국회의 모독이요 교육위원 모독이 아닙니까? 이런 식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조금 나이가 젊기 때문에 이해하는 바는 있습니

다마는 초장부터 어느 권투장에서나 나오는 함성 같은 소리를 하는데 여기에는 증인들과 배석한 분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사과하세요.

○薛 勳委員 사과하라는 분이 사과하세요.

○金日柱委員 뭘 사과해요.

○薛 勳委員 지금 그런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하세요.

○金日柱委員 세상에 어느 권투 링에서나 할 얘기를 여기서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교육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委員長 咸鍾漢 진정하시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서로 가슴을 터놓고 얘기를 해서 정말이 나라의 사학이 바로 뿌리내릴 수 있고 우리 교수님들이 편안하게 강의에 임할 수 있는 대학의 분위기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장소를 만든 것이니까 조용히 흥분하지 마시고 신문을 하십시오.

다음은 金許男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許男委員 먼저 李相禧 이사장한테 묻겠습니다.

金文起 전 이사장이 상지대학 등에 사재를 얼마나 출연하였다고 보는지 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證人 李相禧 내가 조사를 시켜서 아는 바에 의하면 15.6억 정도를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許男委員 다음에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습시다마는 지난 9월20일에 체육학과 학생들이 서정석 교수를 납치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李相禧 내가 알기에는 체육학과 일부 학생들이 金文起 전 이사장을 복귀시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치가 되었던 경제학과 교수는 金文起 전 이사장을 복귀시키는 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그러한 교수입니다. 그래서 체육학과 학생들이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산에 2km 끌고 갔다가 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許男委員 다음에 이사장 취임 후 교육부의 감사를 몇번이나 받았으며 그 결과는 어떠한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李相禧 교육부의 감사를 받았습시다마는 특별한 잘못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 뿐만

아니라 오늘 金燦國 총장이 못 나왔습니다마는 金燦國 총장이 검찰에 두번씩 불러가서 조사를 받아서 무혐의처리가 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許男委員 검찰에 불러갔을 적에는 의혹은 조금 있었다 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네요?

○證人 李相禧 무혐의처리가 되었습니다.

○金許男委員 걸으로 볼 적에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네요.

○證人 李相禧 그것은 아니지요. 무혐의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金許男委員 다음에 金文起 전 이사장에게 물겠습니다.

민관식 전 문교부장관 때에 취임되었는데 민관식씨와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證人 金文起 민관식 장관님은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잘 아는 어른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있으면 충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때 나이가 30대이기 때문에 아직은 빠르다. 내가 나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민관식 장관님이 제 고향에다가 돈 벌어가시고 대학을 하나 세우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金許男委員 그러면 1972년5월9일에 관선이사로서 선임되었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證人 金文起 맞습니다.

○金許男委員 그 다음에 학교법인 청암학원을 인수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證人 金文起 청암학원을 인수할 때 거기에 부지를 먼저 출연한 원흥목씨가 425평을 가지고 국유지 550평하고 955평을 가지고 야간대학을 했었는데 그것을 인수할 때 그 몇 배의 가치를 다 주고 1,8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주고 모든 부채 이런 것 다 정산해주고 모든 권한을 제가 인수 맡고 정식으로 상호 협의하에 협의서에 의해서 제가 설립권을 가졌습니다.

○金許男委員 그것을 오늘 끝난 후에 서류상으로 5분 이내에 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金文起 알겠습니다.

○金許男委員 그 후에 상지대학의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전체 출연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겸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것 할 적에 부동산도 했을 테고 동산도 했을 텐데 부동산은 부동산 가격에 쳐 가지고 몇평인데

얼마이고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자세히 구분해서 적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證人 金文起 예.

○金許男委員 귀하의 신임을 받던 김황일 대학교학부장이 86년 상지대 용공조작사건은 자신이 했다고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그 양심선언한 그것을 대략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證人 金文起 위원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당시에 3선위원으로 강원도지부 위원장을 했습니다. 바쁘고 해서 학교는 학교대로 운영을 했고 저는 외부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전혀 모릅니다.

○金許男委員 마지막으로 물겠습니다.

지금 학교를 나와 있고 분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후에 본인이 학교로 다시 들어가고 싶다는 심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證人 金文起 저는 설립할 때부터 중부지역 내 고향에 대학 하나를 내 평생사업으로 훌륭한 대학을 만들려고 하다가 93년도에 그런 억울한 사정이 일어난 것으로 해서 이렇게 퇴출 당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든지 중부지역에, 내 생애가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명을 바쳐서 대학을 훌륭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이와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대학은 내가, 설립자가 다시 인수해서 훌륭한 대학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許男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壽仁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壽仁委員 李壽仁입니다.

金文起 증인 스스로 설립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72년에 상지학원의 전신인 청암학원의 관선이사로서 金文起 증인이 파견되어 관선이사장으로 재직 했습니다.

74년에 이사장 스스로 정이사로 선임해서 법인 명칭을 청암학원에서 상지학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문교부의 비호가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과 朴正元 교수, 鄭大和 교수 이 사실이 맞습니까?

○證人 朴正元 맞습니다.

○李壽仁委員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설립자의 법적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金文起 증인은 상지학원의 설립자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이사

장님과 박교수, 鄭교수는 확인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證人 朴正元 예, 그렇습니다.

○證人 李相禧 이것은 교육부에서 증명을 해준 사실입니다.

○李壽仁委員 법에도 되어 있으니까……

지난 7월29일 교육부에서 金德中 장관은 상지대 이사장님, 金燦國 총장님, 金文起 증인님 이 세분을 불러서 “사립대학에는 주인이 있어야 한다. 주인은 바로 설립자이므로 설립자가 맡아서 운영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요?

○證人 李相禧 정확하게 그러지는 않았습니니다. 다만 일반론으로 사립대학에는……

○李壽仁委員 됐습니다.

그 까닭에 잠잠했던 상지대학이 들끓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요?

○證人 李相禧 그것은 사실입니다.

○李壽仁委員 이런 사실은 법적인 근거도 없고 설립자도 아니고, 설립자 라는 것이 사립학교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무권자인 전 이사장에게 교육부 장관이 앞장서서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려고 든다면 이것이 불법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불법행위이지요?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대답하기 곤란한데 제 의견을 충분히 이해한다.” 라는 얘기만 하셔도 됩니다.

○證人 李相禧 이해할 수 있습니다.

○李壽仁委員 박교수와 鄭교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證人 鄭大和 예, 그렇습니다.

○李壽仁委員 상지대학은 제가 이미 몇년에 걸쳐서 연구해 놓은 다섯가지 사학비리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두 해당합니다.

첫째, 학교 공금횡령과 회계부정이 있었고 둘째, 교수임용과 재임용 과정에 부정이 있었으며 셋째, 입시 및 편입학 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재단의 전횡과 부당한 학사간섭 다섯째, 총장 선임을 둘러싼 분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실이 옳습니까? 세분 다 대답하세요.

○證人 鄭大和 제가 생각하기에 과거 상지학원은 부정·비리의 온상이고…… 맞습니다. 사실 대학이 아니었습니다.

○李壽仁委員 대표적인 부정사례로 90년 경향신문 보도에 따른 것입니다.

구 상지대학 재단에서 신교수를 채용하면서 백지 사직서, 봉급 포기각서 이런 것을 받아서 크게

몰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구 재단에서 상지대학교 학군단 증축공사시에 공사가격은 원주시 아파트 분양가인 평당 180만원보다 평당 단가가 100만원이 높은 평당 274만원으로 제왕건설에 계약된 사실이 있습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 제왕건설은 金文起 증인의 가족이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부정부패의 표본인데 이것은 교육부 특별감사를 통해서도 봉급 포기각서라든가 이런 사실들은 확인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볼 때 우산동에 金文起 증인의 명의로 된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두 학교 법인의 땅으로 전환되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증거가 없어서 확실히 단언은 못합니다마는 이런 불법, 부정이 상지대학과 관련된 이런 것입니다. 이런 돈으로 했다 라는 정황증거가 거의 사실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나 있습니다.

증인님하고 그 가족들이 총 48만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지도를 보이며)

이것이 상지대학이고 우산동 일대이지요. 학교 내부에도 가족명의로 땅이 있고 또 밖에도 포위되듯이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과연 개인 사유재산으로 산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은 심각히 고려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세 분 증인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證人 朴正元 예, 지금 확실한 증거를 낼 수는 없지만 원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文起씨가 학교 돈을 빼내 가지고 토지를 구입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개인이름으로 등기했다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壽仁委員 됐습니다.

○證人 金文起 위원님, 그런 얘기는 본인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李壽仁委員 金文起 증인님께 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존경하는 선배 등등 金文起 증인님께 관해서 얘기를 간곡히 해서 저는 金文起 증인님하고 다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의원이니까 제 발언대로 양심대로 하기는 해야 되겠으니까 좀 삼가해 주십시오.

관선이사가 파견된 현재의 상지대학은 金文起 증인님 시절에 비해서 교육여건 지표에서 나타나

듯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데 존경하는 薛勳 위원이 정확하게 포착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 교육여건 지표 특히 교수의 질과 양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학교는 결국 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선이사 파견 뒤에 지금에 이르는 상황은 교육마피아와 사학마피아의 부정비리재단에 대한 면죄부 발급과 사학황폐화 5단계라고 저희가 몇 년간에 걸쳐서 자세히 조사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교육부 국정감사에 제출했는데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이 5단계에 아주 정확히 전형적으로 부합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은 그 마지막 단계인 관선이사 흔들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 분 증인님은 제가 몇 개월 전에 글을 쓴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보셨으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옳습니까?

○證人 朴正元 예, 확실합니다.

○李壽仁委員 그리고 金文起 증인님이 임원승인이 취소된 뒤 1차로는 93년에, 2차로는 94년에 관선이사진이 두 차례나 파견되었습니다. 1년 걸러서 파견되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뒤에 숨은 의도가 있지요.

특히 2차 이사진은 金燦國 총장 체제의 붕괴를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교육부는 金文起 증인님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상정모의 민원을 빌미로 교육부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표적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구재단파인 金燦鎬의 주도로 징계위원회는 총장을 해임했습니다. 학교가 대혼란에 빠질 뻔했습니다.

세 증인님께서서는 이 사실을 교육부 일부 관료와 유착한 표적감사인지는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그렇게 확신을 하는데 만약 그렇다고 확신이 되면 지금 말씀하시고 좀더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證人 朴正元 당시의 감사가 표적감사라는 것은 여러 언론에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李壽仁委員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마찬가지로입니까?

○證人 鄭大和 그렇습니다.

○李壽仁委員 제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보충질의에서 할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威鍾漢 다음은 盧武鉉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委員 저는 기본적인 몇 가지만 여쭙어 보겠습니다.

저는 증인들한테 별로 묻고 싶은 것이 없으니까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재단법인 이사는 원칙으로 이사회 권한으로 되어 있지요? 법적으로 그렇게만 되어 있지요. 사립학교법 20조의 2에 의해서 이사취임 승인이 취소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립학교법 20조의 2에 의해서 교육부장관이 이사 취임승인을 취소해 버리면 그때 승인이 취소된 이사는 자격이 일시정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지요?

○教育部長官 金德中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래서 그것이 과반수가 승인이 취소된다든지 해서 대체로 임시이사가 여러번 파견되면 전체이사회가 임시이사 체제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 대다수의 임시이사 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그 후임이사의 선임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教育部長官 金德中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임시이사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교육부장관한테 승인신청하고 승인신청 하는데 그 사람은 임시라는 이름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지요?

○教育部長官 金德中 그것이 정이사를 선출하게 되면 물론 달라집니다마는……

○盧武鉉委員 정이사라는 말이 있다고 치고 정이사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선임합니까?

○教育部長官 金德中 물론 선임은 임시이사회에서 아무래도 선임해야 되겠지요.

○盧武鉉委員 임시이사회에서 선임해서 그 다음 교육부장관이 승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민법에 일반적으로 임시이사라는 것은 이런 권한들을 행사하지 못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의 현상유지적인 행위 이외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시이사는 권한에 아무런 제약이 없고 이것까지 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다가 임시라는 이름을 넣어놓으니까 자꾸 혼란이 생기면서 정이사, 임시이사 하는데 우리 사립학교법상으로는 정이사니 임시이사니간에 권한에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教育部長官 金德中** 예, 없습니다.

○**盧武鉉委員** 하나는 임기가 있고 하나는 임기가 없다가 이번에 임기도 같이 되어버렸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의 주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누가 주인입니까?

○**教育部長官 金德中** 제가 교육부장관으로서 공식적인 것은 뭐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주인이라고 쓰는 것은 사실상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盧武鉉委員**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유권, 지배권, 관리권, 운영권 이런 것으로 얘기했을 때 주인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고 사립학교는 공공의 재산 또는 공익재산이고 그래서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처분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教育部長官 金德中** 예,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러나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일은 훌륭한 일이고 사회적으로 장려할만한 일이고 존경받아야 될만한 일이라서 웬만하면 그 분들의 건학이념을 살려서 최초의 그 분이 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해놓고 대강 이사선임과정을 통해서 이사의 직위를 그 분의 의사에 따라 이어가고 이어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해 가는 것이지요.

분규나 부정행위가 없으면 모두들 그것을 사회적으로 승인하고 교육부에서도 승인하고 잘 굴러갑니다. 모두들 어디 가서 존경받고 학교 잘되고 그러는데 가다가 사고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교육부가 개입해서 이사회 직위를 끊어버리고 그것이 이사회 해산수준까지 가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방법도 이어갈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학교, 대부분의 학교는 건학이념에 따라서 잘 운영하고 설립자는 이미 돌아가시더라도 그 자체분들이 관여하는 경우도 있고 관여하더라도 상징적으로 관여하고 그 지역사회라든지 동창사회라든지 이렇게 넘어가서 객관화된 조직으로서 사회적 실체로서 일 잘해가고 합니다. 사회적 기능을 잘 수행하는데 가끔 가다가 학비 받아 가지고 부동산 사고 팔면서 흥정가격을 이면계약해 가지고 챙기고 건설회사 만들어 가지고 학교공사 하면서 빼돌리고 교수채용하면서 돈 받고 교수 질은 낮아지고 이런저런 사고가 생기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임시이사체제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

인데 결국은 교육부장관이 하시는 일입니다.

결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임시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해서 추천하지 않으면 교육부장관은 승인할 방법도 없고 그렇습니다.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교육부장관이 스스로 선임해서 이사를 파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관님께 달려 있는데 마지막 의견은 묻지 않겠습니다. 주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자꾸 학교를 시끄럽게 만들고 국회의원님들도 헛갈려서 주인 찾아주어야 된다 주인 찾아주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제신데 장관님께 의견을 묻지 않겠습니다.

○**教育部長官 金德中**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장관으로 있으면서 개인적인 의견하고 겸해서 경험을 살려서 말씀드리면 사실 학교의 주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통념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데서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설립자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를 주장하는 주인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단지 자기들이 여러 가지 출연해서 사회에서 어떤 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뜻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마는 그것이 내려가면서 개인의 소유라든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盧武鉉委員** 사회에 기여하고 교육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본인에게 있고 대체적으로 학교라든지 지역사회라든지 이런 데서 승인 받은 사람은 그대로 존중해 주면 좋겠고 그 부분이 의심을 받고 있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 그런 의심이 있고 말썽이 많은 사람을 교육부장관이 굳이 직권으로 이사로 다시 임명하거나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教育部長官 金德中** 예, 동의합니다.

○**盧武鉉委員** 그럼 지금 상지대학 교수님들은 학교사회가 시끄러운데 아직 있지도 않은데 시끄럽게 불안해 할 것 없이 임시이사회에서 임기 다 되어 가면 그야말로 그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고 학교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훌륭한 분을 선임을 해 가지고 교육부장관님께 승인신청 해버리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렇지요?

○**教育部長官 金德中** 그렇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在五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五委員**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金文起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金文起 증인! 증인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십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證人 金文起 존중합니다.

○李在五委員 증인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의해서 복역한 사실이 있지요?

○證人 金文起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증인이 실질적으로 재단복귀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었지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證人 金文起 모든 환경이 그러한 방향으로……

○李在五委員 설명은 하지 마시고 재단복귀를 위해서 노력했지요?

○證人 金文起 당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상지대정상화범시민추진위원회, 상지대대학원동문회, 상지대평교수협의회, 상지대체육학과학생회, 원주노인복지대학 등에 대해서 증인은 잘 알고 있지요?

○證人 金文起 이야기 잘 듣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다 증인과 관계되는 단체지요?

○證人 金文起 관계는 없습니다.

○李在五委員 이 단체들이 각종 시위 및 데모를 주도하고 각계, 청와대, 국회, 교육부, 법무부, 고층처리위원회 등에 민원·진정서를 제출하고 일간지 및 지방지에 광고를 게재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證人 金文起 많이 봤습니다.

○李在五委員 주로 이들 내용은 임시이사 및 金燦國 총장 퇴진, 상지대학 부정·비리 의혹 제기, 金文起 이사장 학원복귀 등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요?

○證人 金文起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95년부터 현재까지 金文起 증인이 4회, 상평협 15회, 상정추 7회, 이형수 14회, 이관숙 7회, 장광수 7회, 원주노인복지대학 3회 등 57회나 되는 민원을 제기했지요? 알고 있지요?

○證人 金文起 그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李在五委員 95년에 43건, 96년에 15건, 97년에 11건, 98년에 25건, 99년에 18건 등 112건의 민원이나 진정을 제기한 것 알고 있습니까?

○證人 金文起 숫자는 제가 헤아리지 않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그 결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들 민원에 대해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지요?

○證人 金文起 그 여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李在五委員 대답만 하십시오.

94년1월4일 재단반환소송에서 패소하셨지요?

○證人 金文起 패소가 아니라 기각되었습니다. 각하되었습니다.

○李在五委員 95년10월10일 金燦國 총장의 업무 방해 고소가 혐의 없음으로 처리된 것 알고 있지요?

○證人 金文起 그것은 잘 모릅니다.

○李在五委員 97년에 총장·전사무처장의 업무상 배임죄 고소가 혐의 없음으로 처리된 것 알고 있지요?

○證人 金文起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상지대학교 교협대표 등 20명을 고소해서 현재 조사 중이지요?

○證人 金文起 명예훼손 말입니까?

○李在五委員 여러 가지로……

○證人 金文起 그것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상지대학교 관계자 28명을 고소했는데 현재 조사 중인 것을 알고 있지요?

○證人 金文起 예, 알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증인은 증인에게 유리한 것은 잘 알고 있고 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잘 모르고 있군요?

○證人 金文起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접 관계 있는 것만 잘 압니다.

○李在五委員 알겠습니다.

86년도 용공조작사건에 대해 어제 金晁一 당시 학생주임이 기자회견했는데 신문 보셨지요?

○證人 金文起 신문 못 봤습니다.

○李在五委員 金淵東 그 당시 사무처장 나왔습니까?

○證人 金淵東 예.

○李在五委員 그 당시에 金淵東 사무처장의 지시로 조작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證人 金淵東 아닙니다.

○李在五委員 똑똑히 얘기하세요. 위증하면 처벌 받아요?

○證人 金淵東 아니에요.

○李在五委員 金文起 증인!

○證人 金文起 예.

○李在五委員 다른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학내 사건을 용공으로 조작한 다거나 또 반정부나 반독재를 용공으로 조작하는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證人 金文起 동의합니다.

○李在五委員 증인은 그 당시 金晁一씨가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왔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100만원 준 일이 있지요?

○證人 金文起 그런 일은 없습니다.

○李在五委員 金晁一씨, 나왔어요, 없습니까?  
金淵東씨!

○證人 金淵東 예.

○李在五委員 100만원 받았다는 이야기 들었어  
요?

○證人 金淵東 못 들었습니다.

○李在五委員 증인! 80년에 전조영 교수를 학생시  
위와 관련 배후로 조정해서 군사법정에 회부해서  
강제해직시킨 일이 있지요?

○證人 金淵東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李在五委員 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된 것 알고  
있지요?

○證人 金淵東 그것은 모릅니다.

○李在五委員 무죄로 판결났음에도 복직 안 시켰  
지요?

○證人 金淵東 복직하겠다는 얘기가 없었던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李相禧 증인! 임시이사 파견 이후에  
구 재단측이라는 상정추에서 제기한 문제가 크게  
7가지입니다.

우산동 산 52의 1번지 토지 고가매입 건, 교육부  
감사 및 감사원 감사결과 미이행 부분, 종합강의동  
조기입찰 건, 한방병원 리베이트 건, 전산망 PC 무  
상기증 건, 인사문제 재임용 탈락 및 신규임용 부  
정 건, 상지 17적, 29명 신규채용 부정의혹 건, 재  
임용 탈락 및 비리교수 재임용, 임시이사의 기능마  
비 건……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지 안 하는  
지만 대답하세요.

○證人 李相禧 동의 안 합니다.

○李在五委員 그러면 이런 것을 구 재단에서 제  
기한다는 것은 들었습니까?

○證人 李相禧 그것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런 유인물은 봤습니까?

○證人 李相禧 그런 유인물 봤습니다.

○李在五委員 교협회장!

○證人 朴正元 예.

○李在五委員 朴교수지요?

○證人 朴正元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상지대학은 구 재단이나 지금 임시  
이사 측이나 자기네들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전  
부 적으로 표현하는데 옳다고 보십니까?

○證人 朴正元 그렇지 않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렇지 않지요?

○證人 朴正元 예.

○李在五委員 자기 의견에 반대된다고 해서 적으  
로 표현할 수 없지요?

○證人 朴正元 예.

○李在五委員 상지 17적이라고 의혹문제를 제기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식, 장재화, 임희진, 진광  
장, 공재욱, 서정석, 홍석진, 이상희, 김명환, 원영택  
이런 사람들을 상지 17적으로 제기하는데 동의하  
지 않습니까?

○證人 朴正元 예.

○李在五委員 그러면 교수협의회 측에서 교육·사  
학관련법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을 교육  
5적이니 교육 7적이니 하고 거론하는 것도 동의하  
십니까?

○證人 朴正元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李在五委員 단답으로 하세요. 보충질의시간에  
朴교수님에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證人 朴正元 교수협의회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李在五委員 교수협의회에서 안 한 것은 좋은데  
그런 용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證人 朴正元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회의를  
열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李在五委員 그러니까 그런 용어에 대해서 朴교  
수 개인이 동의하시느냐고요?

○證人 朴正元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설명할 기  
회를 주시면……

○李在五委員 朴교수도 金文起 증인과 똑같군요.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대답을 흐리고 자기에게 유  
리한 것은 명쾌하게 대답하고…… 여기는 국회입  
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證人 朴正元 예.

○李在五委員 다음 구 재단 측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재임용 탈락 부분을 다시 임용했다, 94년 29명의  
신규임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朴正元 교수의 문제  
점, 해임 후 재채용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동의하십니까?

○證人 朴正元 하지 않습니다.

○李在五委員 결론적으로 묻겠습니다.

金文起 증인! 金文起 증인은 복귀를 위해서 청와  
대나 국회에 로비한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金文起 로비한 사실이 없습니다.



○李在五委員 분명히 얘기하세요.  
 ○證人 金文起 없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러면 청와대나 국회에 진정서나 탄원서 낸 일이 있지요?  
 ○證人 金文起 그것은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그것이 다 로비 아닙니까?  
 ○證人 金文起 그것은 나의 의사를 건의한 것입니다.  
 ○李在五委員 친위단체를 직접 구성한 일이 있습니까?  
 ○證人 金文起 없습니다.  
 ○李在五委員 임시이사체제 운영에 있어서 드러난 문제를 부각, 여론화시키면서 학교내 혼란을 조성하고 교수사회의 분란을 조성했다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證人 金文起 그러한 일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李在五委員 복귀를 위해 체육학과 학생을 이용해서 농성 및 교수측과의 충돌을 유도하고 교수납치사건이 자행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金文起 증인은 책임이 없습니까?  
 ○證人 金文起 저는 아주 서글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도덕적인 책임도 없습니까?  
 ○證人 金文起 저는 직접적으로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李在五委員 金文起 증인이 복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證人 金文起 그것은 일어날 수 있지요?  
 ○李在五委員 지역사회 노인들을 이용해서 여론을 조장한다는 말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證人 金文起 그것은 하나의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李在五委員 알겠습니다.  
 李相禧 증인! 증인은 대학을 영리단체로 보십니까, 공익단체로 보십니까?  
 ○證人 李相禧 당연히 공익단체지요.  
 ○李在五委員 대학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지요?  
 ○證人 李相禧 물론입니다.  
 ○李在五委員 현재 사학연금재단에서 약 30억 이상 사입금이 있지요?  
 ○證人 李相禧 예.  
 ○李在五委員 2001년부터 갚아야 하지요?  
 ○證人 李相禧 갚아 나가야 됩니다.  
 ○李在五委員 재단 전입금이 없으면 어떻게 갚겠

습니까, 갚을 수 있습니까?  
 ○證人 李相禧 지금 학교 구성원들인 교수·직원·동창들이, 예를 들어서 교수들은 정년 때까지 월급의 5%씩을 매달 내서……  
 ○李在五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갚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證人 李相禧 예, 갚을 수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그 다음에 현재 현 임시이사체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구 재단에 대해서 너무 노이로제에 걸려 있다, 작은 사항까지 너무 민감하게 대응한다, 학교운영의 미숙함이나 운영상의 잘못을 구 재단의 탓으로 돌린다, 교수협 중심의 보직 독점 등 인사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재단문제 해결에 학생들을 동원하고 있다, 그래서 학사마비 및 수업결손이 생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證人 李相禧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李在五委員 金文起 증인은 金文起 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동의하지 않고 임시이사체제는 임시이사체제에 불리한 것은 동의하지 않는군요?  
 ○證人 李相禧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金文起 증인이 다시 재단에 복귀할 때 학교에서 또 다시 분규가 일어난다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지요?  
 ○證人 李相禧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李在五委員 金文起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金文起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李在五委員 본인이 복귀할 때 분규가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金文起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李在五委員 李相禧 이사장께서는 분규가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證人 李相禧 명약관화합니다.  
 ○李在五委員 나머지는 보충질의시간에 묻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다음 申樂均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樂均委員 申樂均 위원입니다.  
 金文起 이사장님께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질의에 나왔던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용공유인물이 뿌려진 사태를 알고는 계셨습니까?

○證人 金文起 모르고 있었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어제 金晁一 현 교학부장의 양심선언도 모르고 계십니까?

○證人 金文起 나는 그 분의 양심이 어디서 그렇게 되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申樂均委員 이 용공유인물 사태는 그 당시 교수채용 부정의혹이 제기되어서 캠퍼스에서 농성중이던 때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서는 학교에 관여를 잘 안 하고 바쁘셔서 자세한 것은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자세로 이사장님을 계속 하시는 것이, 아까 어떤 분은 애교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과 일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金文起 학사 진행에 깊이 관여 안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申樂均委員 용공사건 같은 것은 그 당시로 보면 작지 않은 큰 사건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시는 것인가요?

○證人 金文起 예, 그런 사항은 전혀 몰랐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金淵東 증인도 전혀 그런 사건을 모르셨습니까?

○證人 金淵東 그 유인물이 뿌려지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연행해서 수사도 하고 또 직원들도……

○申樂均委員 그러면 내용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證人 金淵東 알고 있지요.

○申樂均委員 그런데 金晁一씨는 100만원을 金文起 이사장으로부터 받았다는데 金이사장님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분에게 100만원을 준 일이 없습니까?

○證人 金文起 그런 일이 없습니다.

○申樂均委員 전혀 없습니까?

○證人 金文起 예.

○申樂均委員 그러면 金淵東 증인! 이것이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證人 金淵東 그것은 저는 모릅니다. 수사결과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어요.

○申樂均委員 그러면 그 타자기·복사기가 학교 행정실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학교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證人 金淵東 수사결과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도대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런 정도의 일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시는 분들이

학교일을 정말 책임지실 만한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요?

○證人 金淵東 아니지요, 그것을 우리가 조사 안 하고 수사기관에서……

○申樂均委員 수사기관에서 했지만 일반적으로 다 알려지고 그 학교하고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멀리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는 것입니까.

됐습니다.

다음 金文起 증인에게 다시 여쭙겠습니다.

증인께서 학교에 토지로든 여러 가지로 재정적인 기부를 많이 하셨다는데 대략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아까 토지대장 같은 것도 보여 주셨는데요.

○證人 金文起 아까 보여드렸던 지금 캠퍼스 전체가 제가 다 투자를 해서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申樂均委員 대략 평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證人 金文起 74년도에 학생 하나도 모집 안 했을 때 입학정원이 270명이었는데 그때 일차적으로 6만2,900평을 매입했고 그 전체를 개발하는데 기공식을 한 것을 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모두 다 기록해서 넣어 놨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압니다.

○申樂均委員 그런데 9만여평을 학교법인으로 기부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 중에서 우산동 것 2만여평을 빼면 그것은 학교법인이 매입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도 그것을 개인이 기부했다고 주장하십니까?

○證人 金文起 개인이 전체 다 매입을 했지 학교가 매입한 것이 없습니다.

○申樂均委員 학교법인 이름으로요?

○證人 金文起 학교법인이 지금 현재도 수입이 없는, 제가 하는 사업체에서 학교를 키워왔기 때문에 전혀 별도로 기본자산에서 수익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 개인 재산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런데도 학교법인 이름으로 매입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왜 일부만 학교법인 이름으로 하고 또 일부는 개인 이름으로 명기를 하셨습니까?

○證人 金文起 매입할 때 그렇게 매입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학교가 증원되는데 따르는 평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드리는 도중에 하나하나 저한테 종합대학으로 발전하려면 얼마만한 평수가 있어야 되고 어떤 캠퍼스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구상이 있었기 때문에……

○申樂均委員 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정원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체육대학 사람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이들과고 논의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이들의 요구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證人 朴正元 체육학과와 일부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하고 있는 것은 플래카드에 그 뜻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김문기 전 이사를 복귀시키라는 요구를 내걸고 있는데 교수들이 여러 차례 지도도 하고 대화를 시도했는데 계속 점거만 하고 있고 대화할 자세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申樂均委員 노력하셨는데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證人 朴正元 예. 교수들한테 막 아줌마, 아저씨 이런 식으로 폭언을 하면서 하니까 우리도 몇 번 하다가 지금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申樂均委員 경제학과 서 모 교수한테 폭언과 폭행한 것인데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證人 朴正元 역시 체육학과와 일부 학생들은 김문기씨의 복귀를 주장하고 또 교수협의회 전체 교수 중에서 156명이 김문기씨 반대서명을 했습니다. 다수는 대다수 교수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서정석 교수와 마찰이 심했습니다. 서교수가 교수협의회 운영을……

○申樂均委員 그렇다면 동료교수가 당한 일인데 교수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證人 朴正元 저희는 학생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을 교수로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배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후를 철저히 밝혀서 학생들이 억울하게 처벌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시간 때문에 생략하고 이상회 이사장님께 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학교 발전은 여러 측면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인정하는데 우선 이쪽에 대규모 비리가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비리와 연루가 있다고 오해를 살만한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證人 李相禧 비리에 대해서 오해를 살만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申樂均委員 전혀 그럴만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證人 李相禧 그렇습니다.

○申樂均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다음 金日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日柱委員 이상회 증인께 묻겠습니다.

학교법인이 1년에 학교에 진출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證人 李相禧 임시이사체제에서는 진출할 재력이 없습니다.

○金日柱委員 이사장께서는 급여를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證人 李相禧 급여는 받지 않고 업무활동비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수시로 해서 30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日柱委員 몇 년 동안 계셨습니까?

○證人 李相禧 연말이 되면 4년 됩니다.

○金日柱委員 4년 동안 재단에다가 진출금액이 전혀 없어요?

○證人 李相禧 임시이사들이 진출금액을 낼 여력은 없지요.

○金日柱委員 제가 학교를 너무 잘 압니다. 제가 모 대학의 재단이사를 두 임기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전혀 진출한 액수가 한 푼도 없다. 그런데 활동비는 왜 300만원씩이나 쓰십니까?

○證人 李相禧 그만큼 학교를 위해서 나는 노력을 하고 그 이상의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日柱委員 차는 재단의 차를 타고 다닙니까?

○證人 李相禧 학교의 업무용 차를 1주일에 한번 쯤 이용합니다.

○金日柱委員 그 외에는 원주까지 버스 타고 다닙니까?

○證人 李相禧 전철도 타고 그렇지요.

○金日柱委員 그리고 7월23일날 김덕중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로 이상회, 김찬국 총장, 김문기 세 분을 불렀습니다. 이상회 증인께서도 참석했지요. 그때 장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證人 李相禧 장관께서는 주로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金日柱委員 되도록 화합해서 잘 하라는 이야기를 안 했나요?

○證人 李相禧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金日柱委員 저는 지금 따지고 보면 무슨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서로 탁 열어놓고 앉으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증인께서 임시이사체제로는 도저히 한 푼도 출연할 수 없다 그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사학재단 가운데 재단이 학교에다 진출한 액수는 어느 대학, 어느 대학 세라고 해도 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인데……

○**證人 李相禧** 내가 원래 처음에 상지대학에 관여를 했을 때 재단에 재산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재단의 재산이라고 할까, 법인의 운영비라고 할까 법인의 통장이 없었습니다.

○**金日柱委員** 초기 단계의 우리나라 사립대학들 대략 짐작하시잖아요. 요즘은 굴지의 대학들 다 되었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한강 물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흐르는 것이지 아무 근거없이 흐르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자이시고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는데 혹시 장관께서 말씀하신 의향대로 화합해서 김문기 전 이사장하고 한번 학교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證人 李相禧** 나는 상지대학에 처음에 관여가 되었을 때 일반론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사자끼리 모여서 지금 말씀대로 가슴을 탁 터놓고 이야기를 해서 화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내려가서 보니까 한마디로 물과 기름이고 화합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더 확인되고 또 그것은 서로 맞고소가 되고 신문으로 비방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소위 일반론으로 생각하는 분규 당사자간의 화합이라든가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金日柱委員** 저는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문제가, 이땅에서 피흘린 희생자가 몇 백만입니까? 그런데도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요. 정말 막 사람들 같으면 제가 이런 말 안 드리겠어요. 전부 최고의 지성인들이고 인격자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구 재단과 현 재단이 화합한다고 하면 아마 얼음 녹듯이 문제 대학들이 다 같이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노력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證人 李相禧** 나는 앞으로 한 두 달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 시간을 가지고 노력할 여지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金日柱委員** 저는 어떤 일을 겪었느냐 하면 이번 교원정년을 맞는, 저희 지역의 어떤 학교를 방문했더랬어요. 1주일 후에 정년퇴직할 분이 학교 화단에서 잡초를 뽑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교육자 아니겠습니까? 하루 저녁에 만리장성도 쌓는데 두

달이면 짚지 않습니다. 노력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證人 李相禧**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구 재단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생각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내가 개입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金日柱委員** 그리고 박정원 교수협의회 회장이 시지요? 증인께서는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 노력을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證人 朴正元** 金日柱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소중한 뜻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김문기씨는 아기도 밝혀졌지만 72년에 임시이사로……

○**金日柱委員** 다른 말씀하지 마세요.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것만 답해 주시면 되겠어요.

○**證人 朴正元** 대학운영에 대해서는 대화할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여러 가지 절차상에 있어서……

○**金日柱委員** 그런 극단적인 논리로 임하면 항상 대화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 제가 보기에는 학교 주인 뭐 이야기 많이 되는데 학교는 교수협의회와 학생회와 동문회입니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證人 朴正元** 저희 대다수 구성원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리고 이상희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정대화 교수가 재단 사무국장이지요?

○**證人 李相禧** 그렇습니다.

○**金日柱委員** 학교와 재단은 분리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겸직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證人 李相禧** 대학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수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때는 교수를 사퇴해야지요. 제가 사립학교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證人 李相禧** 아닙니다. 정관에 법인의 사무국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 또는 교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日柱委員** 김문기 증인에게 같은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상대방하고 노력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證人 金文起** 저는 며칠 전에도 이사장을 찾아서 학교에 한번 들어갔다 왔습니다.

○**金日柱委員** 대화할 용의가 있어요?

○**證人 金文起** 있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리고 끝으로 하나 물겠는데 여기 지금 총장 부총장 안 오셨지요?

○證人 金東均 부총장이 나왔습니다.

○金日柱委員 증인은 학생들에게 김문기 증인이 구속될 때 수의입고 포승을 찬 비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방영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證人 金東均 전혀 없습니다.

○金日柱委員 혹시 다른 교수님들도 그런 비디오를 학생들에게 보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證人 朴正元 없습니다.

○金日柱委員 작년입니다. 학생 대표와 지역에서 온 대표들이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저는 아주 옳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 교수는 학생들을 선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6.25전쟁 당시 제자에게 희생당하는 선생이 그래도 스승이 제자를 순화하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해서 다음에 추가질의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李源馥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馥委員 李源馥 위원입니다.

증인들께서는 예하고 아니오 라고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文起 증인에게 물겠습니다.

金文起 증인은 최초에 상지학원의 전신인 청암학원에 관선이사로 들어간 바 있지요?

○證人 金文起 그렇습니다.

○李源馥委員 그 당시의 장관은 누구였습니까?

○證人 金文起 그 당시 閔寬植 장관이었습니다.

○李源馥委員 증인은 당시 閔寬植 장관의 선거구 사무국장을 한 바 있었습니까?

○證人 金文起 사무국장은 안했고 부위원장은 했습니다.

○李源馥委員 그 다음에 1974년에 원흥목씨로부터 이사장직을 넘겨받았는데 조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양도양수가 벌어졌지요?

○證人 金文起 그렇습니다. 몇 번 저를 찾아와서 인수해 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李源馥委員 그때 당시의 부동산 다 합쳐서 전체 얼마정도 규모였습니까?

○證人 金文起 그 규모로 봐서는, 그때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다고 생각했는데 2,000만원 사례금을 주고 1,800만원 지불하고 그랬습니

다.

○李源馥委員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시에 양도양수에 관련돼서 들어간 것이 금액 환산치로 따지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그 당시 금액 규모로……

○證人 金文起 제가 상대에게 드린 돈은 그렇고 그 정리하는 돈은 제가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많은 액수입니다.

○李源馥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證人 金文起 제가 50억을 가지고 정리를 했으니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때 그것을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李源馥委員 그러니까 50억이면 50억이다, 50억 가지고 모자랐다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지요. 50억 가지고 모자랐습니까, 아니면 남았습니까?

○證人 金文起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니까 모자랐지요.

○李源馥委員 그 당시에 그 양도양수가 불법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證人 金文起 저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안했습니다.

○李源馥委員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관행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요?

○證人 金文起 그때나 지금이나 그것이 아주 순리입니다.

○李源馥委員 그렇지만 관행상으로는 하지요?

○證人 金文起 그것이 순리입니다.

○李源馥委員 그 돈을 50억의 출연금이 어떻게 됐는가는 나중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50억을 투입해 가면서 학교를 인수해서 하려고 했던 최초의 金文起 증인의 철학은 무엇이었습니까?

○證人 金文起 저는 강원도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강원도민회 부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년, 2년을 두고 독지자를 구해도 독지가가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 나이가 젊습니다마는 고향에다가 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뜻이 있다 이래서 평생을 받치기로 하고 그렇게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李源馥委員 좋습니다.

그 당시에 인수를 했던 편이고 그 다음에 거꾸로 양도를 했던 원흥목씨는 지금도 증언을 어떻게 해주고 있느냐 하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강제로 구타당하고 고문당하면서 자기는 강제로 빼앗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흥목씨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證人 金文起 절대 그것은 말이 안맞고 그 실정이 그때 당시에 신문지상에도 성명서도 냈고 합의서도 냈고 모두 다 냈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李源龍委員 좋습니다.

증인께서는 상지학원 인수 이후 이사장을 하는 동안에 재단에 전입금을 낸 금액 규모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證人 金文起 전체가 이천기백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李源龍委員 이천기백억의 그것은 증인의 사재로 출연했습니까?

○證人 金文起 그렇습니다.

○李源龍委員 증인은 과거에 그 2,000억원의 사재들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證人 金文起 제가 사업을 해서 벌었습니다.

○李源龍委員 증인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證人 金文起 지금도 설립된지 43년이 되는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고…… 그때 수복해서 경제발전이 막 이루어질 때 그것이 적절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대에 서울가구협동조합의 이사장 또한 전국가구연합회회장, 수출협의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이사를 하면서 많은 부를 취했습니다.

○李源龍委員 됐습니다.

증인은 최초에 이 학원을 인수할 당시의 개인 재산이 시가로 2,000억이 되어 있었습니까?

○證人 金文起 2,000억이 넘지요.

○李源龍委員 상지학원을 최초로 인수할 당시인 74년 당시 증인의 개인재산이 2,000억이 돼 있습니까?

○證人 金文起 그 당시에도 넘을 것입니다.

○李源龍委員 그렇습니까?

○證人 金文起 예.

○李源龍委員 증인 거짓말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74년 당시 증인의 개인 재산이 2,000억이 넘어 있는 가운데에서 학교에다 재단 전입금으로 2,000억을 투자했다 그 얘기입니까?

○證人 金文起 제가 무려 20년이 넘도록 활동하고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기업을 활성화시켰는데 2,000억 이상으로 돈을 벌어서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李源龍委員 그러니까 증인은 74년 당시에 증인의 개인 재산이 2,000억이 넘어야 한 4·5,000억 돼

야만 그 뒤로 그 금액에서 한 2,000억 정도를 이사장하는 동안에 재단 전입금으로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학교를 키워 나가는 방식이 증인이 밖에서의 별도의 사재를 출연해서 해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학교내부의 학생교비라든가 여러 가지의 자금을 통해서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는 형태로 끊임없이 부당하게 학교를 불러 나가고 재산을 불러 나가고 개인 재산을 불러나갔다 이러한 얘기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74년에 최초로 학교를 인수하기 전단계에 이미 증인의 개인 재산으로 한 5,000억, 6,000억 쯤 있다 그래서 74년도부터 증인이 이사장하는 동안에 그 4·5,000억원의 개인재산 가운데에서 2,000억을 학교에 집어 넣었다 하는 것이라면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거짓말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평가하도록 하십시오.

어쨌든 증인은 그 재산들을 그 만큼 투입했다고 치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국민훈장감인데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證人 金文起 저는 훈장가지고 논란 적은 없습니다.

○李源龍委員 말하자면 '나는 참 중요한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요?

○證人 金文起 국민훈장 석류장은 제가 득했습니다.

○李源龍委員 지금 우리 종교에서는 사이비 교주라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잘못된 학교운명을 해나가는 사립재단의 운영주들을 여기에서도 사이비교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은 여론에서 대표적인 한국의 잘못된 사이비 교주 가운데 한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金文起 대단히 억울한 것이지요. 잘 파악도 못하고 며칠전에 상지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金燦國 총장이 불러온 교수가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金文起 이사장이 뿔이 이렇게 난 사람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비방하는데 와보니 참 사람이……

○李源龍委員 알겠습니다.

1년에 학교에서 쓰는 교비 예산 가운데 지금 상지대학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약 441억 정도 잡

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학생들이 내는 교비는 비율이 어느 정도된다고 보십니까?

○證人 金文起 제가 학교를 경영할 때는 거의 시골학교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인상을 안하고 아주 저렴한 등록금으로 했는데 2배반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때 1학년이 배수로 늘었고 그래서 학교에서 받아들이는 돈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았습니다. 그 계산이 나올 것입니다.

○李源龍委員 저는 학교의 설립자들은 설립자의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교수들은 교수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학교에 있어서 학생들은 학생의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학교에 있어서의 학교의 교권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교권에 있어서 설립자나 이사장들이 가져야 하는 권한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金文起 저는 한번도 제가 그런 이사장으로서의 권리를 가져야 되겠다하는 생각은 안가졌습니다. 학교를 잘 번영시켜서 중부지역의 우수한 영재를 기를 수 있는 학교가 됐으면 하는 염원속에 생애를 받치기로 각오했던 사람입니다.

○李源龍委員 됐습니다.

증인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正元 교수협의회 회장께 묻겠습니다.

대학에 있어서 학생권, 교수권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학생권과 교수의 권한 그것은 어느 정도의 비중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證人 朴正元 저는 바람직한 대학의 자치라고 하는 것은 재단은 돈만 내놓고 실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교수단체와 학생단체 그리고 직원들의 단체가 중요한 정책을 같이 결정해 나가면서 공동 운명체로서 학문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대학의 모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源龍委員 좋습니다.

대학의 운영에 있어서 학교운영에 대한 모든 감사의 권한, 학교운영이 아주 투명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할 수 있는 감사권이 학생과 교수들에게 주어지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사실은 그것이 힘의 균형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누가 이사장이 되든 어느 정도 아주 타락한 이사장이 아니라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證人 朴正元 예, 있습니다.

○李源龍委員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국회에 대해서 교육7敵이니 뭐니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국회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朴正元 지금 거기에 들어가시는 일곱분이 다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해명이라기보다 설명을 할까요?

○李源龍委員 아니, 그러니까 얘기만 해보세요. 지금도 7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朴正元 지금 그것을 갑자기…… 제가 규정한 것도 아니고……

○李源龍委員 개인의 판단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證人 朴正元 법안심사소위에서의 활동만을 가지고 7敵을 시민단체들이 규정을 했는데요 물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어떤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억울해 하거나 합당치 않다고 생각할 위원들이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까지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

○李源龍委員 일곱명만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위원들이 다함께 해서 했는데 왜 나머지 위원들 명단을 안넣었습니까?

○證人 朴正元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이…… 처음에는 몇 개 안됐지만 지금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초되면 한 5·600개 단체가 같이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다시 협의를 해서 조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李源龍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金貞淑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貞淑委員 金貞淑 위원입니다.

金文起 전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학교운영을 몇 년간 하셨습니까?

○證人 金文起 23년간 했습니다.

○金貞淑委員 그런데 제가 얼핏 들으니까 이천기 백억원을 학교발전을 위해서 넣으셨다고요, 전부 얼마나 넣으셨습니까?

○證人 金文起 지금 현재 학교에 시설해 놓은 모든 기본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있는 전체가

그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金貞淑委員** 청암학원을 인수하고 나서 학교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돈을 투자를 하셨어요?

○**證人 金文起** 그 자체는 425명 뿐이고 청암학원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부채하고 직원들에게 미지불했던 봉급을 다 정산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루어진 것은 제가 전체 투자한 것입니다.

○**金貞淑委員** 93년에 구속이 된 후에는 학교로 못돌아가고 지금 李相禧 이사장 체제로 갔는데 그 후에는 학교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습니까?

이사장 얘기해 주세요.

○**證人 李相禧** 그 후에 내가 곧바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저 전에 교육부에서 보낸 임시……

○**金貞淑委員** 金文起 전 이사장이 떠나고 난 후에 약 6년 동안의 평가를 이사장께서 하실 때 지금 학교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발전하는 그 모습을 시설 뭐 이런 것을 한번……

○**證人 李相禧** 교육용 공간이…… 내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못대겠습니다마는 세배 정도 늘어났을 것입니다.

○**金貞淑委員** 돈은 어디서 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證人 李相禧** 그것은 학교살림을 아주 허리띠 졸라 매고 지난 3년 동안 월급을 올린 적이 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학생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사립학교는 학교에 들어오는 교비만 가지고서 열심히 살림을 살면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金貞淑委員** 그러니까 이사장의 개인 어떤 사유 재산이나 외부에서의 투자가 없이도 이렇게 세배 이상 시설이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證人 李相禧** 물론이지요.

○**金貞淑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한국 사립대학의 문제에요. 학생들 등록금 받아가지고 시설만 들고 있다고요. 학생들 등록금은 더 나은 교육목적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모든 대학이 다 이러니까 제가 이것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장관이 여기 계시고 하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金文起 이사장은 등록금만 받아가지고 알뜰살뜰하게 해도 저렇게 세배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왜 사유재산을 그렇게 많이 쓰셨습니까?

○**證人 金文起** 그 당시에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1만명 학생이 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제일 먼저 모집을 하니까 전체 120명 정도 들어왔는데

1학기 지나보니 다 다른 학교로 하고 30명 정도밖에 안남았습니다.

86년까지 학생부족이고 한 교실에 하나 둘 놓고…… 교수가 더 많았습니다. 이러니까 개인 재산을 투자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金貞淑委員**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구속이 됐어요?

○**證人 金文起** 그 구속이 왜 됐느냐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金貞淑委員** 그래서 왜 구속이 됐느냐고 제가 여쭙보는 것이예요.

○**證人 金文起** 시간 좀 걸려도 좋습니까?

○**金貞淑委員** 가능하면 정리를 하셔서 하십시오.

○**證人 金文起**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제가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992년 대통령선거 있을 때 제가 강원도 도지부 위원장했습니다.

그때 지금 바로 여기에 있는 金東均 부총장도…… 朴正元 교수가 학교에 들어와서 6년간 논문 한편 안냈다고 그래서 교수협의회에서…… 저는 뭐 그것을 관여 안했지요. 이사장이 관여 안했지요? 인사위원회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안을 느낀 사람들이 소수 이리저리 택해가지고 책임용제도를 없애고 학교에 분란을 일으키자 이래 가지고 401호를 차지해 가지고 그때 데모를 시작했는데 제가 활동하고 있는 강릉지역에 와 가지고 뼈라를 돌리고 그것을 얘기하다가 이분들이 다 구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선거법 위반이고 출판물에 의한 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해 가지고 제가 책임을 지고 각서를 쓰고 인수인계 해가지고 다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들이 돌아가서 아이들 잘 지도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대통령 선거 끝나고 돌아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재산등록 하는 기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재산등록을 한 것이 무엇이나 하면……

○**金貞淑委員** 그러니까 그때 구속되게 된 동기는 교수들의 반대도 있었고 프러스 정치적인 것도 있다는 설명을 하려고 그러시는 것이지요?

○**證人 金文起** 그렇습니다.

○**金貞淑委員**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복권되었다고 하셨는데……

○**證人 金文起** 95년도에 복권이 되어서……

○**金貞淑委員** 복권이 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金文起 왜냐 하면 그런 혐의가 복권될만한 金文起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貞淑委員 복권도 정치적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金文起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金貞淑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반대가 많습니까? 처음부터 반대를 하고 지금도……

○證人 金文起 반대가 많은 것 같은 것이지 소리가 큰 것이……

아카도 보니까 어느 위원님이 소리가 크니까 전체를 장악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반대가 많은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金貞淑委員 아까 朴正元 교수 말에 의하면 교수 156명이 복귀반대를 하고 있다는데 상지대학 전체 교수는 몇 명입니까?

○證人 金文起 거기에 사인을 안 하면 다 퇴출입니다.

○證人 李相禧 163명입니다.

○證人 金文起 163명, 전문대학은 별도로 하고……

○金貞淑委員 그러니까 200명 정도에서 156명이 반대를 하고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이상해요. 학교발전 하는데 돈도 많이 투자하시고 사재도 많이 투자하시고 했는데 교수들이 반발한다 말이에요.

반발하고 있는 교수협의회 회장, 朴正元 교수님 이시지요?

○證人 朴正元 예.

○金貞淑委員 저희 사무실에 들어온 이 분의 자료를 보면 실력이 없는 교수예요. 논문도 내지도 못하고 탈락이 되었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느 쪽의 말을 듣기가……

그래서 결론은 교육부에서 하셔야 됩니다.

교육부 장관께 간단한 것이니까 묻겠습니다.

어제 김황일 교수가 용공조작사건 발표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教育部長官 金德中 제가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와서 그동안의 그런 사건을 아는가 해서 담당자를 불렀습니다마는 전혀 몰랐다고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金貞淑委員 金文起 전 이사장은 이 사건 알고 있었습니까?

○證人 金文起 모르고 있었습니다.

○金貞淑委員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모르고 있다니, 김황일 교수에 의할 것 같으면 당시 86년도는……

○證人 金文起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밝혀지지 않았다 하는 얘기는 추후에 알았지만 그 전에는 몰랐지요.

○金貞淑委員 이 사건이 상지대학의 사태를 풀어가는데 또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교육부는 빨리 손을 쓰셔야 합니다. 장관께서 책임지시고 다시 재조사, 당시 수사기록이나 관련 자료를 다 찾아서 경찰청과 협조해서 우선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하고 설명하는데 앞장 서시고 자체조사도 하시고 현실규명에 노력해 주시고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정말 끔찍해요. 이것은 상지대학 이번 사태 해결의 또다른 중요한 변수로 대두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의 주장이 다르니까 교육부가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李源馥委員 자료요청을 위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金文起 증인께서는 아까 제가 질의하는 가운데 ‘개인재산이 74년도 전 단계에서 이미 2,000억 이상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십니까?

○證人 金文起 아까 위원님이 74년도 그 해에 투자한 얘기를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얼마만큼 투자 되었느냐를 묻지 않았습니까? 74년도에는 제가 그렇게 안 했습니다.

○李源馥委員 그 얘기가 아니라 ‘74년도 이전에 개인재산이 내가 2,000억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계속 개인재산으로 2,000억을 벌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74년도 이전에 개인재산이 2,000억 이상이 있었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74년도 이전에 2,000억 이상의 재산이 있었던 것에 대한 검증자료를 내주실 수 있으느냐 이것이에요.

○證人 金文起 그것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해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다음은 朴承國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承國委員 朴承國 위원입니다.

우선 법인사무국장님, 전부터 계셨지요?

○證人 鄭大和 예.

○朴承國委員 과거에 상지대 재단비리가 있었다고 확신합니까?

○證人 鄭大和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朴承國委員** 임시이사가 파견된 후에 재단비리는 없습니까?

○**證人 鄭大和** 재단비리의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朴承國委員** 다음은 朴正元 교수협의회장님!

교수협의회에서 많은 유인물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국회의원 5적, 7적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證人 朴正元** 사실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먼 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을 논하는 입장에서 지난 번에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교육관계법들이 개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朴承國委員** 알겠습니다.

5적, 7적 하는 모임에 학생을 동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朴正元** 학생을 동원하지는 않습니다.

○**朴承國委員** 기자회견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朴正元** 예.

○**朴承國委員** 다음은 金東均 전 부총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진광장 등 세명의 소위 운동권 출신을 교직원으로 채용한 일이 있습니까?

○**證人 金東均** 예, 제가 임기 말기 전에 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朴承國委員** 학생을 강제동원하는데 수업결손을 한 일이 있습니까?

○**證人 金東均**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承國委員** 지난 번 8월에도 학생들이 버스를 내서 서울 등지에 원정데모를 왔습니다. 유인물에는 그 숫자가 6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절과 숙식비 경비는 어디에서 사용했습니까?

○**證人 金東均**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이 수업결손을 초래하거나 그런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학생 자율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있을 줄 압니다.

○**朴承國委員** 학생들이 돈을 내서 버스를 내 가지고 왔다.

○**證人 金東均** 학생 자율활동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지요.

○**朴承國委員** 교지에 특정인물을 비방하는 글을 실은 적이 있지요?

○**證人 金東均** 교지에 그런 글이 실렸다는 사실

을 들었습니다.

○**朴承國委員** 학술지에 비교육적인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證人 金東均** 그것이 학술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朴承國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협의회장님, 기자회견문에 보면 '국회 교육위원이 교육법을 악법으로 개정했다.' 이래 가지고 회견한 가운데 이름을 실어 놓았습니다. 이런데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라는 것을 앞에 드러내었습니다.

제가 이 문서를 받고 국·공립교수협의회 회장에 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했더니 자기들은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상지대학에서 낸 이 문서에 들어갔느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도용했다는 것입니다. 도용한 것을 인정합니까?

○**證人 朴正元** 상지대학에서 낸 문서가 아니고 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가 처음에 두번은 참여했다가 그 다음부터 빠지겠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빠졌습니다.

○**朴承國委員** 그러면 지금 朴正元 교수께서 5적, 7적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證人 朴正元** 난처한 질의를 하시는데 저는 지난 번의 교육관계법 개정은 많은 교육단체들……

○**朴承國委員** 그러니까 직접 관계되는 조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수님에게 관계되는 조문, 다는 아니겠지요.

○**證人 朴正元** 예를 들면 사립대학에 공익이사를 파견하게 한 최초의 개정안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朴承國委員** 그것과 임기가 정해진 것 특히 관계되는 것은 상지대학 같은 데는 임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법률소위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3분의 1 공익이사를 넣으라는 것을 처음에 李海瓚 장관이 있을 때 3분의 1 공익이사를 넣었어요. 그 밑에 뭐가 달려 있느냐 하면 월급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주는 공익이사를 한다면 특히 상지대학 같이 경제가 어려운 이 때에 이사까지 월급을 주고 3분의 1을 넣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물었더니 '아, 그것 잘못 되었다 취소하자' 이래서 취소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악한 것입니까? 그래서 취소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기를 정한 것, 지금 영남대학이나 조선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10년까지 임시이사가

나갑니다. 임시이사라는 용어를 영구이사로 바꾸든지 그냥 이사로 하든지 고쳐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장관 답변이 '터미널이 없다. 그러면 임기를 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임기를 정해준 것입니다.

교육개혁을 하는 주체인 교육부 장관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서 해주었는데 우리가 개악을 했습니까?

○證人 朴正元 그것이 교육부의 요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朴承國委員 李海瓚 장관의 요구입니다.

요구가 터미널을 정해주면 우리가 앞으로 임시이사 철수를 시키고 안될 때는 새로운 이사를 보내고 하겠다. 그런데 나가 있는 임시이사를 철수하려는데 법이 없다 말이지요.

○證人 朴正元 朴위원님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같은 경우는 그런 조항의 개정으로 인해서 바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朴承國委員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는 대구대학과 상지대학이 10개의 임시이사 파견 대학 중에 굳이 2개 대학만 '임시이사를 더 연장해 주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연장을 해달라는 것인지 영구로 달라는 것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다른 대학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임시이사를 해지를 하고 정이사를 보내주시오.'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 상지대학만 생각해서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이 300개입니다. 300개 중에 임시이사 나가는 데가 10개입니다. 300개 중에 290개가 정상입니까, 임시이사 나가는 10개가 정상입니까, 어떤 것이 정상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모든 것을 정상체제로 해놓고 하는데 거기에 金文起 이사가장이 들어가니, 누가 들어가니 우리는 그것과 아무 관계 없는 것입니다. 국회라는 것은……

일단 어떤 합의를 보든지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정이사 체제가 되는 것이 290개의 다른 학교와 나란히 똑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터미널을 정해주고 법에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국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개악이다, 7적이다, 5적이다 하는데 판사가 판결을 할 때 판결독립권이 있지요. 국회의원은 입법을 하는 입법권이 있습니다. 교수는 교권을 가지고 계시지요. 교수가 역사를 가르치

는데 내 뜻과 안 맞는 역사를 가르쳤다고 해서 교수 7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證人 朴正元 그것은 저 개인이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활동이었습니다. 시민단체활동을 위원님들께서……

○朴承國委員 교수협의회에서 기자회견문에 5적, 7적 이름을 써놓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했다고 말씀했잖아요?

○證人 朴正元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는 팩스를 보낸 주체이고요. 실제로 그것은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朴承國委員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교수신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교수가 소위 국회의원을 보고 7적이다, 5적이다 규정한다면 그 배우는 학생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證人 朴正元 朴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朴承國委員 그리고 이 법이 고쳐질 때 우리보고 와서 이것은 이렇게 고치면 안됩니다라고 한번이라도 얘기를 해주었으면 저같은 경우는 온 분들은 거의 100%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한 분도 그런 얘기도 없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교육부가 개혁을 하려는데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이래서 한 일인데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사실상 국회의원 큰일났다, 어렵다 왜냐하면 교수가 법 잘못 만들었다고 7적, 5적 한다면 앞으로 누가 법을 만들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薛 勳委員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의사진행발언은 나중에 하세요.

○金許男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朴正元 교수한테 물어보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육부에서 교무위원회를 남기고 교수협의회를 없애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협의회가 해산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았더니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무위원회하고 교수협의회 하고 둘이 있으면 복잡해진다 이러니 교무위원회는 삭제해버리고 교수협의회를 지지해 주었던 말이에요. 지지한 사람을 5적, 7적이라고 하니 일

마나 썩스러운 일이요? 착각하지 말아요.

○委員長 咸鍾漢 그 얘기는 그만 하시고 다음 朴範珍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範珍委員 朴範珍 위원입니다.

金淵東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金淵東 증인은 법인사무처장으로 있습니까?

○證人 金淵東 학교사무처장입니다.

○朴範珍委員 그러면 학교의 역사를 잘 아시겠네요?

○證人 金淵東 좀 알지요.

○朴範珍委員 그러면 지금 상지대학은 처음부터 새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고 그 모체는 원주대학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상지대가 金文起 증인이 새로 설립한 것입니까, 아니면 원주대학을 인수해서 발전시킨 학교입니까?

○證人 金淵東 처음 학원을 인수할 때에 원주대학은 폐교되어서 없었어요. 그리고 잔류학생만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그러한 학원을 인수를 했지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4년제 대학을 만들자니까……

○朴範珍委員 알았어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도를 보셨지요?

○證人 金淵東 오늘 아침은 내가 못보았습니다.

○朴範珍委員 金晁一씨 잘 아시지요?

○證人 金淵東 압니다.

○朴範珍委員 그 분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양심선언을 했어요. 86년에 학교비리에 항의해서 농성중인 학생들을 용공세력으로 몰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름으로 불순 유인물을 만들어서 학교에 뿌렸다. 그 金晁一씨 얘기가 증인도 함께 같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證人 金淵東 아닙니다.

○朴範珍委員 그런데 그 분이 어째서 그런 얘기를 하지요?

○證人 金淵東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요새 아마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되고 여기에 장관님이 계십니다마는 장관님하고 세 분이 만나서 얘기한 이후부터 이제 상지대학에 대한 문제가 더 치열해져서……

○朴範珍委員 됐어요. 그러면 그 당시 학교에 뿌렸던 유인물 내용은 기억을 하십니까?

○證人 金淵東 13년 전인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기억합니까?

○朴範珍委員 그렇게 기억력이 나빠요? 어제 그

분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가자, 북의 낙원으로 조斗煥은 金日成 수령님과 타협해 통일하라'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뿌려놓고는 안기부에 갖다주었다고 그래요.

사무처장으로 있었다면서 그 내용을 잘 모릅니까?

○證人 金淵東 상황은 잘 알지요. 그것이 뿌려진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수사한 것도 알고 알지요.

○朴範珍委員 그 내용은 기억을 못하신다 이것이지요? 됐습니다.

다음은 金文起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학은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그런만큼 사실 어느 조직보다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반국민들이 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증인께서는 상지대 이사장으로 계실 때 학교비리문제로 구속이 되어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사면복권이 되셨다고 하지만 그런 경력이 있는 증인께서 다시 재단에 복귀하겠다고 이렇게 할 때에 국민이 이해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얘기하세요.

○證人 金文起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렇게 사정 1호에 들어가서 부정비리, 무슨 비리 무슨 비리 해도 단 100원의 추징금을 냈다든가 벌금을 낸 적이 없습니다. 다 억울하게 당했던 것이고 그리고 사립학교설립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朴範珍委員 제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국민이 이해를 하리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그동안에 상지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 2,000억 이상을 투자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운영을 하는 동안에 왜 이렇게 비리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까? 그동안에 교육부 특별감사도 두 번 받았어요. 보면 신입생 부정입학이 여러 건 있었어요.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이 왜 이런 부정사건이 터지지요?

○證人 金文起 그 모두가 다 허위로 끝났지 않습니까? 저에게 비리라고 했던 것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朴範珍委員 그러면 왜 사법부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까?

○證人 金文起 유죄는 타협을 해주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권이 갈 때 사정 1호가 되었는데 그냥 내주기가 어려우니……

○朴範珍委員 그런 정치적인 얘기는 여기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證人 金文起 지금 그 말씀을 물으니 제가 얘기했는데……

○朴範珍委員 됐어요. 그럼 마지막 하나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지난 8월 이후에 2000년부터는 증인이 상지대에 다시 복귀한다 이런 얘기를 지역사회에서 많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입니까?

○證人 金文起 저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합니다.

○朴範珍委員 의지요?

○證人 金文起 예, 그래야지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평생을 바쳐서 학교를 설립을 하겠다는 결심을 했던 것이니까.

○朴範珍委員 그 얘기는 누구한테 어떤 보장을 받은 것입니까?

○證人 金文起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할 일을 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朴範珍委員 됐습니다.

지금 이사장이신 李相禧 증인께 여쭙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시이사회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요?

○證人 李相禧 그렇습니다.

○朴範珍委員 거의 4년 다 되시는데요. 그동안 임시이사진이 학교를 운영하는 동안에 비리나 부정으로 인해서 학사운영이 중단된 일이 있나요?

○證人 李相禧 없습니다.

○朴範珍委員 그러면 상지대를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여쭙어 보겠습니다.

상지대가 갈 수 있는 길은 제가 보기에는 4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당분간은 임시이사체제로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양심적인 새로운 재단이 맡아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밖에는 시립대학이나 도립대학이나 국립대학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사장을 하신 입장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李相禧 그중에 어느 것이든지 이루어지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로서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좀 타진을 해보고 한 결과는 정

부입장에서는 국립대학으로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을 가급적이면 민영화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도립대학이라든지 시립대학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의치 않았습니니다. 그 다음에 양심적인 새로운 재력이 있는 분이 나타났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 또한 IMF 사태라든가 두루두루 해서 돈 있는 분이 학교를 하겠다고 나서지를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좀 막다른 골목에 있고 그러던 차에 상지대학 구성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것은 시민의 대학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 시민의 대학의 개념은 원주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전체의 양심적인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기금들을 조금씩 내고 시민단체들도 동참을 하는 분들은 돈을 내고 교수들은 정년퇴직할 때까지 월급 5%를 내고 이렇게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시민의 대학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지금 이런 구상을 하고 교수들은 결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朴範珍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은 朴正元 교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교수들 중에서 교수협의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몇 %나 되나요?

○證人 朴正元 전체 193명중에 136명이 교수협의회 회원입니다.

○朴範珍委員 그러면 몇%가 됩니까?

○證人 朴正元 73%쯤 될 것입니다.

○朴範珍委員 그러면 그동안에 임시이사진에 대해서 교수들과 학생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證人 朴正元 임시이사진이 파견되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또 외부에서 계속 학교를 흔드는 그런 여건 속에서도 학교발전을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구성원들은 사실은 법률이 개정이 안되었더라면 계속 계셨으면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範珍委員 상지대의 장래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李相禧 이사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證人 朴正元 예, 그렇습니다.

○朴範珍委員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상지대학교 관련 증인 여덟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휴식을 취하시다 교육부장관에 대한 질의시 다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대구대학 관련 증인에 대한 신문물 계속하겠습니다.

○李在五委員 상지대학에 대한 보충질의는 언제 하지요?

○委員長 咸鍾漢 나중에 장관에 대한 질의 때 하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委員長 咸鍾漢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학원 대구대학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일곱 분을 성명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金春一 교수협의회 회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鈞焄 총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孫光濟 교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成大 이사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漢 대구광역시 교육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華煥 전 대구미래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鍾東 전 이사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인사)

高恩愛 이사는 공식적으로는 통보 없이 대리인을 보내고 오늘 불참했습니다.

다음은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許男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許男委員 金許男 위원입니다.

○李在五委員 高恩愛 이사 대신 누가 나왔어요?

○專門委員 尙元鍾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러면 무단으로 불참한 거예요?

○委員長 咸鍾漢 대리도 오늘 보내겠다는 사람 안 왔어요?

○金許男委員 그런데 위원장님! 저는 高恩愛씨한테 질의할 것이 많았는데 거기서 한 명도 안 나왔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부터 알고 해야지요. 내가 첫 번째로 질의하는데 누구하고 대화하라는 말입니까? 위원장님! 대화할 사람이 있어야 대화를 할 것 아닙니까?

○委員長 咸鍾漢 그런 고발관계는 여기서 위원장

이 하자 말자 하는 것보다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중에 결정할 것이니까 우선 나오신 증인들 신문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許男委員 위원장님! 그러면 高恩愛씨의 대리인이 없습니까?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누구하고 상대해서 대화를 합니까?

○李在五委員 구 재단 측을 대표할 만한, 高恩愛이사가 답변할 내용을 자신 있게 대신할 만한 사람이 구 재단 측에서는 누구입니까?

대구대학 총장 오셨어요?

○證人 朴鈞焄 예.

○李在五委員 지금 총장이지요?

○證人 朴鈞焄 예.

○李在五委員 구 재단을 대표할 만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證人 朴鈞焄 현재로서는 안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그게 말이 됩니까?

총장은 구 재단 쪽을 잘 모르시지요?

○證人 朴鈞焄 예.

○李在五委員 그러면 구 재단 쪽을 대표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黃鍾東씨 나왔어요?

○委員長 咸鍾漢 잠깐, 지금 高恩愛 증인의 따님이 나오셨습니다. 따님께서 증언을 하시겠습니까?

○證人 李藝淑 예.

○金日柱委員 그런데 저 분이 학교경영이나 학사행정에 대해서 아는지……

○薛勳委員 대구미래대 학장이지요?

○證人 李藝淑 예.

○金日柱委員 현 학장이십니까?

○證人 李藝淑 예.

○李在五委員 黃鍾東 전 이사장 나오셨어요?

○證人 黃鍾東 예.

○李在五委員 黃鍾東 전 이사장은 高恩愛 전 이사가 있을 때 같이 일하셨지요?

○證人 黃鍾東 예.

○李在五委員 그러면 黃鍾東 증인께서는 구 재단을 대표해서 답변할 수 있지요?

○證人 黃鍾東 그런데 高恩愛씨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委員長 咸鍾漢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高恩愛씨 따님이 나오셨다니 그 따님의 증언을 대신 듣도록 하지요.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李在五委員 李藝淑씨를 바로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입니까?

○委員長 咸鍾漢 예.

○李在五委員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고 증인선서하세요.

○委員長 咸鍾漢 이에숙씨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겠습니까?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199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李藝淑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李藝淑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0월 13일

證人 李藝淑

○委員長 咸鍾漢 고은애씨 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金許男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許男委員 金許男입니다.

고은애씨가 없는데 따님이 나와서 증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몇 가지 물어볼 텐데 그때그때 예, 아니오로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이 부재중인 5년 동안 신임총장을 임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證人 李藝淑 잘 모르겠습니다.

○金許男委員 대구대학의 경영이 임시이사체제로 가기까지 지나친 가족경영이 있어서 비판이 있었다는데 그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證人 李藝淑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許男委員 지금 학내 분위기가 설립자 가족을 배제한 신 재단으로 구성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동

의합니까, 못합니까?

○證人 李藝淑 그것 보다도 저희 설립자 측에서 바라는 것은 할아버지의 건학이념을 받들어서 학교가 건학이념대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金許男委員 다음에라도 설립자로서는 대학을 꼭 도로 받고 싶다는 말이지요?

○證人 李藝淑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저희 심정으로서 저희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대구지역의 명망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대구대학교가 언제까지나 원래의 건학이념대로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金許男委員 그리고 만일에 정이사체제로 재단이 되면 그 후에 유가족들은 전부 감시체제로만 하지 학교경영에는 참여 안 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證人 李藝淑 맞습니다.

○金許男委員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 이사장님한테 묻습니다.

증인께서는 그 전 이사들이 가족경영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를 공정하게 경영했다고 생각합니까?

○證人 黃鍾東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金許男委員 먼저 이사장이 선임되기 전에 대구대학의 민주화백서라고 하는 것을 발간한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證人 黃鍾東 그 당시에는 자세히 몰랐고 그 후에 알았습니다.

○金許男委員 거기에 보면 전 이사장을 배제하고 모든 일을 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설립자 가족을 배제한다 그 말입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證人 黃鍾東 회미하게 기억이 납니다.

○金許男委員 그런 것으로 기억 됩니까?

○證人 黃鍾東 예.

○金許男委員 임시이사에서 이사장직을 맡아가지고 있었다는데 그때 공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까,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證人 黃鍾東 저는 임시이사회 이사는 아닙니다. 정식 이사회 이사고 이사장입니다.

○金許男委員 그러면 임시이사는 이사장이 그만둔 후에 들어왔습니까?

○證人 黃鍾東 예. 그렇습니다.

○金許男委員 그러면 그 전에 이사장할 때 공로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봅니까?

○證人 黃鍾東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총장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사회 이사장은 능력이 없어야 된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만 도와주었지 유능한 총장이 총장 일 잘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 무능한 이사회, 무능한 이사장이 오히려 학교 발전에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사장 노릇을 했습니다.

○**金許男委員** 지금 현재도 이사장입니까?

○**證人 黃鍾東** 지금은 임시이사가 들어서서 저는 벌써 이사장을 94년2월에 그만 두었습니다. 5년 전입니다.

○**金許男委員** 그러면 현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현 이사장께서는 재직해서 학교 발전을 많이 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證人 李成大** 제가 이사장 맡은 지 4년 되었는데 제가 와서 학교가 안정되고 제대로 발전되었다고 봅니다.

○**金許男委員**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이 들어와서 교수를 몇 명 정도 채용했습니까?

○**證人 李成大** 총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證人 朴鈞焄** 정확한 숫자는 자료로 제시하겠고 약 100명 이상 채용한 것 같습니다.

○**金許男委員** 그러면 교수가 모두 몇 명입니까?

○**證人 朴鈞焄** 현재 420명 정도입니다.

○**金許男委員** 그러면 4분의 1을 채용했다는 말이네요. 학교 교직원 보수규정을, 이사회 결의 없이 선생님들 봉급을 올렸다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證人 李成大** 그것은 제가 이사장 오기 전에 전 이사장이 계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임시이사진이 두 번 파견되었습니다. 처음 1차로 파견된 임시이사진이 1년 반 계시다가 나가셨고 그 후에 2차로 현재의 임시이사진이 온 것입니다. 그 결정문제는 첫 번째 임시이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金許男委員** 그러면 현재 학교 경영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란이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李成大**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許男委員** 현재 총장 임기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證人 朴鈞焄** 내년 2월16일까지입니다.

○**金許男委員** 그러면 이사장께서 총장님을 다시 재임명할 것입니까, 다른 분으로 할 것입니까?

○**證人 李成大** 재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金許男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다음 申樂均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바랍니다.

○**申樂均委員** 먼저 이성대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구대학의 임시이사장으로 계신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학내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대학이 안정되는 것은 필수조건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사립대학의 경우는 설립 당시의 건학이념이 학풍으로 이어져서 그 대학의 전통을 만들게 됩니다. 대구대의 설립정신과 그 목적에 부합하는 학풍을 만들기 위해서 현 임시이사진이 노력을 하셨는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학교의 목표와 학풍을 만드는데 대해서 주력하셨는지에 대해서 간결하게 종합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李成大** 건학정신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원래의 설립취지에 맞게 하는데 충실하셨다는 말씀이지요?

○**證人 李成大** 그렇지요.

○**申樂均委員** 계속해서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대구대학교의 등록금 의존비율이 94년에 비해서 줄었고 또 재단 전입금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0.8%에서 1.4%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임시이사 체제 이후에 재정분야 특히 시설 및 교육·연구 투자 부문에서 아까 발전을 했다고 종합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좀 밝혀 주시겠습니까?

○**證人 李成大** 간단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임시이사 이후 재산변동.

‘교육용 토지매입 약 13만3,000㎡, 금액 약 90억원입니다. 교사건축 면적약 6만㎡, 금액 약 265억원입니다.’

구조조정.

‘학과 통·폐합, 행정부서 통·폐합, 행정부 부서장 제도폐지 등등’ 이런 것 주로 많습니니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재원은 주로 어디에서 조달한 것입니까?

○**證人 李成大** 재원은 거의가 학생들 등록금입니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金春一 교수협의회 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오는 12월 총장선거와 제2기 임시이사가 종료되



는 그러한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행  
정과 재단운영이 동시에 변화를 겪을 전망입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대구대가 극심한 학내  
분규를 겪었던 95년에도 총장선거와 임시이사 사  
태가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기 임시이사 파견 이후 학내분규로 인  
한 수업결손이 있었는지 먼저 밝혀 주십시오.

○證人 金春一 임시이사 파견 이후 안정적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수, 학생 모두 안정  
되어 있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렇다면 지금 우려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경영이나 행정의 공백을 무난히 넘길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교직원의 입장에서 뭐라고 생  
각을 하십니까?

○證人 金春一 대구대학은 전례대로 10년동안 교  
수가 총장을 선출해서 이사회에 제출하면 임명을  
해오셨습니다. 이번에도 12월2일 관례에 의해서 총  
장을 교수들이 뽑습니다. 이 분이 이사회에 승인을  
받고 출범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못될 경우에 큰 소요가 있으리  
라고 예상이 됩니다.

○申樂均委員 잘못될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  
시는 것입니까?

○證人 金春一 그 뽑은 사람을 배제한다면……  
교수와 학생 이런 분들이 원하는 어떤 사람을 뽑  
을텐데, 누구인지는 아직 모릅니다마는 그것이 배  
제되면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그래 가지고  
상당한 소요가 예상이 되고 그 부분이 제일 걱정  
이 됩니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선출된 총장이 그대로 임명  
만 되면 어떠한 이사진이 해도 소요가 없을 것이  
라는……

○證人 金春一 그 분을 중심으로 해서 학내 안정  
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현 이사  
장님이 다른 것 다 놔두고 학원 안정이 최우선이  
라고 해서 우리 모두 지금 거기에 따르고 있는 중  
입니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지금 高恩愛 증인 대신 참  
석하신 李藝淑 증인에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우선 대구대와 대구미래대학이 과거에 어떠한  
관계인지 간단하게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證人 李藝淑 저희 아버님께서 대구대학교 총장  
하시면서 대일전문대학이라고 전문대학을 인수하  
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사장으로 계셨습니다. 같  
은 설립자이지만 재단은 영광학원, 애광학원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申樂均委員 아주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 있  
겠군요. 그러면 증인이 재직하고 있는 대구미래대  
학에서 96년1월 張華煥 교수를 파면한 사실을 아  
십니까?

○證人 李藝淑 알고 있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그 당시의 이유가 무엇인지  
도 아십니까?

○證人 李藝淑 자세히 모릅니다.

○申樂均委員 대구대 로비자금을 대구미래대가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서 파면된 것으로 아는  
데 지금도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證人 李藝淑 자세히 모릅니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대강은 알고 계시다는 뜻인  
가요?

○證人 李藝淑 예.

○申樂均委員 그러면 올 2월에 대법원에서 복직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대구미래대는 지난 8월에  
이사회를 열고 재임용 교수 다섯명 중에서 네명은  
임명하고 이 한분만 임용 제외를 했습니다.

임용을 제외한 이유는 무엇이었는데 설명할 수  
있습니까?

○證人 李藝淑 제외된 한명이 張華煥 교수라고  
말씀하십니까?

○申樂均委員 예.

○證人 李藝淑 제가 알기로는 그때가 기소중  
지…… 여러 가지 법적으로 뭐가 있었다고 생각합  
니다. 지금 금방 기억이 안납니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법적인 이유가 없을 때는  
복직확정 판결대로 복직을 시키실 것 인가요?

○證人 李藝淑 예, 당연합니다.

○申樂均委員 그리고 지난 9월3일 학교 금고에  
보관중이던 학교법인 직인을 가져가서 학교 행정  
이 마비가 되었다고 직원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證人 李藝淑 맞습니다.

○申樂均委員 이런 것 때문에 대구미래대학 경영  
형태를 못벗어난 것이라고 평가들을 하고 본위원  
도 그런 데에 대한 심증이 큰 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證人 李藝淑 ……

○申樂均委員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은 張華煥 교수께 묻겠습니다.

지난 95년 공금이 빼돌려져 대구대 찾기 로비자  
금으로 쓰여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파면되었다

고 하는데 본위원회에 다시 한번 파면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證人 張華煥 허위사실 유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그 당시에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학교 재단측에서는 허위사실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을 파면시켰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확신은……

○證人 張華煥 작년 서울 동부지청에서 이 사건을 수사해 가지고 지금 여기 계시는 李藝淑 증인도 실형을 받고 또 그와 같이 일을 한 몇 사람이 전부 실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申樂均委員 지난 2월에 대법원에서 복직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그 후에 학교로부터 어떠한 연락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證人 張華煥 전혀 받은 바 없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지금 李학장님은 그게 확정된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복직시켜야 된다고 답을 하셨는데 그러면 복직할 의사는 있으신 것입니까?

○證人 張華煥 예, 복직할 의사가 있습니다.

○申樂均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다음 李在五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李在五委員 李在五 위원입니다.

증인들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黃鍾東 증인, 증인이 이사장으로 재직할 시에 실질적인 이사장 역할은 高恩愛 이사가 다 했지요?

○證人 黃鍾東 사실은……

○李在五委員 예, 아니오만 답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이사장의 역할은 高恩愛씨가 하고 증인은 형식적인 이사장이었지요?

○證人 黃鍾東 말하자면 실질적인 이사장은 이태영씨였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런데 그 당시 이태영씨는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高恩愛씨가 다 했지요?

○證人 黃鍾東 대변자로서 그저 했다할 수 있겠지요.

○李在五委員 李藝淑 증인, 高恩愛씨하고 어떤 관계지요?

○證人 李藝淑 저의 어머니되십니다.

○李在五委員 지금 李藝淑씨 몇 살이지요?

○證人 李藝淑 44입니다.

○李在五委員 몇 살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학교 일 관계했어요?

○證人 李藝淑 96년도 미국에서 나온 이후입니다.

○李在五委員 그러면 대충 어머니가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들어서 또 옆에서 봐서 잘 알고 있겠네요?

○證人 李藝淑 예.

○李在五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어머니가 이사장인 대구대학의 구재단이 교비 불법 유용, 법인세 환급금 부당횡령, 등록금이용, 교직원 명의로 부동산 투기, 교비 불법유용 기업설립, 물품구입 및 시설공사 불법수계약, 교원임용 관련 비리, 공사사용 골재 고가구입, 설계용역 계약 부적절, 대학조교 전원 미임용, 시설공사비 중복계상, 지출의 특혜사용문란 이러한 비리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證人 李藝淑 아닙니다.

그 관계로 고소고발된 적은 있었지만 무혐의로 처리되었습니다.

○李在五委員 증인, 증인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십니까?

○證人 李藝淑 예.

○李在五委員 증인은 1심에서 1년6월의 3년간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지요?

○證人 李藝淑 예.

○李在五委員 대구대학과 대구미래대학에 관련되어서 총 열아홉명이 실형을 받았지요?

○證人 李藝淑 예.

○李在五委員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證人 李藝淑 예.

○李在五委員 특히 그 중에 사상 유례없이 교육부 관리들이 다섯명이나 관련되어서 실형을 받았지요?

○證人 李藝淑 예.

○李在五委員 교육부 관리들은 증인의 로비에 의해서 이 사건에 관련이 되었지요?

○證人 李藝淑 아닙니다.

○李在五委員 그러면 교육부 관리들이 자기네들 스스로 이 사건에 개입했나요?

○證人 李藝淑 아닙니다.

○李在五委員 그러면 이 사람들 왜 실형받았습니까?

○證人 李藝淑 그것은 저희 동생이고 당시 경북 실전의 기획실장이었던 동생과……

○李在五委員 됐습니다.  
 증인이 가족 내부에 있어서 대구대학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지요?  
 ○證人 李藝淑 없습니다.  
 ○李在五委員 왜 장남을 두고 증인이 어머니와 함께 경영에 깊이 관계했지요?  
 ○證人 李藝淑 아닙니다.  
 ○李在五委員 알겠습니다.  
 구재단에서 대구대학을 되찾기 위해서 불법으로 로비한 사실은 인정하시지요?  
 ○證人 李藝淑 아닙니다.  
 ○李在五委員 아니, 불법로비 사실을 인정 안하신다구요?  
 ○證人 李藝淑 예. 그런 적이 없습니다.  
 ○李在五委員 95년 교육부 민원감사에서 청탁로비 사건이 있어서 그것이 유죄까지 받았는데 인정을 안하신다구요?  
 ○證人 李藝淑 억울합니다.  
 ○李在五委員 증인은 조금전 제 질의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그랬지요?  
 ○證人 李藝淑 맞습니다.  
 ○李在五委員 존중하는데 인정 안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證人 李藝淑 지금 고등법원에 항소중입니다.  
 ○李在五委員 그러니까 고등법원에 항소중은 항소결과가 나와 봐야 알지만 일단 1심 판결은 냈지요?  
 ○證人 李藝淑 맞습니다.  
 ○李在五委員 95년 미래대학 교비유용에서 불법비자금 조성해서 교육부에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적 있지요?  
 ○證人 李藝淑 없습니다.  
 ○李在五委員 미래대학이 인사를 파행적으로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證人 李藝淑 없습니다.  
 ○李在五委員 99년에 경일건설 관련 인물의 교수 채용을 한 적이 있습니까?  
 ○證人 李藝淑 없습니다.  
 ○李在五委員 95년 김제완 서무과장 교수 특채한 사실있습니까?  
 ○證人 李藝淑 잘 모르겠습니다.  
 ○李在五委員 증인, 여기는 국정감사장입니다.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인과 증인의 어머니 대구대학의 구재단은 대구대학을 교육적 목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의 영리목적으로 운영했습니까?  
 ○證人 李藝淑 당연히 교육적 목적입니다.  
 ○李在五委員 증인, 대학을 주식회사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李藝淑 아닙니다.  
 ○李在五委員 대학은 설립자가 있을 수 있지만 대학의 주인이 곧 설립자라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李藝淑 아닙니다.  
 ○李在五委員 현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관선이사 체제지요?  
 ○證人 李成大 예.  
 ○李在五委員 현 관선이사 체제는 설립자가 '장애인 복지를 위한 특수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취지에 벗어난 학사운영을 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證人 李成大 안맞습니다.  
 ○李在五委員 증인, 위증하면 안됩니다.  
 대명동 캠퍼스가 있는데 특수학교 운동장이지요?  
 ○證人 李成大 예.  
 ○李在五委員 그 특수학교 운동장을 왜 주차장으로 활용했습니까?  
 ○證人 李成大 그 학교에는 지금 특수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범대학하고 재활대학교하고 대학본부가 거기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특수학교에 대한 투자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證人 李成大 제가 와서 소홀히 했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李在五委員 朴鈞焄 총장님, 총장님은 구재단측에 보수파와 소장파 또 교수협의회 중심의 개혁파만 주로 주변에 두었다는 지적이 있습니까?  
 ○證人 朴鈞焄 그렇지가 않습니다.  
 ○李在五委員 총장께서는 미래대학을 흡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證人 朴鈞焄 없습니다.  
 ○李在五委員 사회복지대학으로서 특수대학의 특성을 포기하고 일반대학으로 나갈 의사가 있습니까?  
 ○證人 朴鈞焄 지금 저희 대학은 학부 학생만 1만6,000명이 되는 거대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야만 육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李在五委員 지금 설립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

다. 이사장이 누가 가든 경영을 누가 하든 설립자의 복지, 특수…… 이런 장애인에 대한 뜻만 살려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 믿습니까?

○證人 朴鈞焄 지금도 그 뜻을 충분히 살리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임시이사 체제가 들어서서 96년도에 교육부 감사를 받았지요?

○證人 朴鈞焄 예.

○李在五委員 그 감사에서 네 가지를 지적 받았습니까.

교육용 토지매입 절차의 부정, 교비회계처리 부정 행위, 교직원 보수규정개정 이사회 의결없이 임의진행, 현재 학교진입로 개설로 인해 환경오염과 훼손 야기 이런 네 가지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證人 朴鈞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네 가지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證人 朴鈞焄 예.

○李在五委員 李藝淑 증인!

구 재단측이 과거에 여러 가지 사법적인 판단이나 비리로 인한 것 또 교육을 할만한 도덕성과 학사운영이 매우 미숙하다 그래서 대학운영을 부패의 온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일반적인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證人 李藝淑 못합니다.

○李在五委員 李成大 이사장님!

구 재단이 비리와 파행적으로 학사를 운영해서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열악한 환경과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대구대학이 사회복지대학으로서 설립취지를 더욱더 살리고 발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證人 李成大 예,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薛勳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薛勳委員 金春一 증인에게 물겠습니다.

金春一 증인은 대구대학교에 계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證人 金春一 15년 되었습니다.

○薛勳委員 그러면 대구대학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겠네요.

○證人 金春一 예.

○薛勳委員 94년에 임시이사 파견되기 전까

지 高恩愛씨의 남편인 이태영 총장 이 분이 5년간 신병치료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간 적이 있었지요?

○證人 金春一 예.

○薛勳委員 그러자 부인인 高恩愛씨가 이사로 있으면서 학교운영을 주도했지요. 그래서 장기간 총장 궐석이 문제가 되니까 93년4월6일에 高恩愛씨가 이태영 총장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高恩愛씨가 주도해 가지고 신상준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했지요?

○證人 金春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薛勳委員 그런데 高恩愛씨가 제출한 이태영 총장 사직서가 자필이 아닌 것이 밝혀졌지요?

○證人 金春一 그 당시에 교협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薛勳委員 그것이 절차상의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총장을 선임한 이사회가 일주일 전에 회의를 통보하지 않아 가지고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 기억이 납니까?

○證人 金春一 그렇게 자세히는 모릅니다.

○薛勳委員 그래서 신상준 총장이 총장 직선에 앞장선 조기섭 직선 총장과 흥덕불 교수협의회 총무를 이사회 결정없이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고 그런 적이 있지요?

○證人 金春一 예, 그래서 분규가 촉발되었습니다.

○薛勳委員 그래서 학내분규가 격화되어 가지고 그로 인해서 교육부의 감사가 있었지요?

○證人 金春一 그랬습니다.

○薛勳委員 그래서 1993년8월2일에 교육부 감사를 했는데 감사결과에 의하면 교육부에다가 허위보고로 해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교수도 있었고 실제 임용일보다 앞당겨 가지고 교육부에 임용보고를 올려 가지고 당사자한테 월급도 주지 않았는데 준 것처럼 이렇게 한 편법도 있었고 91년부터 93년6월까지 교비 약 10억여원을 유용해 가지고 재단에 범정부담금으로 사용했고 또 법인세 환급금 2억7,000만원을 횡령했고 또 2억7,000만원의 수익용 증권을 증자보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적발되었고 이런 재정관련 비리가 여러 건이 있었지요?

○證人 金春一 당시 지방신문에 그런 시끄러운 것이 많이 났었습니다.

○薛勳委員 기억 나실 것입니다.

그러자 '직선총장 임명해라 그리고 재단 퇴진하

라' 그러면서 학생들과 교수의 시위가 격화되었지요?

○證人 金春一 그렇습니다.

○薛 勳委員 그러자 교육부에서 이사회를 전면 개편하고 임시이사 체제가 들어섰지요?

○證人 金春一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이 하나 불타 죽고 교수가 200 일 넘게 데모를 했었습니다. 마비가 되었지요.

○薛 勳委員 그 다음에 임시이사 체제가 되고난 뒤에 전 이사진 체제하고 임시이사진 체제하고의 차이점에서 학교발전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證人 金春一 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더 좋겠는데 첫째, 안정이고 최근까지 거의 소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교수가 백이십몇명 더 늘어났고 학생도 늘어났고 가령 사범대학 같으면 전국의 4개 대학 중에 하나로 뽑혔습니다. 일치단결해서 대응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 같으면 테크노파크 사업단이 되어 가지고 외부의 특성화사업으로 수십억의 연구비를 가져오고 공대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각기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薛 勳委員 그러니까 교수와 학생과 임시이사 체제가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학교를 발전시켰다는 사실이지요?

○證人 金春一 예, 그렇습니다.

○薛 勳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따님이신 李藝淑씨!

98년에 대구미래대 학장으로 계실 때 4억원 정도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아까 李在五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년6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 받았지요?

○證人 李藝淑 비자금은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薛 勳委員 1년6월에 3년 집행유예 선고 받았지요?

○證人 李藝淑 예.

○薛 勳委員 지금 고법에 계류중입니까?

○證人 李藝淑 예, 맞습니다.

○薛 勳委員 그러면 1년6월에 3년 집행유예 이 유죄가 인정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체 학교관계에 손을 떼고 더 이상 왈가왈부 안 할 그런 생각이십니까?

○證人 李藝淑 맞습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薛 勳委員 형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이니가 무죄로 인정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 감사관들을 필두로 해서 열 몇명이 구속되고 실형선고를 받았습시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 형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본인은 무죄라고 그러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법부에서 실형을 내렸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인은 전혀 잘못된 것이 없습니까, 이런 사실이 다 엉터리입니까, 불법 비자금 조성해 가지고 매수하고 이런 것 다 사실 아닙니까?

○證人 李藝淑 어쨌거나 저희 가족들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희생된 데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薛 勳委員 지금 현재 증인이 대구미래대의 학장입니까?

○證人 李藝淑 맞습니다. 학장 직무대리로 있습니다.

○薛 勳委員 이근용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證人 李藝淑 제 동생입니다.

○薛 勳委員 이근용씨와 이예숙씨는 견해가 다르지요?

○證人 李藝淑 아닙니다. 같습니다.

○薛 勳委員 똑같은 입장입니까?

○證人 李藝淑 예.

○薛 勳委員 95년에 불법비자금조성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검찰에 폭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證人 李藝淑 잘 모르겠습니다.

○薛 勳委員 이근용씨가 검찰에 알려 주었습니다. 아실 것입니다.

張華煥 증인!

지금 본위원이 李藝淑 증인과 얘기를 주고받은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4억원 비자금 조성해 가지고 1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감옥 보내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보십시오.

○證人 張華煥 95년도에 저희들이 그 사실을 알고 학내소요도 있었고 상당히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사실로 들어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실은 확신합니다.

지금 李藝淑씨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희 모든 구성원들은 그렇게 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薛 勳委員 대구미래대의 경우인데 금년 9월에 李藝淑씨가 학교 직인을 탈취한 사건이 발생했는

데 '학교를 건설업체에 매각한다.' 이런 소문들이나 가지고 학내분규가 격화되었던 사실이 있지요?

○證人 張華煥 예, 그렇습니다.

○薛 勳委員 그것을 자세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證人 張華煥 그때 제가 학교에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지금까지 李藝淑씨의 신임이 되어준 김제완씨와의 트러블 때문에 자체에서 그 사건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薛 勳委員 알겠습니다.

혹시 증인은 미래대학 건으로 해가지고 미행 당하거나 감시 당하거나 협박 당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證人 張華煥 전화는 받은 적이 있고 작년에 저하고 이근용 교수하고 학교 행정직원하고 세명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미행을 해가지고 그때 행정직원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었습니다.

○薛 勳委員 張華煥 교수가 파면된 것이 언제입니까?

○證人 張華煥 96년1월15일입니다.

○薛 勳委員 그것을 취소소송을 해가지고 대법에서 승소했지요?

○證人 張華煥 예, 2월에 승소했습니다.

○薛 勳委員 그런데 복직이 안 되었습니까?

○證人 張華煥 예, 전혀 그런 통보를 받은 바 없습니다.

○薛 勳委員 그리고 재임용에서 다시 탈락시켰지요?

○證人 張華煥 예, 그 사실도 몰랐는데 동료 교수가 알려주어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證人 張華煥 그러면 살짝 복직시켰다가 다시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경우입니까?

○證人 張華煥 예, 저한테는 그런 사실이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薛 勳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다음은 朴承國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承國委員 朴承國입니다.

우선 李成大 이사장님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립대학이라는 것은 원래 건학자가 건학이념을 가지고 설립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대학을 설립할 때는 대중을 상대로 한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하지만 사립은 특수성에 의해서 설립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계통에서 대학을 세운다든가 또는 자기의 특수한 과학을 목적으로 세운다든가 이런 설립 특수성이 있는데 지금 원래 정신이 한국사회사업대학 아니었습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로 전문으로 하는 대학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 건학이념이 승계되고 있습니까?

○證人 李成大 예, 승계되고 있다고 봅니다.

○朴承國委員 그러면 이 복지계통하고 다른 계통하고 학생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證人 李成大 총장이 말씀을 해주세요.

○證人 朴鈺炘 비율이라기 보다는 다른 학교에 없는 특수교육 쪽에 4개 사범대학 과가 우리나라에 있고 재활과학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등.....

○朴承國委員 지난 번 원 설립자가 부정이나 비리에 의해서 물러났다고 봅니다, 장기치료를 하는 동안에 잘못이 되었는가?

○證人 李成大 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발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朴承國委員 그 다음에 정관에 대학총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咸鍾漢 위원장, 朴範珍 간사와 사회교대)

○證人 李成大 정관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朴承國委員 그러면 정관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證人 李成大 대학총장을 직선하는 것은 현재 정문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교수협의회에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朴承國委員 그러면 이 사립학교라는 것은 사립학교법이 있습니다. 정관에 설치 못했으면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 법에는 직선제 총장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선제로 하고 있지요?

○證人 李成大 예.

○朴承國委員 그 다음에 혹시 설립자 가족에게 예우차원에서 어떤 생계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證人 李成大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족에 대해서 말하자면 高恩愛 여사에 대해서 총장 총액보수의 70% 그러니까 한달에 요새 같으면 350만원정도의 생계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朴承國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朴鈞焄 총장님에게 물겠습니다.

재단에서 1년에 얼마나 출연이 됩니까?

○證人 朴鈞焄 그렇게 큰돈은 못 받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5억정도……

○朴承國委員 그 다음에 총장께서는 직선총장이 시지요?

○證人 朴鈞焄 그렇습니다.

○朴承國委員 어떤 법 근거하에서 직선총장에 취임을 했습니까?

○證人 朴鈞焄 거기에 제가 재직하고 있지 않고 소위 외부영입총장이라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일부교수에 의해서 영입되어 가지고 저도 같이 출마해서 교수회의해서 선임되어서 임명이 되었습니다.

○朴承國委員 지금 하고 있는 총장선출 방법이 법에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證人 朴鈞焄 알고 있습니다.

○朴承國委員 그 다음에 총장님 휘하에 있는 교수들 중에 국회에서 법을 잘못 고쳤다 다시 말하면 대구대학에 임시이사가 들어와서 아주 잘하고 있는데 임시이사의 임기를 정함으로써 우리에게 대단히 불리하다. 그래서 잘못 고친 국회의원을 5 적이다, 7적이라고 규정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朴鈞焄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거쳐 가지고 저희 대학이 한 4·5년동안 안정을 누리고 다른 대학이나 마찬가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 마당에 이사교체 문제가 나와 가지고 학교가 앞으로 과거의 어떤 그러한 것이 다시 생기지 않나 이런 우려에서 그런 것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총장으로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朴承國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사립대학이 300개가 있는데 지금 임시이사 나가 있는 데는 10개뿐입니다. 그래서 10개를 우리가 어느 대학 꼭 대구대학이다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서 임시이사의 임기를 정해줌으로써 다음에 정이사 체제가 된다 또 정이사 체제가 되는 것은 꼭 구 재단인사가 들어오는 것이다 이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證人 朴鈞焄 알고 있습니다.

○朴承國委員 이런 법은 바로 정부에서 교육개혁을 하는데 꼭 있어야 된다 이래서 장관이 요구하기 때문에 임시이사의 터미널을 정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10년제 임시이사가 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철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터미널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2년 거치 4년으로 하라. 4년까지도 분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발전이 안된다면 의지가 없거나 그 분이 능력이 부족하니까 철수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證人 朴鈞焄 그것에 대해서 저 자신으로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朴承國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에 高恩愛 여사 대리 李藝淑씨에게 물겠습니다.

임시이사가 온후에 각종 비리가 있다고 그 집안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證人 李藝淑 소문은 들었습니다.

○朴承國委員 소문만 들었지요?

○證人 李藝淑 예.

○朴承國委員 왜 그러나 하면 우리 사립학교법에 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공익법인이니까 한번 재산을 출연하면 그만이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출연한 분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도 예우를 해주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도 사립학교에 투자할 사람이 있는 것이고 설립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냐 설립해 놓자마자 그냥 쫓겨 나버리면 누가 돈 넣고 학교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이라는 용어를 사립학교법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임시이사를 보낼 때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장관의 직권에 의해서 임시이사를 파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사립학교의 출연자의 뜻을 높이 평가하는데서 법정신이 있다고 봅니다.

金春一 교수협의회장에게 물겠습니다.

교육법 개정이 악법이라고 하는데 어느 대목을 악법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證人 金春一 대학교수의 자율성이 위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朴承國委員 어느 법조문이 그렇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證人 金春一 예를 들면 공익이사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제가 방청을 했습니다. 많이 이해가 되었고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생각을 달리하겠습니다.

○**朴承國委員**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공익이사를 나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한번 더 짚고 넘어 갑니다마는 급료를 주고 3분의 1을 보낸다는 것은 어려운 대구대학에 이사까지 월급 주는 이사를 보내서 되겠습니까? 안된다 했더니 장관이 그럼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3분의 1을 보내는 것을 그러면 안보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법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그 철수한 장관이 잘못했거나 또는 이 법에 내용을 넣지 않았는데 공포를 한 대통령이 잘못된 것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지요. 그래서 만든 소위 말하자면 국회의원이 악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됩니다.

○**證人 金春一** 8월 중순에 개정이 되었고 당시에 직선총장이 전부 없어지고 구재단이 전부 들어온다 이렇게 일간지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오해하고 당시 10여개 사립대학이 연합해서 대단히 분노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용어가 잘못된 것이 많 습니다.

○**朴承國委員** 알겠습니다.

특정인을 비방하는 유인물도 대구에 우리 지구 당에까지 많이 왔습니다. 저도 보고 지금까지 아직 대구대학에 한 말씀드린 것이 없습니다. 묵묵히 참고 어느날인가는 이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같은 이 국감의 장소가 교수님들이나 국회의원, 교육부장관 다 서로 이해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절대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어느 누구의 로비를 받아서 특히 대구에 계시는 분들은 저를 알 것 입니다. 저는 20년간 제 것을 먹고 제가 살고 야당만 해온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의 사립학교에 넘어가서 할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더라도 교수협의회에서 오시든지 총장님이 오시든지 와서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여러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朴範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壽仁**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壽仁委員** **李壽仁** 위원입니다.

우선 이사장님께 여쭙어 보겠습니다.

정관이나 사립학교법에는 총장직선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직선에 의해서 뽑힌 총장 후보 당선자를 임명합니까, 안합니까?

○**證人 李成大** 합니다.

○**李壽仁委員** 그것이 관례화 되어 있고 그것이 학원 민주화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군사정권 시대 이래 가장 학원 민주화에 앞장선 제도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안하십니까?

○**證人 李成大** 인정합니다.

○**李壽仁委員** 그러면 교수협의회라는 것이 교육부의 정권, 군사정권의 악법 또 재단의 통제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교수들이 자위책으로 국·공립을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證人 李成大** 알고 있습니다.

○**李壽仁委員** 이것을 없앤다면 학원민주화가 사회민주화에 얼마나 결정적인 공로를 끼친다 이 사실, 이 개념을 전혀 갖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證人 李成大** 알고 있습니다.

○**李壽仁委員** 그리고 학원민주화야말로 사회민주화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證人 李成大** 예.

○**李壽仁委員**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구대학교가 임시체제 출범 이후에 대구대학교의 설립이념이기도 한 특수교육 재활과학분야의 발전이 아주 획기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조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 관련 4개학과가 있는 특수교육과, 초·중·고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치료특수교육과지요. 여기에 소속된 사범대학이 전국 사범대학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사범대학으로 선정되었고 총 31억7,000만원의 재정이 투입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구대학의 설립 당시의 특수성이 그대로 살아 있다는 증거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證人 李成大** 맞습니다.

○**李壽仁委員** 더욱 발전했다는 것도 맞습니까?

○**證人 李成大** 예.

○**李壽仁委員** 그 다음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구사회에서는 대학인이라면 혹은 일반시민이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구대학의 원래 설립자는 이영식씨도 아니고 이태영씨도 아닙니다. 이것은 박영생씨인데 처음에 맹아학원으로 출발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證人 李成大** 예.

○**李壽仁委員** 그리고 그 중간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이영식, 이태영 이 분들이 설립자 행세를



했다는 것도 아십니까?

○證人 李成大 알고 있습니다.

○李壽仁委員 그리고 이태영씨가 5년간 전혀 나타나지 않은 행방불명 상태에서 대구사회는 워낙 좁은 사회여서 경북고등학교 동기동창들로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자리에서 이미 작고했거나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사실 작고설이 유포했다는 그런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도 기억나십니까?

○證人 李成大 저는 그 당시에 영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은 못하지만 영대에 있을 때 저도 그런 소문을 듣긴 들었습니다.

○李壽仁委員 남의 죽음 그것은 자세히 조사해서 밝힐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행방불명된 이태영 전 총장이 사실상 5년간 총장으로 그대로 재직한 사실, 그 다음에 봉급 모든 것이 그대로 지급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證人 李成大 예, 그것은 여기 이사장 와서 알았습니다.

○李壽仁委員 그리고 이것은 교육부가 일체 그것을 방지하고 그대로 내버려두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證人 李成大 예.

○李壽仁委員 교수들이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있는데도 전혀 고치는 바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證人 李成大 알고 있습니다.

○李壽仁委員 그리고 이사장님하고 李鐘漢, 金春一 교수협의회장, 홍덕률 교수 네 분한테 다 묻습니다.

대구대학의 유형은 제가 법칙화하고 정형화한 이 5개 유형의 부정부패에 모두다 들어맞습니다. 첫째로 학교공금횡령 또 회계부정, 영광학원에 대해서는 하나의 예만 들어도 93년도 교육부감사에 의해서 지적 당했고 그것이 교비 10억원 유용설입니다. 불법유용이지요. 또 영광학원에 대해서는 98년9월 검찰수사에서 95년도부터 97년까지 7억9,000만원의 교비를 유용했음이 수사결과 밝혀졌습니다.

네 분 다 알고 계십니까? 대표로 대답해도 됩니다.

○證人 金春一 예, 알고 있습니다.

○李壽仁委員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인데 교수임용 및 재임용 부정입니다.

대구대에서 93년 신상준 총장으로 하여금 조기 섭 직선총장과 홍덕률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실이 있었지요?

○證人 金春一 그렇습니다.

○李壽仁委員 그리고 대구 미래대에서는 96년1월 김형일, 張華煥 교수를 불법적으로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證人 張華煥 그것이 사실입니다.

○李壽仁委員 張華煥 교수 아까 대답했지요? 그리고 대구대학에서도 알고 있지요?

○證人 金春一 예, 알고 있습니다.

○李壽仁委員 특히 張華煥 교수는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도움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아마 재임용 탈락을 시켰다면 마치 복직한 것처럼 꾸며서 재임용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張華煥 교수! 내 말이 맞습니까?

○證人 張華煥 예, 사실입니다.

○李壽仁委員 그 다음에 지금 대구미래대학은 50% 이상의 교수들이 1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작을 못하게 묶어 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한 양 신발명품이라고 자랑하고 다니고 교수들은 노비문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證人 張華煥 사실입니다.

○李壽仁委員 그리고 1년 단위의 계약이라는 것은 사립학교법을 아주 전적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으로 입시 및 편입학 부정입니다.

申相俊 전 대구대 총장 시절에 대학원 입시부정을 저질렀는데 제가 다른 구체적인 명수나 이런 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金春一 교협회장은 확인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證人 金春一 예, 맞습니다.

○李壽仁委員 넷째로 재단의 전횡 및 학사행정 간섭입니다.

우선 관선이사 파견 전의 대구대학 학사행정은 高恩愛 이사에 의해서, 또 현재의 대구미래대는 李藝淑씨에 의해서 그렇게 전횡되는데 다른 구체적인 얘기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아까 증인 선서 뒤에 학장이다 또 혹은 학장대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범법자로 1년6개월 복역하고 지금 고법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과연 학장 자격이 있는

나, 학장대리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총장 선임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申相俊 총장 임명의 문제점, 또 95년12월 尹德弘 총장당선자에 대한 해임입니다. 尹德弘, 李鐘漢 두 교수가 해임되었는데 교육부에서는 원래 표적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이 구속되고 그런 사실을 알지요?

○證人 金春一 예.

○李壽仁委員 그리고 李藝淑씨가 구속되었지요?

○證人 金春一 신문보도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李壽仁委員 이것은 대서특필되어서 아실 것입니다. 나도 생생하게 압니다.

이것은 李鐘漢 교수가 주 목표가 아니고 尹德弘 교수가 목표인데 이 사람은 총장당선자입니다. 2개월간 끈 노사협의를 단숨에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을 처리했거든요. 그리고 이사회는 일주일 뒤에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에 의하면 강제규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이 최우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가 그것을 확인해 주고 2개월 동안 봉급을 못 받았으니까 우선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사회에 보고를 안 하고 지급했다고 해서 교육부는 표적감사를 했지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총장을 취임 못하게 하는 해코지만 하면 되었지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니까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경징계라고 하면 주로 경고입니다.

그러나 대구대학 이사회에서는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교육부에 올라가서 3개월 정식으로 되었습니다. 그것도 중징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尹德弘, 李鐘漢 둘 다 법원에서 승소를 했지요. 그래서 복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張華煥 교수는 복직이 안 되고 왜 두 분 교수는 복직이 되었느냐 하면 대구대학 이사진 7명 중에 4명이 개혁적인 성향의 이사입니다. 다수결이기 때문에 이사진의 구성 성격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證人 金春一 예, 동의합니다.

○李壽仁委員 시간이 되었으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朴鈞焄 현 총장의 부정부패문제에 관해서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350여억원에 달하는 7개의 공사를 한 건설회사에 발주했습니다. 대구대학 재무회계규정을 어기고 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최저가격

낙찰원칙을 다 어겼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고발자가 총학생회장이고 그 당시 학생운동 때문에 당국의 수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고발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수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아십니까?

○證人 朴鈞焄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李壽仁委員 사실이 아닙니까?

○證人 朴鈞焄 아닙니다.

○李壽仁委員 그러면 다음에 토론하기로 하고 제신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에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證人 李成大 제가 한 가지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영광학원 설립자를 박영생 목사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는 설립자가 이영식 목사로 되어 있습니다.

○李壽仁委員 그렇습니까?

○證人 李成大 예.

○朴承國委員 방금 李壽仁 위원께서 발언하신 중에 저하고 연계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립학교법에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 16조에 보면 이사의 기능 중에서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조에 보면 임면은 누가 하느냐 하면 「학교의 장의 임면, 각급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딱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있는 것을 없다고 그러서는 안 됩니다.

○李壽仁委員 내가 한 마디만 하겠는데 나는 그런 말을 한 마디도 한 적이 없고 법에 되어 있는 상태대로 사립학교재단에서 임명을 하지요. 총장 직선 형식만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뽑는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朴範珍 여기는 위원간에 토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음은 金日柱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日柱委員 먼저 李成大 재단이사장께 물겠습니다.

현 이사장이시지요?

○證人 李成大 예.

○金日柱委員 임시이사로 취임하신 지 4년이 다

되어가지지요?

○證人 李成大 예.

○金日柱委員 그 기간 동안에 급여를 받고 있습니까?

○證人 李成大 급여는 받고 있지 않고 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金日柱委員 월 얼마씩 쓰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證人 李成大 처음에 두 달 동안에는 한 달에 70만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 1년 동안은 한 달에 100만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 2년 동안은 150만원 받고 금년 3월부터 200만원 받고 있습니다.

○金日柱委員 차는 학교차를……

○證人 李成大 학교차 쓰나타를 사용하는데 출퇴근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리고 학교에 대한 재단의 1년 전 출금이 얼마나 됩니까?

○證人 李成大 약 15억 정도 됩니다.

○金日柱委員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돈인가요?

○證人 李成大 학교법인이 연금을 한 8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은행에 맡겨 놓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법인에 쓰고 남은 돈을 전출금으로 대학에 보냅니다.

○金日柱委員 법인에는 돈을 어디에 쓰나요?

○證人 李成大 그것은 법인 직원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씁니다.

○金日柱委員 재단 이사들도 수당을 주나요?

○證人 李成大 안 줍니다.

○金日柱委員 상무이사는 있습니까?

○證人 李成大 상무이사는 없습니다.

○金日柱委員 사무국장은 있어요?

○證人 李成大 사무국장 있고 과장 있고 계장 들 있고……

(朴範珍 간사, 咸鍾漢 위원장과 사회교대)

○金日柱委員 하는 사업이 없는데 왜 재단에 그렇게 직원을 많이 두나요?

○證人 李成大 사업은 없지만 작년 같은 때는 이자가 많았잖아요.

○金日柱委員 이자가 많으니까 월급 주기 위해서 직원을 두나요?

○證人 李成大 학교에서는 일체 법인에 돈이 안 나옵니다.

○金日柱委員 법인에 이자 나오는 것이 넉넉하니까 직원을 두나요? 사무국장, 과장 그리고 그 밑에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證人 李成大 법인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대학뿐만 아니라 특수학교까지 합해서 한 9개쯤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직원을 그렇게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런데 이자가 많기 때문에 직원을 많이 둔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 재단이 정상화되어 가면서 동창회하고 구 재단 측에서 정이사체제로 가자고 요구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李成大 그것은 그 사람들의 자유지요. 그것을 제가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金日柱委員 지금 나와 있는 이사들은 임시이사 아닙니까?

○證人 李成大 예.

○金日柱委員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은 본연의 임무에 복귀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證人 李成大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 구 재단이 들어오면 학교가 매우 어렵게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金日柱委員 그것은 현 이사장 입장에서 하는 얘기지요.

그리고 朴鈞焄 총장에게 묻겠습니다.

임시이사 들어와서 총장직을 여태까지 하고 계십니까?

○證人 朴鈞焄 그렇지 않습니다.

○金日柱委員 언제 오셨습니까?

○證人 朴鈞焄 저는 96년2월17일부터 했습니다. 3년 반 되었습니다.

○金日柱委員 4년 다 되어 가잖아요?

○證人 朴鈞焄 갭이 있습니다.

○金日柱委員 총장님께서 들어오셔서 교수임용을 얼마나 했습니다?

○證人 朴鈞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숫자를 안 갖고 있지만 한 100명 됩니다.

○金日柱委員 100명을 새로 임용했어요?

○證人 朴鈞焄 예.

○李在五委員 자료에는 38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證人 朴鈞焄 안 그렇습니다.

○金日柱委員 임시이사 들어온 다음에 교수임용을 얼마나 했냐 이것입니다.

○證人 朴鈞焄 거의 100명 됩니다.

○金日柱委員 총 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證人 朴鈞焄 420명 정도입니다.

○金日柱委員 420명 중에 100명을 새로 임용했다는 것이지요?

○證人 朴鈞焄 예.

○金日柱委員 교수임용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까?

○證人 朴鈞焄 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추천을 해가지고 이사회에서 임명을 합니다.

○金日柱委員 인사위원회가 없습니까?

○證人 朴鈞焄 물론 있지요. 학교에서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쓰나요, 복수추천 받아서 재단이 결정하나요?

○證人 朴鈞焄 지금까지 전부 공개채용입니다.

○金日柱委員 공개가 아니고 한 과에 1명의 교수를 채용할 때 복수로 올라오는 교수들……

○證人 朴鈞焄 그렇습니다. 3명 내지 5명을 추천합니다.

○金日柱委員 과거 구 재단이 임용했던 교수들 탈락시킨 교수는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證人 朴鈞焄 제가 온 뒤로는 없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대로 다 있습니까?

○證人 朴鈞焄 예.

오히려 尹德弘 교수나 李鐘漢 교수 같이 재임용에 탈락된 교수를 다시 임명했습니다.

○金日柱委員 총장님은 어느 학교에 계시다가 오셨습니까?

○證人 朴鈞焄 저는 경희대학 교수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공무원을 했습니다.

○金日柱委員 경희대학에서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

○證人 朴鈞焄 이른바 속되게 말하면 영입해 간다고 해서 왔습니다.

○金日柱委員 지금 교수들이나 학생들, 졸업생들까지 상당한 수가 구 이사를 복귀시켜야 된다, 정이사체제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朴鈞焄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없습니다마는 동창이나 졸업생으로서는 역시 학교의 구심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충정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金日柱委員 총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朴鈞焄 아까 교육부장관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 저희 대학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金日柱委員 지금 내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마세요.

○證人 朴鈞焄 알겠습니다.

분류대학이라고 지금 국정감사를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 구성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金日柱委員 문제가 있던 부분이 다 해결되고 정상화되면, 여러분의 임무는 그 학교에 눌러 앉으라고 임시이사를 보낸 것이 아닙니까.

○證人 朴鈞焄 물론이지요.

○金日柱委員 정상화되면 본래 임무에 복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證人 朴鈞焄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金日柱委員 좋으나, 나쁘냐의 얘기입니다.

○證人 朴鈞焄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안정되어 왔는데 이사가교체 문제가 나와서 그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사가교체에 관해서……

○金日柱委員 알겠습니다.

李成大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구 재단과 현 임시이사들하고 화합해서 학교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證人 李成大 없습니다.

○金日柱委員 내 단독으로 밀고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십니까?

○證人 李成大 저는 현재……

○金日柱委員 간단하게 하세요. 제가 묻는 것이 옳다든가 아니라든가 그렇게만 답변하세요.

○證人 李成大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金日柱委員 구 재단하고 현 재단하고 화합해서 학교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證人 李成大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해본 일이 없습니다.

○金日柱委員 노력해 본 일은 있습니까?

○證人 李成大 없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러면 없는 것이지……

○證人 李成大 왜냐하면 현재는 아직 분위기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金日柱委員 여러분은 일반 기업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과거에 학교에 계셨습니까?

○證人 李成大 예.

○金日柱委員 그러면 학자 출신이십니까?

○證人 李成大 예.

○金日柱委員 그러면 학자다운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대학 재단에 오래 이사로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말 가슴을 열고 사심없이 출발해야 합니다. 아까 보니까 이예숙 증인이 참 좋은 이야기를 하던데 전 교수협의회 회장이 법원에서 무혐의가 되었기 때문에 채용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화합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과거에 상당히 문제삼았던 분들인데 하나가 되겠다는 생각인데 저는 남북문제도 수 백만이 피흘리고도 오늘날 대화가 시작되고 통일을 이룩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아까도 다른 대학 증인의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證人 李成大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제 말 뜻을 오해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니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화합할 정신자세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분위기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하기 싫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여건이,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金日柱委員 그러니까 노력해 보겠다는.....

○證人 李成大 여건만 되면 노력하지요.

○金日柱委員 노력해야 여건이 익어가는 것이지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2월이면 여러분 임기가 끝나시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노력해서 정말 하나가 되겠다 특히 여기 이사님들이 종교인들이 많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證人 李成大 이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두 분 정도입니다.

○金日柱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사랑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하세요.

○證人 李成大 그것은 하나의 이상이지 현실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金日柱委員 가장 중요한 것이 민주교육의 근본은 자율·협동·창조입니다. 창조해내세요.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證人 李成大 좋은 말씀으로 기억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다음 朴範珍 위원 신문하세요.

○朴範珍委員 朴範珍 위원입니다.

이예숙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학은 잘 아시다시피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체가 아닙니다.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교육공동체이고 그래서 운영 주체는 경영능력 못지 않게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학교를 운영하겠다 하면 저는 국민이 납득을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李藝淑 맞습니다.

○朴範珍委員 그런데 앞서 몇몇 위원들께서 이예숙 증인에 대해서 재판결과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아직 3심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원칙은 저도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일단 1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마 공무원 조직 같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일단 직위해제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직 확정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좀 책임을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재판중이기 때문에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李藝淑 예.

○朴範珍委員 그러면 교육부에 대해서 청탁감사를 하기 위해서 교육부 공무원 다섯 사람한테 뇌물을 갖다주었습니다. 누가 갖다주었습니다?

○證人 李藝淑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朴範珍委員 국회의원 보좌관한테도 뇌물 갖다주었어요. 잘 모릅니까?

○證人 李藝淑 모릅니다.

○朴範珍委員 또 고충처리위원장한테도 1억5,000 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었어요. 모릅니까?

○證人 李藝淑 모릅니다.

○朴範珍委員 또 학생들 세 명을 매수해서 청부시위를 시켰어요. 그것도 모릅니까?

○證人 李藝淑 그런 일 없습니다.

○朴範珍委員 1심에서 이 사람들 중 고충처리위원장만 빼고 다 유죄판결 받았어요. 그러면 1심 재판이 다 엉터리 재판이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답변하셔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김춘일 증인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이사체제에 대한 교수들과 학생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證人 金春一 좋습니다.

○朴範珍委員 금년 12월에 총장선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께서는 내년에 임시이사진이 다 개편되어서 새로 들어서는 임시이사진이 총장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학에 새로운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이사진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證人 金春一 그렇습니다. 최소한 2월말까지는 있어 주어야…… 왜냐하면 저희들은 학년도로 나가서 회계연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朴範珍委員 지금 임시이사가 나가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임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사들의 임기가 제한되어 있어서 영구적으로 임시이사들이 근무하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구대의 경우에도 어떤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서 정상체제로 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양심적인 새로운 재단이 운영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공립이나 국립대학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대구대학의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金春一 장기적으로는 피차 충분히 화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지론이지만 모든 교수는 강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만 문제는 일부 우수사립대학을 빼놓고는 합리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 같은 경우 구 재단과 신뢰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협회의를 해보면 39명의 평회원과 13명의 집행위원이 있는데 거의 회의할 때마다 거부가 됩니다. 당장 2, 3년간은 안 된다, 신뢰가 더 쌓이는 것을 확실히 되어야 되겠다 그런 태도입니다.

○朴範珍委員 다음은 박윤혼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장 입장에서 현재 임시이사진에 대해서 학교안팎에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朴鈞焄 잘 하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朴範珍委員 그러면 앞으로 대구대학의 장래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證人 朴鈞焄 참 어려운 질의입니다마는 임시이사체제는 임시이사체제대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대학의 커다란 장기발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시기를 말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언젠가는 화합해서 원래 재단이 복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範珍委員 질의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源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馥委員 이원복입니다.

박윤혼 총장, 이성대 이사장, 고은애 이사께 우선 단문형태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사립학교법이 이런 문제들을 교통정리하기에 충분하게 잘 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그 점부터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證人 朴鈞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李源馥委員 사립학교법이 이런 분류들을 조정하는데 충분하게 잘 된 법이라고 느끼느냐고요?

○證人 朴鈞焄 하나의 방안이라고 느낍니다.

○李源馥委員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잘 되어 있는 법이냐고요?

○證人 朴鈞焄 꼭 제 의견을 말하기 보다 우리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말한다 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이런 것 보다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李源馥委員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 이성대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법체제가 잘 되어 있습니까?

○證人 李成大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대구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잘 된 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李源馥委員 좋습니다. 이에속씨는요?

○證人 李藝淑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李源馥委員 법 체제들이 다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까?

○證人 李藝淑 예.

○李源馥委員 좋습니다. 됐습니다. 이성대 이사장님, 현재 이 학교의 재산 총 규모는 얼마 정도 됩니까?

○證人 李成大 재산 총규모는 지금……

○證人 朴鈞焄 총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재산 총액을 말하기는 어려운데 현재 학교부지만 약 80만평 되고 1년 예산이 1,000억원 정도 됩니까?

니다.

○李源龍委員 학교부지에 대한 것을 시가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證人 朴鈺炆 취득할 때야 그렇지만 지금은 적어도 평당 20만원, 30만원 해서 아마 총 5,000억 정도 될 것입니다.

○李源龍委員 좋습니다. 이예숙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설립자인 할아버지가 이 학교를 처음 설립할 당시에 이 학교에 낸 출연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證人 李藝淑 모릅니다.

○李源龍委員 이예숙 증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어느 날 황당하게 쫓겨난 형태거든요. 그래놓고서는 어쨌든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를 거쳐서 어머니를 거쳐서 오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이런 모양새로 학교를 그만두어서 되겠는가, 이렇게 비참하게 학교를 쫓겨나서 되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억울하게 느끼시지요?

○證人 李藝淑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쫓겨났다고 생각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데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李源龍委員 솔직하게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억울하시지요? 감정적으로 현재 상황들이 대단히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證人 李藝淑 노력하고 있습니다.

○李源龍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우선 고은애씨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답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지요?

○證人 李藝淑 맞습니다.

○李源龍委員 이 학교를 어쨌든 설립자는 자금을 놓고 왔을 텐데 그 뒤로 어머니 쪽이라든가 물려받은 아버지 쪽에서는 학교를 위해서 출연한 것이 있습니까?

○證人 李藝淑 잘 모르겠습니다.

○李源龍委員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학교에서 밀려났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는 다 양도·양수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양도·양수 같은 것 없이 밀려나 있는 상태지요?

○證人 李藝淑 맞습니다.

○李源龍委員 양도·양수가 원래 합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證人 李藝淑 예.

○李源龍委員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한단 말입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하고 가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도 없다 이것이지요. 마음 속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 좀 있지요? 양도·양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조차도 없이 이렇게 당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마음 속에 일말은 있지요?

○證人 李藝淑 예.

○李源龍委員 좋습니다. 양도·양수를 해서 불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 관행상 하고 있는데 양도·양수의 과정을 본인이 거치든 아버지가 거치든 어머니가 거치든 해서 누구한테 물려주어 가고 물려나 있는 상태라면 그렇다면 마음에 다시 학교에 복귀하겠다는 생각을 갖지는 않겠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지요?

○證人 李藝淑 예.

○李源龍委員 지금 고은애씨 쪽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법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일반적 관행에 문제가 있는데 법과 관행 사이에 사회적으로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나도 일반적 관행대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케이스는 아무런 보장장치 없이 물려나 있다 이런 감정이 솔직히 있지요?

○證人 李藝淑 예.

(咸鍾漢 위원장, 金日柱 간사와 사회교대)

○李源龍委員 고은애씨 입장에서 볼 때는 학교라는 거대사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남들이 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우리도 나름대로 반칙도 있고 소소하게 잘못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예를 들어서 축구경기를 하는데 법에는 반칙하지 마라, 핸드링 하지 마라 하는 등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살짝살짝 반칙들을 하지요. 반칙의 범위에 맞게끔 말하자면 심판이 봐주기도 하고 어떤 것은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옐로 카드를 주기도 하고 레드 카드를 내밀기도 하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은애씨나 이쪽에서는 우리도 다른 학교와 같은 일반 관행적인 범위 내에서의 반칙은 솔직히 했지만 우리한테 주어진 징계는 대단히 심하다 이렇게 느끼는 감도 있지요?

○證人 李藝淑 예.

○李源龍委員 좋습니다.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까?

○證人 李藝淑 사회 분위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李源龍委員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눈감아 줄 수 있는 조그마한 반칙행위 조차도, 제가 축구로 비유를 했습니다마는 선수들끼리도 약간 팬티도 잡아 당기고 하거든요. 그런데 딱 찍어 가지고 '너 이런 행위했지?' 하고 사회 전체 분위기가 광풍적으로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證人 李藝淑 예.

○李源龍委員 좋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위치라든가 승계받는 상속자의 위치에서는 원래 이것이 사회적으로 상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證人 李藝淑 예, 맞습니다.

○李源龍委員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설립자라면 모르지만 설립자가 아닌 상태에서는 학교의 모든 재산권이나 운영권에 대해서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또는 사회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도 이해하십니까?

○證人 李藝淑 이해합니다.

○李源龍委員 그 점에 대해서 마음의 갈등이 있습니까?

○證人 李藝淑 없습니다.

○李源龍委員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부분까지는 상속적인 위치에서 어느 것은 내가 해야 되겠지만 또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이런 것은 인식하고 계시지요?

○證人 李藝淑 맞습니다.

○李源龍委員 좋습니다.

이것은 高恩愛씨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근본적으로 李藝淑씨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李藝淑씨로서는 참 어려운 얘기겠습니다마는 말하자면 경영상속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를 둘러싼 부분에서의 사회적 흑막으로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證人 李藝淑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李源龍委員 다음은 교수협의회 金春一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 학교의 재산가치는 한 50억쯤되고 현재 임시 이사진 체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임시 이사진들이 학교운영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전횡해 가면서 오랫동안 이것을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金春一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학교에 출연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은 없다고 봅니다.

○李源龍委員 이 학교가 이렇게 형성될 때까지에는 재단측의 노력만이 아닌 교수들의 노력, 학생들의 노력 이 부분도 대단히 크게 가치가 부여되어 있고 이 부분에서 확대 재생산되는 사회적 잉여가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 인정하십니까?

○證人 金春一 예, 맞습니다.

○李源龍委員 그 점의 몫이 어느 정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金春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대학출신입니다.

○李源龍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최초 설립자와 사회적 승계권자들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정통성 이것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證人 金春一 일면 그렇습니다.

○李源龍委員 이것의 몫이 서로 불분명한 제도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들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金春一 그렇습니다.

○李源龍委員 그것이 깨끗하게 정리되면 즉 설립자의 권한은 어디까지이고 승계권자의 도덕적인 권한은 어디까지이고 학생과 교수의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권력분리의 제도가 성립된다면 많은 부분에서 정리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金春一 예.

○李源龍委員 됐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日柱 盧武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委員 李成大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학사운영이 별 지장없이 잘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證人 李成大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런데 왜 대구대학교 문제가 국정 감사의 의제로 채택되고 증인들이 나왔을 것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李成大 저는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盧武鉉委員 짐작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證人 李成大 짐작하기도 힘듭니다.

○盧武鉉委員 그러면 高恩愛 전 이사님을 대신해서 나오신 분께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왜 대구대학 문제가 의제로 채택되고 증인이 여기에 소환됐다고 생각합니까?

○證人 李藝淑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러면 전 재단쪽에서 오신 분 누구라도 왜 이것이 의제로 채택됐는지 왜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나오셨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해주십시오.

○證人 金春一 교협회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盧武鉉委員 교협회장은 지금 현재의 관선이사 체제를 지지하시는 분입니까?

○證人 金春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 국감이 총체적으로 점검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盧武鉉委員 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證人 金春一 총체적인 점검에 저희들도 점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자세히 안 밝혀지면 좀 의구심이 있지요.

○盧武鉉委員 지금 전 재단쪽에서 나오신 분이 黃鍾東씨입니까?

○證人 黃鍾東 예.

○盧武鉉委員 지금의 관선이사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까?

○證人 黃鍾東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盧武鉉委員 도대체 알 수가 없네. 그러면 지금 임시이사 체제를 해체해 버리고 구재단 관련 인사들을 이사로 다시 선임해 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혹시 여기에 증인으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응답없음)

그러면 여러 증인에게 물겠습니다.

임시이사 체제가 이대로 가면 별문제가 없는데 국회에서 바보같은 국회의원들이 올 연말로 임기를 잘라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좀 생길 소지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證人 李成大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런데 조직의 일반원칙으로 보면 특수한 경우에는 한자리에 뜻있는 사람이 오래 오래 갈수록 좋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임기를 정해 가지고 적당하게 하고, 다시 재신임받고 재신임받고도 너무 길어져서 어떤 사람의, 한 개인의 인격적 그림자나 개성이 한 조직에 너무 깊게 뿌리를 내리면 곤란하겠다 싶으면 임기를 제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제한하고 국회의원이야 자기가 열번을 하든 스무

번을 하든 임명권도 아무 것도 없고 하니까 그로 인해서 나라에 무슨 파벌조직이 뿌리를 내리거나 무슨 독재적 권력이 구축되지 않지만,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너무 오래 해먹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두번만 하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시이사도 소위 관선이사도 가서 10년, 20년씩 되면 말하자면 독재적 권력이 생길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證人 李成大 그렇지요.

○盧武鉉委員 그래서 2년씩, 2년씩 자르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기따라 다르다…… 물론 보기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방법이 있는 것은 지금까지 훌륭하신 분들이 관선이사 체제를 잘 끌고 오셨으니 이제 임기가 끝났을 때 지금의 학교 잘 돌아가는 운영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만한 뜻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다음 이사로 선임을 해놓고 교육부에다가 승인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李鐘漢 증인께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證人 李鐘漢 없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 증인석에 나온 것은 지금 교육위원보다는 오히려 아까 몇 번 나왔던 대구대학의……

○盧武鉉委員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안본다 하는 것부터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문제가 있습니까?

○證人 李鐘漢 지금 당장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현재……

○盧武鉉委員 없다고 보면 이유를 별로 설명하실 것도 없지 않습니까?

○證人 李鐘漢 아닙니다.

왜냐 하면 자꾸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盧武鉉委員 다른 기회에 하십시오. 제 시간 뺏지 말고…… 제 생각은 문제가 없으면 그만이지요.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시면 될텐데 그 다음에 교육부에 그것을 신청을 했는데 승인을 안해 준다든지……

○證人 李鐘漢 잠깐만요. 지금 저한테 문제있다 없다 한마디 더 확인하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러면 이번에 임시이사가 임기가 만료되니까 이사회를 열어 다음 이사를 뽑아서 임기끝나기 전에 교육부에다가 승인신청을 한다

말씀입니다.....

○**證人 李鐘漢** 아, 그 부분 제가 바꾸어서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된 것처럼 저희 학교의 총장 선거가 눈 앞에 있고 또 저희 학교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말에 이사가 바뀌게 되면 과거 저희들의 경험상 총장 교체와 이사 교체가 거의 비슷하게 올때 굉장히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꼭 여기에 이야기된 것처럼 현재 임시 이사 체제에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교의 안정을 기한 다음에 이사진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盧武鉉委員** 그것은 대구대학교 사정이고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소 시기가 겹쳐서 혼란스러운 것, 그것 다 피해 가지고 법 만들어 줄 수 있나요. 대구대학교 총장 임기가 다 됐으니까 그것 피해서 법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잘되는 대학을 승인 안해 주고 엉뚱한 사람 또 내려 보내고 하면 그것은 또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하고 학교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양보를 하십시오.

나는 이것이 왜 여기에 의제가 돼서 올라왔는지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네요. 구재단도 이사로 복귀하고 싶은 생각없다 그러면 이것이 채택된 이유가 있다면 국회에서 법을 잘못 만들어 가지고 임기종료되는 그것이 기분 나빠서 그냥 문제를 일으키고 채택해 달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치겠습니다.

○**證人 李鐘漢**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실제로 임시이사 구성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盧武鉉委員** 제 시간 끝났습니다. 그만 합시다. 더 구체적인 문제와 일반 시스템의 문제는 다르게 봐야지요.

○**委員長代理 金日柱** 다음 安相洙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相洙委員** 安相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盧武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중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내용도 조금씩 중복이 되기는 하는데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물어보

겠습니다.

金春一 증인, 93년 학내분규 발생 원인의 분석이 조금 엇갈립니다. 구재단측에서는 총장 직선문제로 인한 갈등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리고 교수협의회측에서는 구재단 이사회의 전횡과 비리문제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어느 쪽입니까?

○**證人 金春一** 더 직접적인 것은 당시 신상준 총장을 구재단에서 지명을 했는데 그 분이 일을 망가뜨린 것 같습니다.

○**安相洙委員** 尹德弘 교수가 총장으로 승인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證人 金春一** 뚜렷한 이유를 몰랐고 나중에 신문보고 알았습니다.

무슨 목적감사인가요 그렇게 해서 결격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相洙委員** 지난 번에 사립학교법 통과가 됐을 때 5敵, 7敵이라는 표현을 쓰셨지요?

○**證人 金春一** 그것이 전국 사립대학 교수협의회가 있는데요 외국어대학이 회장대학이고 그 당시에 제가 참여는 하지 않고 담당 간사인가 부의장인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막상 토론을 하니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의제기가 됐습니다.

국회의원이 적이라면서 결국은 국민이 적인데 이 표현을 써도 좋으나 그랬을 때 거기에서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 이름 만큼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다 당분간 쓰자 이렇게 됐었습니다.

○**安相洙委員** 앞으로 바꾸자고 주장할 용의가 있습니까?

○**證人 金春一** 지금은 그때의 감정이 많이 누그러졌지요.

○**安相洙委員** 교수님들이 감정으로 하면 됩니까? 냉철한 이성과.....

○**證人 金春一** 처음에는 대단히 감정적으로.....

○**安相洙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이 먼저이지요. 그말 수용하시지요?

○**證人 金春一** 예, 그렇습니다.

○**安相洙委員** 임시이사를 2년으로 한 것이 개악이라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證人 金春一** 오전에 인텐시브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지요.

○**安相洙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은 李成大 이사장님께 물겠습니다.

현재 구 재단측에서는 '임시이사들이 정이사가 되어서 학교를 장악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가 있

습니다.

○證人 李成大 그것은 전혀 근거없는 소리입니다.

○安相洙委員 지금 신임 이사진에서는 구 재단측의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하고 계신데 이사장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짚어보면 '토지구입 과정에서 고가로 구입을 했다. 그로 인해서 다른 거래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 그리고 '학교 진입로를 바꾸어서 거기에서 무슨 이권을 취한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이 있는데 간단하게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李成大 토지를 비싸게 샀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시 이사진이 두 번 들어왔습니다.

1차 들어왔을 때 그때 토지구입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학교 통행로 문제는, 학교 앞의 도로건설 문제는 원래는 그것이 2차선 도로였는데 학생 통학이 불편하고 우리가 길을 어차피 넓혀야 하기 때문에 4차선 도로를 하자고 하는데 학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경산시에서 도로를 건설해주면 우리가 도로에 들어가는 땅 일부를 기부해주고……

○安相洙委員 그런 일이 없다?

○證人 李成大 예, 그런 일이 없습니다.

○安相洙委員 실례하지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證人 李成大 72세입니다.

○安相洙委員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70이면 從心所欲不踰矩가 됩니까? 사회에서도 교수다 이사장이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어른입니다.

지금까지 임시이기는 하지만 이사장으로서 아직도 갈등이 소재가 되어서, 아까 이유를 모른다고 그러는 분도 계시기는 했습니다마는 국감에까지 한 학교가 올라오도록 한 데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동안에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다른 욕심이 있었거나 아니면 직무유기 정도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변명해 보시지요.

○證人 李成大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욕심이 있거나 직무유기를 했거나 그런 것은 현재 생각나지 않고 왜 여기에 불러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安相洙委員 그러면 여기 국회의원이거나 국회에는 명칭한 사람들만 앉아 있다 그런 얘기밖에 안 되지요.

우선 자기자신을 진솔하게 말씀하실 때 해결책도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장관님도 계시고 대구대학이나 우리 사학을 걱정하는 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솔직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李成大 저한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사장으로서 4년 동안 어떠한 결함이나 부정이나 비리 이런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리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을 했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安相洙委員 저도 시간이 짧으니까 高恩愛 증인을 대신해서 나온 李藝淑 증인에게 물겠습니다.

88년부터 임시이사가 파견된 93년까지 증인의 어머니와 이세준 이사 등에 의해서 파행적인 이사회가 운영되고 학사 진행, 불법과 비리로 학생들의 시위와 수업결손이 끊이지 않았고 여기에 교육부 중재안도 수차례 거부되었기 때문에 임시이사가 파견된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 분규 원인 제공자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證人 李藝淑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88년도에 아버지께서 쓰러지셔서 어머니와 저희 가족들은 미국에 가서 아버님을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사행정을 그 당시 계시던 이사장님과 총장님한테 일임하시고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安相洙委員 아까 도덕적인 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물으셨으니까, 학교를 되찾는 것만이 학교를 제대로 정상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구대학에 다시 들어가서 운영권을 갖는 것이 학교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證人 李藝淑 아닙니다.

○安相洙委員 증인 입장에서 지금 좋은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證人 李藝淑 그동안 임시이사가 와 가지고 일단 학교가 평정을 찾았고 그동안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잘 화합해서 학교가 더욱 발전적으로 되기를 희망합니다.

○安相洙委員 朴鈞旻 증인에게 물겠습니다.

증인은 지금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대학 최고책임자인 총장이시고 구 재단이나 현 이사 체제를 경험하신 것이지요?

○證人 朴鈞旻 예.

(金日柱 간사, 咸鍾漢 위원장과 사회교대)

○安相洙委員 지금 임시이사 체제와 구 체제 중에서 굳이 택한다면 어느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朴鈞焄 저는 임시이사 체제 하에서 임명된 총장입니다.

○安相洙委員 구 재단과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證人 朴鈞焄 법적으로는 관계가 없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대학은 설립자가 명백하고 설립이념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모두 화합해서 원 재단이 복귀하고 공익적인 사람으로 이사진이 구성되어서 운영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安相洙委員 마지막으로 李成大 이사장에게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지……

○證人 李成大 먼 장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못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李藝淑양이 와 있고 어머니도 계시지만 큰 아들이 저에게 여러 번 놀러 왔습니다.

세 분들을 보면 가장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큰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장차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현재 여러 가지 분위기로 보아서 조금 어렵다는 그런 뜻이지 그 아들이 장차 이 학교를 건전한 생각을 해가지고 물려받는다든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安相洙委員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이상으로 대구대학교 관련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證人 朴鈞焄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아까 李壽仁 위원님께서 朴鈞焄 총장 부정부패 이런 용어를 쓰셨는데 저 자신도 과거에 국무위원을 지낸 사람이고 현재 대학의 총장인데 말하자면 길겠습니까마는 그런 용어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제 명예를 위해서, 나중에 부정부패가 드러나면 또 모르겠습니까마는 삭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咸鍾漢 李壽仁 위원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在五委員 지금 구 재단측에서 나온 李藝淑 증인이나 현재 임시이사측 증인들이 여기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매우 합리적으로 이야기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데 이것이 전부 대구대학 하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증인들이 만들어 준 것이예요. 구 재단측과 임시이사측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자료를 바쁜 우리에게 다 읽어보도록 만들어 주어놓고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자료 낼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많은 자료 전부 보내놓고 여기에 와서 '문제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온 것이지요?

○證人 金春一 교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대구대학 관련 여덟 분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대기실에 나가 계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委員長 咸鍾漢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법인 경문대학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일곱 분을 성명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姜眞哲 교수협의회 회원입니다.

權五福 부학장입니다.

金相浩 학장입니다.

沈奎燮 전 이사장입니다.

安會鎬 법인사무국장입니다.

李相集 이사장입니다.

李龍九 교수협의회 회장입니다.

(증인인사)

다음은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許男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許男委員 金許男 위원입니다.

李相集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證人 李相集 예, 접니다.

○金許男委員 증인은 全載旭씨와 몇 년간 같이 일했습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證人 李相集 한 20년 같이 일했습니다.

○金許男委員 동우전문대학 재직시에 분신학생이 있었는데 그 치료비 등에 대해서 신문과 방송 등에서 문제개선을 약속한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 놓고 그 후에 이행이 안 되었다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證人 李相集 이행이 되었습니다.

○金許男委員 다른 대학으로 갔다는데요?

○證人 李相集 그 후에 제가 경성전문대학으로 갔습니다. 그 후에 金相浩 학장님이 가셔서 계속 치료를 해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許男委員 그러니까 문제는 본인이 다른 데로 갈 줄 알면서도 약속을 했다는 것은 불이행할 수 있는 여건에서 임시방편으로 답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외부 사람들은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들이 있어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교육부 감사결과에 교비횡령 및 유용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證人 李相集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金許男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 沈奎燮 전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全載旭과 매매할 당시에 150억을 서로 계약했는데 100억은 아마 학교의 부채를 갚기로 하고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부채를 갚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 부도가 났다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沈奎燮 예, 맞습니다.

○金許男委員 갚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證人 沈奎燮 잘은 모르나 제가 학교운영권을 넘겨 주면서 통념상 개인적으로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받은 것은 없고 학교와 학교에 있는 부채를 통괄적으로 넘기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金許男委員 다음에 증인은 경문대학교를 남한 데 인계해줄 때까지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證人 沈奎燮 정확히는 모르나 한 300여억원 투자했습니다.

○金許男委員 그리고 전재욱씨가 경문대학에 얼마나 투자했다고 생각합니까?

○證人 沈奎燮 그 후로는 1년여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金許男委員 법인측에서 용도변경해서 학교운영

비 74억원 정도를 다른 데 유용해서 썼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압니까?

○證人 沈奎燮 제가 운영할 때 말입니까, 아니면 인수·인계해준 후에 말입니까?

○金許男委員 그 후요.

○證人 沈奎燮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金許男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중호 법인 사무국장이 누구니까?

○證人 安會鎬 접니다.

○金許男委員 자진출두하게 된 것은 전재욱씨를 해명해주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까?

○證人 安會鎬 그렇습니다.

○金許男委員 얼마나 전재욱씨하고 일을 같이 해 보았습니까?

○證人 安會鎬 한 10여년……

○金許男委員 그러면 전재욱씨가 학교에 얼마나 투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安會鎬 여기 경문대로 온 지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金許男委員 전재욱씨를 변명하려고 한다면 그 분과 관계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재산관계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른다니 빨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협의회장이 누구니까?

○證人 李龍九 접니다.

○金許男委員 교수협의회에서는 전재욱씨가 일전도 투자 안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李龍九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金許男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투자를 많이 안 했다는 것으로 교수협의회에서는 전재욱씨에 대해서 시비한 것 같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證人 李龍九 투자의 부분이 아니고 학교를 위한 교육투자를 한 부분이 없다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

○金許男委員 재단에 투자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투자가 재단투자하고 교육투자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證人 李龍九 그 내용은 지금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라서는 알고 있습니다.

○金許男委員 어떻게 되었습니까?

○證人 李龍九 일부는 재단에 출연하고 교비로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許男委員 그러면 일부 하기는 했네요.

다음에 재단 이사진이 퇴진해야만 모든 학교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證人 李龍九 그렇습니다.

○金許男委員 대학측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가지고 학교를 정상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證人 李龍九 지난 7월15일날 교수협의회를 결성한 이래 7월18일 전재욱 전 학장이 저회하고 대화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재욱 학장은 저회 학교에 한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金許男委員 왜 이렇가 하면 서로 싸워보았자 손해입니다. 합의 보아서 학교를 정상화시켜서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특히 교수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학생하고 재단 사이에서 학교를 정상화해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교수들이 학생들을 선동해 가지고 재단하고 싸우고 학교총장하고 싸우고 이래서 교수를 완전히 싸움꾼 비슷하게 남들이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대학 교수로서는 참 불명예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예를 가지고 교수님들이 옛날 말로 하면 선비거든요. 선비들 사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일방적 통행 안 하고 정상적으로 걸어가서 화합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이 민족을 발전시키자는 것이 목적인데 이것을 고집을 써가지고 와와 해서 싸움 붙이듯이 된다고 하면 선비사상에 위배되지 않겠나. 그래서 교수님들이 다시 생각해 가지고 잘 합의해 가지고 하여튼 재단하고 합의보고 총장하고도 합의보고 모든 것을 합의보아서 학교가 정상 운영되기를 부탁하면서 제 말씀은 끝났습니다.

○證人 李龍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다음 李源馥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馥委員 이원복 위원입니다.

증인들께서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규섭 증인께 먼저 묻겠습니다.

심규섭 증인은 이 학교의 최초의 설립자였습니까?

○證人 沈奎燮 저회 아버지께서 설립해 주셨습니다.

○李源馥委員 아버님께서 설립하실 적에 출연금은 전체 얼마였습니까?

○證人 沈奎燮 정확하게는 모르고 200여억원 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源馥委員 사실상 학교를 전재욱씨한테 양도·양수했지요?

○證人 沈奎燮 예, 운영권을 넘겨주었습니다.

○李源馥委員 양도·양수했지요?

○證人 沈奎燮 예.

○李源馥委員 양도·양수할 당시 그 학교의 실질적인 재산평가는 얼마 정도였습니까?

○證人 沈奎燮 실질적인 평가없이 학교와 법인……

○李源馥委員 학교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매년도 교육 관계기관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보고할 당시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證人 沈奎燮 제가 실무자가 아니라서 기억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李源馥委員 좋습니다. 양도·양수를 했다고 하면 사실상 심규섭씨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서 이것이 재산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데 양도·양수를 전재욱씨한테 해서 받은 재산의 총규모는 얼마였습니까? 받는 쪽에서는 얼마 정도를 받은 것입니까?

○證人 沈奎燮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李源馥委員 아니, 어느 정도인지만 얘기해 주세요.

○證人 沈奎燮 그 이후로 이행이 안 된 것이 있고 해서 지금 정확한 계산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李源馥委員 이행이 안 된 것은 얼마고 그러니까 원래 계약할 당시에 얼마를 전재욱씨한테 넘겨받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證人 沈奎燮 제가 갑작스럽게 무리하게 욕심을 내서 학교 운영을 하다가 IMF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넘기고 운영권을 주겠다는 의도적인 계획이나 준비없이 제가 어려운 상황을 맞아서 갑작스럽게 학교를 위해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넘기다보니까 실질적인 준비 같은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실사 같은 것도 못한 상태에서 학교와 학교의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李源馥委員 증인께서는 자꾸 얘기 안 하는데 그렇게 하면 위증으로 제가 고발해 버립니다. 증인, 받은 금액이 있는데 얼마를 받았는지 왜 이야기를 안 합니까? 얼마 받았고 얼마 못 받았고 계약 당시에 얼마로 하기로 했다 왜 이야기 안 합니까? 안 하면 제가 고발합니다.

○證人 沈奎燮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부채 해결을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인수팀에서 인수자가 직접 했기 때문에……

○李源馥委員 100여억원의 부채 변제와 현금 30억원을 지급조건으로 했던 것은 사실입니까?

○證人 沈奎燮 예.

○李源馥委員 그러면 그 금액은 본인이 받았든 못 받았든 그것은 나중문제라고 치고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다는 것과 진배없게 되어 버리지요. 이 학교 운영 재산권에 대해서 아버지로부터 법적으로 유산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금액으로는 못 받지요?

○證人 沈奎燮 예.

○李源馥委員 결론적으로 증인은 이 학교 운영을 포기하고 나가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돈을 받게 되는 양도·양수형태로 계약을 했지요?

○證人 沈奎燮 예.

○李源馥委員 그것이 불법인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證人 沈奎燮 예.

○李源馥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증인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적으로 대학사회 다른 데에서도 많이 하지요?

○證人 沈奎燮 예.

○李源馥委員 좋습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증인만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관행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증인도 그 관행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證人 沈奎燮 예.

○李源馥委員 전재욱씨 부분은 안중호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안중호 증인은 전재욱씨를 대신해서 나왔다고 했는데 전재욱씨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證人 安會鎬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李源馥委員 그런데 어떻게 대신 나왔습니까?

○證人 安會鎬 지금 외국에서 와병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李源馥委員 본인이 동의했습니까?

○證人 安會鎬 예. 동의했습니다.

○李源馥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전재욱씨는 그 금액을 넘겨주고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다 주든 못 주든 간에 하여튼 무엇인가를 주고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證人 安會鎬 약정내용은 저는 모르고 하여튼

그런 관행에 의해서 이루어졌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합니다.

○李源馥委員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끼어 가지고 이렇게 국회를 능멸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증인출석 안한 사람들은 오늘 그만한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당시에 전재욱과 심규섭 사이의 양도·양수관계에 교육부의 대학담당국장이던 김용현 국장이 그 당시에居中調停했던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教育部次官 李元雨 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薛勳委員 그것은 나중에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李源馥委員 교육부 아까도 했습니다. 남이 이야기할 때 자꾸 끼지 마세요.

○委員長 咸鍾漢 李源馥 위원, 그것을 교육부 할 때 별도로 하세요.

○薛勳委員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李源馥委員 제 시간 내에서 쓰는 것이에요. 제 시간 내에서 제가 필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묻는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중간에 자꾸 끼지 마세요.

○委員長 咸鍾漢 李源馥 위원, 그것은 우리가……

○李源馥委員 교육부 할 때 총체적으로 할 때 또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교육부에 한 두 가지 물을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 사안을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한 두가지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자꾸 꺼요?

○薛勳委員 위원장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李源馥委員 얘기 끝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 얻어서 하세요. 꼭 동료위원 얘기하는데 중간에 끼어서 말이야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처럼 말이야……

○薛勳委員 이의가 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李源馥委員 내 시간안에서 쓰는 것이면 얘기하지 마세요.

○薛勳委員 그렇게 안하기로 했다고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李源馥委員 아까도 盧武鉉 위원은 자기 시간 범위내에서 계속 교육부에 대해서만 했어요.

○委員長 咸鍾漢 李源馥 위원, 계속 하세요.

○李源龍委員 다시 하겠습니까.

沈奎燮씨와 全載旭씨 사이의 매매를 실질적으로 당시 교육부의 김용현 국장이 그 행위를 가운데에서 거중조정을 해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教育部次官 李元雨 그런 거중조정을 했다고 하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李源龍委員 그것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들을 사실상 이것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교육부 담당국장 조차도 거중조정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대학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경원대 사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법적인 문제가 대단히 애매하다는 것이 여기에서 노출되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 죄가 있다 죄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법적 구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법으로는 불법으로 해놓고 실지 관행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그것을 교육부 담당국장이 가서 거중조정해 가면서 한사람 빠져 나가고 한사람 들어오게끔 하는 이런 행위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이 법적 공백이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安會鎬 증인, 全載旭씨는 학교를 몇 개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證人 安會鎬 지금 4년제 하나하고 전문대학 셋, 고등학교 둘 그렇습니다.

○李源龍委員 그 많은 학교를 설립투자했다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민훈장감들이고 모든 국민들의 칭송을 받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회인들이 역으로 그 많은 학교들을 운영하면 뭔가 이상하게 도둑놈 취급한다 그 말입니다.

당사자가 아니라 좀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證人 安會鎬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분이 청년시절부터 사업을 해왔고 학교를 세울 때마다 회사를 양도하면서 학교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회사해서 학교를 설립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학교를 그렇게 많이 하니까 영똥한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李源龍委員 그러니까 어느 특정인의 학교가 갑자기 증식되면 사회에서는 공익재산이 늘어난 것

으로 보지 않고 그 학교 운영권자 개인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본다 이것이지요?

○證人 安會鎬 예.

○李源龍委員 그런데 실지 이 사람을 톡 찍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보는 분위기에 대해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다음 李龍九 교수협의회장께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이버 종교처럼 학교를 장삿속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을 학교사회에서도 사이버 교주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잘못되어 가는 사학운영권자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부정비리의 유형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李龍九 첫째로는 교비를 유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 부터 부당한 잡부금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대학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것을 개인용으로 착복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교수로부터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땅투기를 해서 재산을 증식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李源龍委員 그 많은 여러 가지 유형 가운데 全載旭씨가 최근 계속 행하고 있는 비리의 유형, 수단 이런 것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줄 수 있겠습니까?

○證人 李龍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李源龍委員 그리고 대표적인 것 한 두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證人 李龍九 우선은 교육부 감사에서는 유용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횡령으로 보는 교비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로부터 다른 대학에서 받지 않는 약 25만원 이상의 비용을 받아서 제대로 쓰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투자를 전혀 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실험실습 등 교육환경을 전혀 개선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수들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한 사실이 있습니다.

○李源龍委員 좋습니다.

지금 학교사회는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가지고도 상당 부분 운영될 수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證人 李龍九 그렇습니다.

○李源龍委員 이 학교의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證人 李龍九 70여억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李源龍委員 경문대학의 경우 교육부 자료에 보면 예산액은 141억이고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3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96%가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학교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말하자면 기업으로 얘기하자면 소액 주주들은 학생들이입니다. 이해합니까?

○證人 李龍九 예.

○李源龍委員 이 학교에 있어서의 경영권의 96%는 학생들에게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학교가 형성한 재산의 사회적 부가가치의 대부분은 동문들이 낸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證人 李龍九 그렇습니다.

○李源龍委員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학교가 운영되어 감에 있어서 설립자들과 학교 이사회의 권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권한에 못지 않게 학생들의 감사권 말하자면 어떤 힘의 견제권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만 있다면 견제할 수 있겠지요?

○證人 李龍九 그렇습니다.

○李源龍委員 그런 제도적 장치를 법으로 개정해야 된다고 보지요?

○證人 李龍九 그렇습니다.

○李源龍委員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樂均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樂均委員 먼저 沈奎燮 전 이사장께 98년9월 당시 경문대학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증인은 IMF 여파로 98년초부터 학교의 재정 사정이 나빠지자 교육부가 경문대에 책정한 실험실비 기자재 구입비와 전문대학 특성화 자금 6억 3,400만원을 받기 위해서 교육부 김모 국장에게 9월초에 1,000만원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證人 沈奎燮 모든 것이 소인의 부족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申樂均委員 이에 따라서 실험실비 기자재 구입비가 9월초에 입금됐지만 증인은 결국 재정을 악화를 견디지 못해서 경영권을 오늘 불참한 全載旭증인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당시 증인과 全載旭씨가 맺은 양수·양도 계약서 내용을 아시겠습니까마는 그것이 내용대로

다 지켜졌습니까?

○證人 沈奎燮 일부는 안지켜졌습니다.

○申樂均委員 어떤 것이 안지켜진 것입니까?

○證人 沈奎燮 제가 학교를 인수해 주고 어떤 정리기간을 갖지 않고 바로 그 다음 날로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년여 시간이 지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상대방에서 들어오는 얘기에 의하면 채무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을 간접적으로 제가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申樂均委員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한 것이 안지켜졌는데 당사자가 구체적인 답을 할 수가 없습니까?

○證人 沈奎燮 그것이 개인적인 빚이 아니고 학교의 약속어음이었기 때문에……

○申樂均委員 액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證人 沈奎燮 지금 31억5,000이 부도가 나 있고 35억이 또 부도가 나 있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리고 교육부가 지난 7월 경문대학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98년 2학기 등록금 38억2,000만원중에 20억2,000만원을 학교비회계에 편입시키지 않았고 98년 1학기에 학교비용 38억4,000만원 용도도 알 수 없는 지출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렇게 처리가 불확실한 용도불명한 처리를 아직도 사용처를 밝히기 어렵습니까?

○證人 沈奎燮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사용한 것은 추호도 없고 그때 건축비가 막대하게 많이 들어 갔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 미숙으로 해서 회계장부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 그것이 하여튼 의혹의 소지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申樂均委員 그 다음에 그런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의혹을 낳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교수채용 문제라든가 용도의 지출문제가 있는데 그 점은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지난 7월30일 방영된 SBS 8시 뉴스 현장출동 인터뷰에서 '내가 대학을 팔아 먹었다' 이렇게 밝힌 것 지금도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證人 沈奎燮 제가 학교를 다음 운영권자에게 저보다 잘할 수 있는 것때문에……

○申樂均委員 그 말 그대로를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證人 沈奎燮 예.

○申樂均委員 다음은 金相浩 학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은 99년9월 全載旭 학장이 남양주시의 북서울대학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全載旭 증인이 설립한 경북대학의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 맞지요?

○證人 金相浩 그렇습니다.

○申樂均委員 교육부 감사 결과 全 前학장은 부지 6만여평 매입 비용과 교사건축비 및 수익용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등 모두 170억 가량을 경북대학 교육비에서 유용했는데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證人 沈奎燮 그 집행은 법인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학교의 長인 저는 참여하지 않아서 내용을 실제로 잘 모릅니다.

○申樂均委員 그렇게 유용한 사실에 대해서 들어본 일도 없습니까?

○證人 沈奎燮 그 이야기는 교육부 감사 후에 들었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런데도 학교 책임자로서 사실 확인해 볼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證人 沈奎燮 그 당시에 감사가 끝나면서 제가 경문대학 학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또 거기는 새로운 학장이 부임을 해서……

○申樂均委員 그러면 책임을 안느껴서 관심을 안두셨다는 뜻입니까?

○證人 沈奎燮 아닙니다. 책임을 느끼고 안 느끼고를 떠나서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申樂均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李龍九 교수협의회장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경문대는 조교없이 학생조교를 두고 있고 교수들이 직접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證人 李龍九 사실입니다.

○申樂均委員 그리고 실험·실습비 지급 실태 또 도서관 현안같은 것을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證人 李龍九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험·실습비는 어떤 것이 법정 액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재단의 편을 들어서 좀 안됐지만 沈재단이 있을 때와 현 새로운 재단이 들어 와서의 수준은 대체적으로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나 아니면 일부과는 개인당 실험실습비가 2,000원에서 7,000원 사이 밖에는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 전에는 5만원에서 7만원 사이가 지불이 됐다고 듣고 있습니다. 상당히 떨어져서

거의 실습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문제는 장서 구입비가 이번에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책한권을 사지 않았다고 말을 해도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서관은 SBS뉴스에 나와 있는 대로 장서는 1층에 있고 열람실은 다른 동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다음은 權五福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경문대가 99년5월19일 경문대학 교비로 경기도 평택시 모독동 송탄공단내에 위치한 한주전자라는 회사를 34억원에 매입한 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證人 權五福 알고 있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런데 학교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위치 변경, 이런 변경 계획같은 것을 교육부에 제출하지 않았고 사후에도 위치 변경 신청을 교육부에 했지만 반려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證人 權五福 저희가 공업계열이 10개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하다 보니까 실제 교육부내의 법적인 절차에는 나중에 교육부 감사자료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입하자마자 교육부에 교육용 자산으로 학교법인 경문대학으로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申樂均委員 99년도 신규 교수 채용과 관련하여 자격 미달자를 채용해서 교육부에서 경고받은 것은 사실로 인정합니까?

○證人 權五福 98년도 전 재단에서 임용한 많은 교수님들 22명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申樂均委員 교육부의 경고를 받았지요?

○證人 權五福 저희와는 문제가 다릅니다. 전 재단문제입니다.

○申樂均委員 서류위조한 것도 나오는데 그것제가 설명 안 해도 무엇을 뜻하는지 아실 수 있지요?

LA 왕복 비행기티켓 구입 복사해서 제출해서 문제 생긴 것은 인정하시지요?

○證人 權五福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수협의회에서 일반 언론 내지 자료에 얼마의 돈을 횡령했다고 오보하고 있습니다. 횡령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1월8일에서 9일 LA에서 열리는 대회에 저희들이 특성화를 위해서 이미 시행한 것인데 일부 계획이, 우리 학생이 겨울에 갈 수가 없어서 현지에서 학생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료에 계획을 넣었습니다.

○申樂均委員 됐습니다.

李龍九 증인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경문대 사태가 沈奎燮 전 이사장의 사태 이후 촉발되었다는 사실을 들어서 이 분규의 배후에 沈 전 이사장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이 교수협의회의 입장이신지요.

○證人 李龍九 전혀 아닙니다.

○申樂均委員 다음은 金相浩 학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국감을 앞두고 국회의원에게 보낸 호소문에 따르면 沈奎燮 전 이사장이 사주한 일부 극렬 시위교수의 명분없는 시위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재단측 비리가 교육부 감사결과 적지 않게 드러나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경문대 사태가 여전히 沈奎燮 증인의 사주라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金相浩 제가 생각할 때 7월15일에 취임해서 그동안의 경과를 지켜볼 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申樂均委員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다음은 金日柱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日柱委員 金日柱입니다.

먼저 金相浩 학장님께 묻겠습니다.

金相浩 증인은 全載旭 전 이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證人 金相浩 예, 신뢰하고 있습니다.

○金日柱委員 이 분은 학교를 운영할 만한 교육 철학과 사상이 뚜렷한 사람입니까?

○證人 金相浩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日柱委員 과거에 무엇을 했던 사람입니까?

○證人 金相浩 과거 청년시절에 실업인이었습니다.

○金日柱委員 지금 현재는.....

○證人 金相浩 지금 현재는 모든 공직 이사직 총장직을 내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金日柱委員 본인이 사업해서 학교에 투자할 만한 재력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證人 金相浩 예, 그 전에는 그랬습니다.

○金日柱委員 지금은요.

○證人 金相浩 지금 현재는 떠났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리고 權五福 부학장께 묻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면 증인은 全載旭 이사를 대리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학교를 뒷받침할 만한 재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證人 權五福 재력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리고 경문대학의 총 학생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證人 權五福 재적인원으로는 유학생 포함해서 약 4,800여명입니다. 지금 현재 유학생을 제외하고 약 2,900여명입니다.

○金日柱委員 이 2,900여명 가지고 재단이 출연하는 것이 없지요?

○證人 權五福 재단의 출연은 아주 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러면 2,900명 가지고 학교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權五福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日柱委員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과거에 대학재단에 오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6,000명 넘어야 유지가 됩니다. 그것은 됐고 權五福 부학장께서는 全載旭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證人 權五福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8년 전에 포천에 있는 경북대학 교수로 재임중에 이 대학에 오게 되었습니다.

○金日柱委員 全載旭씨 이 분은 연세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證人 權五福 61세로 알고 있습니다.

○金日柱委員 됐습니다.

그리고 李龍九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교협측에서 보는 재단에 대해서 문제삼고 있는 문제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證人 李龍九 아까 李源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교비를 유용한 부분과.....

○金日柱委員 그런 것을 증인께서는 재단측에 충원을 하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證人 李龍九 저희들이 금년 7월15일에 처음으로 교수협의회를 결성해서 제일 먼저 요구한 사항이.....

○金日柱委員 그 이후에 시정이 되던가요?

○證人 李龍九 지금까지도 교비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국회에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日柱委員 현 재단과 교수들간에 대화한 일이

있습니까?

○證人 李龍九 7월15일에 교수협의회를 결성하고 全載旭 전 학장이 7월18일에 와서 한번 대화 했습니다.

○金日柱委員 대화한 이후에 비교적 안정이 되었습니까?

○證人 李龍九 더 사태가 나빠졌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런데 교협측에서는 전체 교수 몇 명이나 됩니까?

○證人 李龍九 그 자료가 이상한 것이 학교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76명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 자료에는 7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런데 교협측에서는, 저도 대학에 오래 있었던 사람인데 학교는 재단과 교수와 학생과 동문회, 졸업생은 많이 나왔습니까?

○證人 李龍九 저희들 1회 졸업했습니다.

○金日柱委員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협력체가 구축되지 않으면 열악한 그것을 뚫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李龍九 증인께서는 재단과 학교와 학생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李龍九 1차적으로는 재단이 물러나 주는 것이 학교 정상화의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의 일방적인 요구이고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최선이다 라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는 따를 것입니다.

○金日柱委員 위원들은 여러분의 얘기를 들을 따름이지 우리가 이것을 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재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큰 재벌들이 학원에 투자 안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기업하던 사람들이 지금부터 15년 전 20년 전에는 학교하면 기업하는 것 보다 낫다 굴뚝없는 공장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도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돈 가진 재단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생각합니다.

전남대학이 지난 번 연구발표한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입학정원이 육만몇천명인데 2004년에 가면 3만 조금 넘어요. 입학정원이 반으로 줄어 들어요. 지원생이…… 그래서 수도권에도 예외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뭉치지 않으면 학교는 없어지고 말아요. 오늘 沈奎燮 증인은 이미 손을 뗀 상태이고 참고인으로 오신 것인데 재단과 학교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력이 어떤 정도인지 모르지만 학교 학장을 했던 모양인데 교수들과 학생들을 이해시키는 것은 교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證人 李龍九 예.

○金日柱委員 지금 어느 대학이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수도권에 있는 또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지금 굴지의 대학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30년 전, 40년 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모두 힘이 뭉쳐졌기 때문에 교수들 전부 연탄 때고 하면서 모두 힘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 굴지의 대학이 된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 는 경문대학의 위치도 괜찮고 앞으로 그 쪽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힘이 되어서 제2의 개교를 한다는 심정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李龍九 증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학생들과 재단과의 중간에서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도 76명인데 조금만 힘 모으면 되지 않겠어요?

아까 어떤 대학 보니까 월급의 5%를 적립해 가지고 학교를 살리겠다고 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證人 李龍九 10%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金日柱委員 현 체제와 학생들과 교수들이 뭉칠 자신이 있습니까?

○證人 李龍九 동의합니다.

○金日柱委員 화합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 국회의원들도 바쁜 사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간을 소비해가면서, 여러분은 최고 지성인 아닙니까?

저는 이 학교의 절대적 역할은 李龍九 교수협의회 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열고 하나가 되세요. 그리고 모두 이렇게 보니까 관상 다 좋습니다. 악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뭉치면 되겠어요. 하나가 되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範珍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範珍委員 朴範珍 위원입니다.

먼저 沈奎燮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沈奎燮 증인은 경문대학을 155억원에 양도를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100억원은 법인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이고 25억원은 교비부족분을 채우는 것이고 나머지 35억원은 별도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35억원은 뒷돈을 받았다는 것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불법이었다는 것도 다 알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행이라고 그래 가지고 해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는 것이 관행이라고 그래 가지고 뇌물을 받아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대학은 이윤추구하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받고 사고파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불법 인정하시지요?

○證人 沈奎燮 예, 인정합니다.

○朴範珍委員 대학을 어떻게 사고 팝니까? 이것은 교육부하고 얘기할 때 따로 하겠지만 학교를 사고 파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말이나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부 특감에 의하면 98년 중에 학생들의 1, 2학기 등록금을 포함해서 모두 75억원의 교비를 용도가 불분명한 데다가 썼어요. 이것을 아까 증인은 건축비에 썼고 또 이것을 장부처리를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사업을 한 경험이 있을텐데 '장부처리를 못한다' 그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구멍가게도 아니고 수십억 단위, 수백억 단위의 돈을 움직이면서 장부처리를 잘 못한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없어요. 어디다 썼습니까?

○證人 沈奎燮 말씀드린대로 먼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실제로 저희가 설립 당시에 개교 1년차의 준비단계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저희가 무리하게 여러 가지 경험도 부족하고 의욕만 앞서다 보니까 학교에 미숙한 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충을 전차로 해서 제가 운영권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개인 목적상 쓴 것은 추호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개교 1년차의 기자재 구입비라든지 건축시설 자금이라든지 또 증설되는 학과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정리가 미흡했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럴 것 같으면 제가 학교 운영권을 넘기겠습니까? 죄송합니다.

○朴範珍委員 됐습니다.

安會鎬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문대학의 全載旭 전 학장의 부인인 고순자씨께서 71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금액을 어떻게 조달했습니까?

○證人 安會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금조달 관계, 개인출연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

다.

○朴範珍委員 답변을 못하실 분이 왜 대리 참석했지요?

○證人 安會鎬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李在五委員 증인, 무슨 말이 그래요? 대답할 수 있는 것만 하려면 왜 나왔어요?

○證人 安會鎬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朴範珍委員 답변을 못할 것 같으면 무엇하러 나왔습니까?

全載旭씨는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證人 安會鎬 지금 일본에서 치료중입니다.

○朴範珍委員 全載旭씨는 경문대학 이외에도 여러 대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여러 개 대학 또 두 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렇게 여러 개 대학을 가질 수 있는 자금력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학교를 세울 때마다 회사를 처분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회사가 몇 개나 있었습니까?

○證人 安會鎬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 30대의 콜택시 운영하던 회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동성관광이라는 관광회사, 그때 한참 잘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회사 이름, 그 전의 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투자해온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咸鍾漢 위원장, 李源馥 간사와 사회교대)

○朴範珍委員 지금 초·중·고등학교 하나 세우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200억이 들고 지방의 경우는 150억 이상 듭니다. 서울의 경우 비싼 데는 300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대학을 세우는 데는 그 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것이예요.

그런데 자금 출처가 분명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 대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 대학의 교비를 꺼내서 다른 대학을 세우고 또 꺼내 가지고 또 세우고 또 꺼내 가지고 또 세웠다 이런 의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證人 安會鎬 제가 알기로는 고성에 대학을 세울 때도 그 대지가 균유지입니다. 거의 회사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역시 동우대학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 때 당시에 노학동의 대지를 거의 회사받다시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출연금 이렇게 해서 그때…… 그 분이 고성에 교향이기 때문에, 고성이라도 이북 고성입니다. 사실 월남인이거나 마찬가지로인데 그래서 그렇게 해왔고 또 자기 개인재산

도 많이 그때 증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朴範珍委員** 됐습니다.

金相浩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문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자율경비 이것까지도 등록금과 함께 일괄로 받고 있고 그 자율경비의 상당한 부분을 학교운영비로 쓰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證人 金相浩**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1학기에 등록금을 제 명의로 받은 것은 아니고 제가 7월15일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 거의 끝날 무렵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결과 절대로 자율비를 학교운영비로 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율비는 자율비대로……

○**朴範珍委員** 그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확인이 되어서 증인께서 하신 말씀이 틀리시면 책임을 지겠습니까?

○**證人 金相浩** 예.

○**朴範珍委員** 그 다음에 全載旭씨가 학교를 인수한 이후에 학과별 실습교재비가 상당히 줄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98년 1학기만 하더라도 1억2,500만원이던 것이 99년 1학기는 2,300만원으로 줄고 이렇게 해서 84.2% 아까 교수협의회 회장은 한 10% 수준으로 줄었다고 그랬습니다. 全載旭씨가 그렇게 돈이 많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실습비가 줄니까?

○**證人 金相浩** 실습비는 실습기자재의 확충과 그 다음에 재료비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워낙 실습기본 설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全載旭씨가 학교를 인수한 다음에 컴퓨터 등 전산실 고가의 장비를 많이 확충하는데 돈을 쓴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각과의 실습비는 과의 특성에 따라서 공업계열은 많이 들어가고 인문사회계열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얼마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朴範珍委員 李龍九**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비롯한 교수협의회 측이 전 이사장의 사주를 받고 분류를 일으키고 있다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證人 李龍九** 우선 저희 교수협의회는 7월15일 결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신부터는 4월부터 학교의 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약 서너달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에 지역 국

회의원들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렸고 7월12일에는 청와대, 감사원을 비롯해서 대검찰청 등 교수협의회가 정식으로 결성되기 전에 이미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서너 명의 교수님들이 교수협의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했었습니다.

○**朴範珍委員** 됐습니다.

李龍九 증인은 경문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재단이 물러나는 길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함이 없습니까?

○**證人 李龍九** 그 뜻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참으로 딱하게 여기는 것은 이렇게 계속해서 싸우다가 내년에 신입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그런 학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이라면 적절한 선에서 학교를 위해서 한발 양보할 생각이 있습니다.

○**朴範珍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源龍** 朴範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朴承國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承國委員** 朴承國 위원입니다.

지금 사립학교를 양도·양수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계약서까지 나와 있는데 전 이사장님은 허가를 교육부로부터 받은 일이 있습니까?

○**證人 沈奎燮** 없습니다.

○**朴承國委員** 없지요, 양수를 하신 분 계십니까, 없지요?

대리로 나오신 분, 양수할 때 그 법을 알고 양수를 받았습니까?

○**證人 安會鎭** 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 양수 관계는 제가 전혀 모릅니다.

○**朴承國委員** 사립학교법 제28조 1항, 2항에 보면 법인의 재산 매도, 정리는 절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학교법인의 재산에 조그마한 변경을 하더라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바로 대학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실 한 칸 있는 것도 이것을 용도 변경을 하겠다 또는 어디 처리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증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학교를 인계 받는 분도 그 교실 하나 어떻게 하려면 허가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할 때 소위 사립학교법 중에 제일 무서운 조항이 이 조항입니다. 저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우리 사립

학교법에 이런 특한 법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했겠느냐 바로 이런 학교를 양도·양수해서는 절대 안된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강한 법이 있습니다.

이런 법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源龍 다음은 安相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相洙委員 安相洙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바로는 경문대학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全載旭씨에 대한 그동안에 있어 왔던 면에서 자금집행의 투명성과 앞으로 그것에 관한 신뢰를 교수진이나 혹은 학생들에게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대리인으로 나오신 安會鎬 증인보다는 權五福 증인이 부학장으로 낫겠네요.

우선 인수당시 경문대에 134억의 부채가 있었습니까?

○證人 權五福 죄송합니다마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安相洙委員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매각하신 沈奎燮 이사장님, 그 부채 134억이 있었습니까?

○證人 沈奎燮 예, 법인부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安相洙委員 대리인으로 나오신 분이 그것을 모르시면 그 부채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모르시겠네요.

○證人 權五福 저는 부학장으로서 그때 당시에 교학처장이었습니다. 주로 학사행정에만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安相洙委員 그러면 그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나오신 분 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감을 못 받는 것이지요. 134억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대강 다들 아실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었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지금 증언하기를 회피하는 것은 그런 의혹이 사실이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되지요.

지난번 교육부감사를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7월8일에서부터 7월16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全載旭씨가 남양주에 북서울 대학을 세울 계획을 세우면서 교사 및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을 해서 현금 108억원중에서 94억원은 全載旭씨가 설립한 경북대학교 교비에서 14억원은

경북대학재단의 예산을 유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인가가 취소되고 자금은 재편입이 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아시나요?

○證人 權五福 교육부 감사자료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安相洙委員 그것은 확인된 것이니까 부정하지 않으시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全載旭씨가 학교를 7개나 하는 과정에서 이런 행태를 반복했다는 것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부인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학이 지금 교육발전에 공헌하는 바도 지대하지만 일부 사학이 축재의 수단으로 교비유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예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겠고 李相集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全載旭씨와는 어떤 관계에 계시나요?

○證人 李相集 관계는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초창기에 동우대 교수로 임명되어서……

○安相洙委員 이사장 발령일이 언제지요?

○證人 李相集 8월2일에 전 이사장을 해임하면서 거기서 호선이 되었습니다.

○安相洙委員 그 당시에 학내의 이런 분류사태에 관한 것을 알고 있었나요?

○證人 李相集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충은 듣고 있었지만……

○安相洙委員 그러면 그 이후에 문제점은 파악하셨나요?

○證人 李相集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충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安相洙委員 수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證人 李相集 우선 대화의 창구는 학장님이 되어야 되겠고 또 학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교수님들과 협의가 되면 저희는 그 협의사항을 준수할 것이고 지원할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자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교수들과 학장님 간에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安相洙委員 지금 李龍九 협의회장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다 같이 죽는 것이지요. 이제는 한 2·3년 지

나면 대학교 중에 정원미달되는 학교도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더구나 이렇게 분류에 휘말린 학교를 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이것을 절충해 가지고 앞으로 해결을 해야 할 텐데 李龍九 협의회장이 이 자리에서 신 재단한테 요구하는 사항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최소한 어땠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證人 李龍九 기본적으로는 몰려나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히 안 되겠으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1년밖에 안 된 사이의 교비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해서 거기서 잘못 쓴 부분을 다시 환수하고 앞으로 쓸 돈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며 교수협의회를 인정해서 학교가 독단적이고 전횡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安相洙委員 그 보장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證人 李龍九 그 방법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安相洙委員 지금 李相集 이사장은 이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證人 李相集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시다라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협의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安相洙委員 제가 보기에 李龍九 협의회장이 주장하는 것이 전혀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비를 학생들한테 받아서 교수와 학생들한테 써달라는 요구, 투명하게 써달라는 요구가 전혀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장은 그런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金相浩 저는 7월15일에 취임을 해서 병원에 입원한 8월28일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과 교수가 학교를 점거한 상태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10여일간 밤을 새면서 학생들의 건전한 요구를 수렴해서 공중까지 해서 들어 주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약속 하에 학생들이 점거농성을 풀었습니다.

교수들에게도 예·결산을 공개하고 재단의 불법적인 관여를 배제하고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교수들과 함께 일을 하겠다고 간곡히 당부를 했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예·결산 공개하고……

○安相洙委員 됐습니다.

그러면 공개한 내용을 보셨어요?

○證人 金相浩 아니요, 공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교수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예·결산 공개가 아니라 회계법인을 시켜서 회계감사를 받아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받아서 명명백백히 나와 있는 것을……

○安相洙委員 그러면 李龍九 회장이 그것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證人 李龍九 저희들도 맨 처음에 어느 뷔페집에다가 교수들을 전부 모아 놓고 예·결산을 공개하겠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결산 공개하겠다는 내용은 총수입이 얼마고 총지출이 얼마인데 지금 얼마 남았다고 공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安相洙委員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證人 金相浩 아닙니다. 항목별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예산공개입니다. 그런데 세부 회계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安相洙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교육부에서 충분히 중재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투명성에 대한 것이 담보가 되면 최소한 수용을 하겠다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 全載旭 이사장의 정직성이나 신뢰감이 여러 가지로 보아서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라도 다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계기관 중재에 성실히 임해서 빨리 해결하세요. 부탁드립니다.

○證人 金相浩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源馥 安相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盧武鉉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委員 어떻게든 타협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타협이 된다면 全載旭씨를 비롯한 현재의 이사진이 그동안에 유용인지 횡령인지 한 돈을 다 메우고 옛날 빚도 갚고 이렇게 꾸려갈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요? 安會鎬씨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證人 安會鎬 예,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盧武鉉委員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지요?

○證人 安會鎬 재원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학교가 정상화만 되면…… 아까도 96%를 거의 등록금



에 의지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사학에 출연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정상화만 되면 이 등록금을 가지고도 학교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盧武鉉委員 그리고 全載旭씨가 지금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이사회를 움직이는 사람인 모양인데 全載旭씨가 여기에 갖다들인 돈이 얼마이고 그동안에 들고 나간 돈은 얼마나 됩니까?

○證人 安會鎬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경문대학 부분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 와중에 확실히 파악할 수 없었고 제가 여태까지 모신 이후에 가져간 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盧武鉉委員 간단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해주시고 의견을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협의회에서 왜 현재 재단측의 말을 믿지 않고 자꾸 문제제기를 할까요? 교수협의회에서 현재 재단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證人 安會鎬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재단이 좀 타이트한 운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전문대학은 완전히 경쟁시대입니다. 무한 경쟁시대에서 경쟁을 하자면 타이트한 것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했는데 느슨한 분위기였다가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봉급삭감 이야기도 있었지만 봉급삭감도 그 부분이……

○盧武鉉委員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계가 자꾸 돌아갑니다.

○證人 安會鎬 죄송합니다. 그 전보다 더 대우도 잘 해주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말하자면 경영합리화에 반대하는 것이다……

○證人 安會鎬 예,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盧武鉉委員 그 정도 합시다.

지금 이 상태대로 합의가 안 되면 학사운영에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합의가 안 되어서 다소 옥신각신 싸우더라도 학사운영은 가능할 것 같습니까?

학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證人 金相浩 현재 정상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盧武鉉委員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도……

○證人 金相浩 대부분의 교수들이 지금 학교운영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지장이 없다는 얘기지요?

○證人 金相浩 예.

○盧武鉉委員 李龍九 협의회장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證人 李龍九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盧武鉉委員 제 생각에도 그것은 안 그럴 것 같은데요.

○證人 權五福 죄송합니다. 부학장입니다.

지금 교수협의회를 탈퇴하고 어제 현재로 40여명이 정상화에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證人 李龍九 맨 처음에 68명으로 시작한 교수협의회 회원들이, 다른 대학도 다 그렇지만 학교로부터 상당히 회유와 공갈과 협박을 받아 왔습니다.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학교 바로 세우기'인가 하는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서 40여명이 사인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는 언제 시작했고 그 회의 회장은 누구이며 사인을 받을 때 어떠한 명분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그 회의가……

○委員長代理 李源龍 증인! 증인들 상호간에는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얻으셔서 하세요.

○盧武鉉委員 계속 해주세요.

○證人 李龍九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이 사인한 교수들에게 적시되었는지 그리고 그 회의는 언제 시작했고 어떤 모임을 가졌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委員 그것을 확인하려면 쌍방향의 하에 교수전체회의를 한번 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얘기이고 沈 전 이사장 쪽에서 학교를 넘길 때 학교의 부채를 많이 넘긴 것 아닙니까, 인수한 쪽에서 그 부채는 다 갚았습니까?

○證人 沈奎雙 제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진행되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安會鎬씨 쪽에서 대답해 주셔도 좋겠네요. 빚은 다 갚았습니까?

○證人 安會鎬 제가 듣기로는 당초의 약속을 위약해서 초과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채무이행이 안 된다……

○盧武鉉委員 그러면 있다고 했던 부분만큼은 갚

있습니까?

○證人 安會鎬 예, 그것은 다 이행을 했습니다.

○盧武鉉委員 사실입니까?

○證人 安會鎬 그런데 그 뒤에 거기에 명시되지 않은, 제가 명시된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명시되지 않은 금액이 튀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盧武鉉委員 명시된 금액은 다 갠 것이 맞습니까? 沈중인!

○證人 沈奎燮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이 점도 다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감사를 한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여러 개 학교 사이에 돈이 자꾸 왔다갔다한 모양인데 그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까?

安會鎬 증인께서 말씀하십시오. 全載旭씨가 관여하고 있는 여러 개 학교 사이에서 돈이 자꾸 왔다갔다한 것은 사실입니까?

○證人 安會鎬 그것은 전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동대학교 자금을 갖다 썼다고 했는데 교육부 감사에서 그것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盧武鉉委員 그러면 교육부가 감사를 잘못된 것이네요?

○證人 安會鎬 아닙니다. 감사를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교육부 특별감사에 의해서……

○盧武鉉委員 감사결과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입니까?

○證人 安會鎬 감사결과에 의해서 경동대학교 자금을 유용한 것이 아니고 또 경북대학은 밝혀졌듯이 북서울대학을 일부 이전 차원에서 했다가 도로……

○盧武鉉委員 돈이 왔다갔다 했나만 물었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만 따지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는 全載旭씨가 이것을 꾸려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재원이 어디 있냐고 하니까 주로 교비로 한다고 했거든요?

○證人 安會鎬 예.

○盧武鉉委員 全載旭씨의 지금 현재 재산상태는 어떻습니까?

○證人 安會鎬 제가 개인재산은 지금……

○盧武鉉委員 그러면 혹시 개인적으로 지불정지라든지 부도가 나지는 않았습니까?

○證人 安會鎬 부도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지금 경문대학 쪽에서는 완전히 손을 댄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사도 다 퇴진했고요.

○盧武鉉委員 그러면 어떻게 학사운영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교수 전체의 의사가 우선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숫자는 아니라도 결국 불복하는 쪽이…… 51%로 결판 짓는 것이 아니고 불복하는 쪽이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면 또 문제는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학장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말하자면 교수 몇 명이 우리 편이나, 몇 명이 이 편이나 저 편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승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얼마만큼이 승복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학사운영의 제일 핵심적인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證人 金相浩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어떻게 학사운영이 제대로 되려면 승복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證人 金相浩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證人 金相浩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학장을 통해서 또 아까 교수협의회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대책은 학교를 멸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재단이사장……

○盧武鉉委員 미안합니다마는 학교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설명 안 해도 알고 교수협의회와 어떤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證人 金相浩 교수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학교를 바람직하게 재건할 대책이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교수들이 신뢰하지 않으면요?

○證人 金相浩 100%의 교수의 신뢰를 다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교수가 신뢰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월28일날 학생대표들이 전폭적으로 학장을 신뢰하고 지지하기로 약속하고 점거농성을 풀고 수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盧武鉉委員 됐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源龍 盧武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李在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五委員 李在五 위원입니다.

이상집 증인, 경문대학 이사장 하시기 전에 어디 계셨지요?

○證人 李相集 제가 경문대학교 이사장 하기 전에는 동원고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李在五委員 동원고등학교 누가 설립했지요?

○證人 李相集 전재욱씨가 했습니다.

○李在五委員 김상호 증인, 학장 하시기 전에 어디 계셨지요?

○證人 金相浩 효성그룹에서 운영하는 동양공업전문대학의 교무처장을 하다가 전재욱씨한테로 왔습니다.

○李在五委員 경북대학에 있었지요?

○證人 金相浩 경북대학에 있었습니다.

○李在五委員 증인들 대답 제대로 하세요. 김상호 학장, 경북대학에 있었지요?

○證人 金相浩 있었습니다.

○李在五委員 그것은 누가 설립했습니까?

○證人 金相浩 전재욱씨가 설립했습니다.

○李在五委員 권오복 증인, 경문대학 오시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證人 權五福 경북대학에 있었습니다.

○李在五委員 경북대학은 누가 설립했습니까?

○證人 權五福 전재욱씨가 했습니다.

○李在五委員 안중호 증인, 경문대학 법인 사무국장 오시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證人 安會鎬 경북대학에 있었습니다.

○李在五委員 경북대학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證人 安會鎬 전재욱씨가 만들었습니다.

○李在五委員 증인들, 대학이 무슨 슈퍼마켓입니까, 무슨 체인점입니까? 권오복 증인, 증인이 전재욱 증인의 대리출석했지요?

○證人 權五福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전재욱 증인이 대리러 가라고 했어요. 증인이 자진해서 간다고 했어요?

○證人 權五福 지금 와병중이라서 제가 학사행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李在五委員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전재욱 증인이 내보냈어요, 본인이 자원했어요?

○證人 權五福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원했습니다.

○李在五委員 고순자씨가 전재욱씨 부인이지요?

○證人 權五福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고순자씨 지금 어디 있습니까?

○證人 權五福 잘 모르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전재욱씨와 고순자씨가 증인으로 채택될 줄 알고 도망 갔지요, 그리고 권오복 증인을 대신 내보냈지요?

○證人 權五福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원했습니다.

○李在五委員 권오복 증인, 동우대학 아시지요?

○證人 權五福 알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동원고등학교 아시지요?

○證人 權五福 예.

○李在五委員 동우여자고등학교 아시지요?

○證人 權五福 예.

○李在五委員 경북대학 아시지요?

○證人 權五福 알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경동대학교 아시지요?

○證人 權五福 예.

○李在五委員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문막대학 아시지요?

○證人 權五福 잘 모르겠습니다.

○李在五委員 경문대학 아시지요?

○證人 權五福 예.

○李在五委員 북서울대학 아시지요?

○證人 權五福 북서울도 잘 모르겠습니다.

○李在五委員 문막대학하고 북서울대학은 현재 인가는 받았지만 학교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8개 대학을 전부 전재욱씨가 설립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證人 權五福 알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경동대학, 동우대학, 경북대학, 경문대학, 북서울대학, 문막대학 이사장이 전재욱씨 부인 고순자씨라는 것 알고 있지요?

○證人 權五福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李在五委員 권오복 증인 여기는 국회예요.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證人 權五福 이사장에 대해서는 학원이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李在五委員 전재욱씨가 경동대학교 총장 했지요?

○證人 權五福 지금 총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전재욱씨가 동우대학교 명예학장으로 있지요?

○證人 權五福 명예학장…… 잘 모르겠습니다.

○李在五委員 전재욱씨가 경북대학 명예학장으로 있지요?

○證人 權五福 그 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전재욱씨가 경문대학의 학장으로 있었지요?

○證人 權五福 7월15일까지 있었습니다.

○李在五委員 권오복 증인, 증인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 근무했어요?

○證人 權五福 삼보컴퓨터 사업본부장을 했습니다.

○李在五委員 대학을 컴퓨터회사 경영하듯이 해도 됩니까, 안 되지요?

○證人 權五福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李在五委員 그렇지 않다고 보지요.

○證人 權五福 예.

○李在五委員 그러면 하나하나 답변하세요.  
증인은 전재욱 학장의 오른팔이라고 할 정도로 경문대학의 실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재욱씨의 학교 설립이나 인수과정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權五福 전혀 아닙니다.

○李在五委員 증인은 공·사석에서 전재욱 학장은 정계와 교육계에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 아무도 건드릴 수 없으며 교육부는 우리 식구나 마찬가지로 자주 말하였다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權五福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李在五委員 전재욱 학장이 정계의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證人 權五福 저는 전혀 모릅니다.

○李在五委員 교육계에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證人 權五福 전혀 모릅니다.

○李在五委員 증인, 증인이 경북대학에서 경문대학 교학처장으로 임명한 전재욱 씨의 심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합니까?

○證人 權五福 심복이라는 표현은 너무합니다. 단, 학사행정의 처장으로 발령 근무했습니다. 그 경력으로 인정한 것 같습니다.

○李在五委員 재단에서 온 총무과장 등 직원들과 함께 증인이 마치 경문대학의 점령군처럼 행세했다는데 맞습니까?

○證人 權五福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李在五委員 증인, 그러나 아니냐만 답하세요. 제가 증인이 꼭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證人 權五福 알겠습니다.

○李在五委員 증인은 모든 교수들에게 명령조로 반말을 한다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權五福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이 그

래서 제가 사과를 한 적도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사실인지 아닌지만 답변하세요. 증인은 평택시 태권도협회장이지요?

○證人 權五福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지금도 그렇습니까?

○證人 權五福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취임할 때 교수들에게 2만원에서 5만원씩 축의금을 내도록 했습니까?

○證人 權五福 그렇지 않습니다.

○李在五委員 음대교수를 한복을 입혀서 축하노래를 하도록 했습니까?

○證人 權五福 자발적으로 축하 좀 해주셨습니다. 명령하지는 않았습니다.

○李在五委員 총학생회장은 NL당과 같은 놈들이다. 출·결석 등을 철저히 체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학생회를 제압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지도교수와 학과장에게 강력하게 책임을 물겠다라고 교수들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證人 權五福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으면 그 비슷한 말을 한 적은 있습니까?

○證人 權五福 학생들이 정상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말 했습니다.

○李在五委員 알았습니다.

다음 전재욱씨가 학장으로 있을 때 경문대학 전기기사 박도석씨에게 교수들의 전화를 도청하도록 지시한 일이 있지요?

○證人 權五福 전혀 없습니다.

○李在五委員 교수 4명을 2개조로 편성해서 교수들을 랜덤크로스로 체크하도록 해서 일일이 학장에게 보고한 일이 있지요?

○證人 權五福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 이용구 교수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까?

○李在五委員 권오복 학장, 대학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십니까, 교육을 목적으로 하십니까?

○證人 權五福 교육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李在五委員 심규섭 증인, 금년에 몇 살이에요?

○證人 沈奎燮 만으로 마흔 하나입니다.

○李在五委員 전에는 뭐 하셨어요?

○證人 沈奎燮 전에는 저희 아버지께서 설립해주신 고등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李在五委員 교사나 교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證人 沈奎燮 교사를 했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런데 학교를 돈으로 주고 팔고 하면 됩니까?

○證人 沈奎燮 안됩니다.

○李在五委員 학교를 장사하듯 하면 됩니까?

○證人 沈奎燮 안됩니다.

○李在五委員 그러면 심규섭 증인은 마치 장사꾼들이 팔고 흥정하듯 학교를 했지요? 인정하시지요?

○證人 沈奎燮 아닙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제가 무리하게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힘에 겨워서 학교의 운영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李在五委員 증인, 증인 부모님이 학교를 세울 때는 또 증인이 부모님의 유지를 받아서 학교를 할 때는 교육이라고 하는 참 이념, 인재를 기르겠다는 참 이념의 학교를 세워야지요. 그런데 증인 그렇게 안 했지요?

○證人 沈奎燮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너무 지나친 의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 부족으로 실수가 있었습니다.

○李在五委員 증인, 아까 다른 위원들이 묻는데 학교를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양도·양수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대답했지요?

○證人 沈奎燮 예.

○李在五委員 지금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는데 사법처리받을 생각이 있습니까?

○證人 沈奎燮 예. 제가 지은 죄라면 받겠습니다.

○李在五委員 알겠습니다.

안중호 증인, 전재욱씨가 하는 경문대학, 경북대학 두 대학이 국고지원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경문대학의 경우 금년만 해도 6억6,000만원의 교부액을 받았지요?

○證人 安會鎬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李在五委員 또 사학진흥재단에서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證人 安會鎬 죄송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부채입니다.

○李在五委員 그러면 어떻게 갚으려고 해요?

○證人 安會鎬 지금 당장 대답하기가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이용구 증인, 학교측에서 이용구 교수의 전력을 문제삼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證人 李龍九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이용구 증인은 대한항공에서 97년도에 면직된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李龍九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경문대학은 어떻게 취직했습니까?

○證人 李龍九 서류 내고 해서 제대로 했습니다.

○李在五委員 증인 뭐 전공하셨지요?

○證人 李龍九 대학 때는 법학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MBA를 했습니다.

○李在五委員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분규대학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 경문대학으로 지칭되는 전재욱씨가 관련된 8개 학교의 문제는 교육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편의점 주고 받고 하는 식으로, 학교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일생 동안 한 학교에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인재를 만들어도 부족합니다. 이것을 지금 한 사람이 여덟개 학교를 만들어서, 자기 돈도 없으면서 땅만 구해놓고 돈은 여기저기 갖다 끌어대고 이 대학 돈 빼서 저 대학 세우고 저 대학 돈 빼서 이 대학 세우고, 이것이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특히 전재욱씨와 관련된 경문대학 교직원들 특히 재단과 관계되는 교직원들은 각성하셔야 되고 이것은 교육부에서도 따지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교육사업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源護 다음은 薛勳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薛勳委員 沈奎燮 증인, 양수·양도할 때 150억이었지요?

○證人 沈奎燮 당시의 학교 부채 상황에 맞추어서 그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薛勳委員 부채를 안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죠?

○證人 沈奎燮 예.

○薛勳委員 그러면 학교 인수하는데 대충 얼마 든다고 봐요?

○證人 沈奎燮 ……

○薛勳委員 좋습니다.

수백억 들어가겠지요. 지금 전재욱씨 부부가 7개 대학…… 동우대학, 경동대, 경문대, 문막대 이렇게 많은 대학을 수퍼마켓도 아니고 몇 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 대학을 해도 돈이 많이 들어 가는데 이렇게 몇 개 대학씩 한다면 어마 어마한 재벌가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李相集 증인, 지금 전재욱씨가 그렇게 엄청난 재산가입니까?

○證人 李相集 부동산도 많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薛 勳委員** 그래서 결국은 97년8월 서울 구기동의 高順子씨 자택과 낙원동 건물을 근거당해 가지고 채권 23억을 차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뒤인 98년9월에 경문대학을 인수하면서 근 71억원을 인수하고 출연했습니다. 1년전에 23억을 은행에 근거당해서 차용했는데 바로 1년뒤에 71억원을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 71억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결국은 학교 돈에서 뺏을 것이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源馥 간사, 咸鍾漢 위원장과 사회교대)

○**證人 安會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재 관계는 모르겠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재산운용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薛 勳委員**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출연금을 제3의 인물이 낸 것은 아닌가, 또 어떻게 보면 실제로 全載旭, 高順子씨 법인이 아니라 제3자의 법인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71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을 현금으로 갖다 주었을 리는 없고 이것은 관련서류를 보면 압니다.

이럴테면 은행에서 인출했으면 통장 사본이 있을 터이고 또 부동산을 처분했으면 그 관련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보면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金相浩 증인, 한번 얘기해 보세요.

○**證人 金相浩** 지금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왜냐 하면 하도 全載旭씨를 매도하는 분위기가 돼서 제가 아는 사실을 숨김없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在五委員** 증인, 全載旭씨를 매도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 모욕입니다. 증인 국회모욕죄 있는 것 알아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회를 모독하면 처벌받는 것 알아요?

○**證人 金相浩** 제가 매도라고 하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全載旭씨를 너무 몰아치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실을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을 설립할 당시에 제가 설립심의위원이었습니다.

그때 보면 그 땅은 그 분이 관광회사를 경영할 때 이미 사놓은 땅이었고 수색에 있는 고가의 부지를 수익용 재산으로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실 그대로 증언합니다.

○**薛 勳委員** 그 땅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조사해 보면 또 나오니까 그냥 두세요.

다음 安會鎬 증인, 경문대학 인수할 당시 134억원의 부채중에서 교비 9억 포함해서 48억을 상환했는데 86억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것 피소되어 있지요?

○**證人 安會鎬** 그 관계는 사실이 아닙니다.

○**薛 勳委員** 사실이 아니다?

○**證人 安會鎬** 예,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계약에 의한……

○**薛 勳委員**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 위증이 돼요.

○**證人 安會鎬** 그것은 분명히 제가 본인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薛 勳委員** 다음 李相集 증인, 공장용지 매입할 때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까?

○**證人 李相集** 결정을 했습니다.

○**薛 勳委員** 그런데 이 공장용지가 학교부지로 변경이 안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證人 李相集** 그 내용을 모르고서 했다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薛 勳委員** 아니, 학교매입을 이렇게 5개, 6개 했는데 모르고 했다?

○**證人 李相集** 제가 이사장으로 8월2일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薛 勳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全載旭씨나 高順子씨는 시쳇말로 학교 매입하는데 선수들인데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이것을 모르고 했을 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證人 李相集** 글썬, 그 문제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薛 勳委員** 공장용지를 샀는데 이것이 학교부지로 변경이 안된다는 것을 全載旭씨나 高順子씨가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학교를 한 두번 사봤어요?

○**證人 李相集** 그것은 몰랐습니다.

○薛 勳委員 모른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경매를 통해서 구입했는데 시가가 얼마나 되지요?

○證人 李相集 35억인가……

○薛 勳委員 35억? 우리가 볼 때는 시가가 한 8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의 의혹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金相浩 증인, 지금 명예학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證人 金相浩 명예학장이라는 제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薛 勳委員 명예학장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 그대로 명예학장입니다. 그런데 全載旭씨가 실제로 회계를 필두로 해서 모든 집행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證人 金相浩 중요한 정책 사항에 대해서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법인, 이사장, 명예학장 자격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薛 勳委員 이 명예학장이라는 것이 정관에는 없지요?

○證人 金相浩 내부정관에는 있습니다.

○薛 勳委員 내부정관?

○證人 金相浩 그러니까 외부의 교육법에 의해서 명예학장이……

○薛 勳委員 아니, 내부정관이 있고 외부정관이 있습니까?

○證人 金相浩 그러니까 외부의 법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하지만 내규에 의해서……

○薛 勳委員 그러면 내규라고 말을 해야지, 내부정관이라고 하면 얘기가 되겠어요?

○證人 金相浩 말이 조금 잘못 됐습니다.

○薛 勳委員 정관에는 없는데 내규에 의해서 가지고 있다?

○證人 金相浩 예.

○薛 勳委員 알았습니다.

그러면 全載旭씨가 명예회장 자리에 앉아 가지고 학교비를 유용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證人 金相浩 모르겠습니다.

○薛 勳委員 모르죠? 알아도 안다고 얘기 안하실테니까.

다음 李龍九 교수협의회장께 묻겠습니다.

全載旭, 高順子씨가 경문대를 인수하고 난 뒤에 많은 교직원들을 해임시켰지요? 그 상황을 좀 말씀

해 주세요.

○證人 李龍九 첫날 학장 이·취임식 하는 날 교원은 안했는데 직원은 전채단하고 관련된 2명만 그만두게 하고 모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세 네명만 남고는 전부 다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薛 勳委員 그런데 沈奎燮 전 이사장이 교협을 배후조정하고 불란을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학교당국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李龍九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독자적으로 교협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沈奎燮 재단과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말도 했고 沈奎燮 이사장이 학교로 다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沈奎燮 이사장 본인도 저희에게 세번에 걸쳐서 학교에 들어올 의사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절대적으로 날조입니다.

○薛 勳委員 마지막으로 증인께서 경문대학이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李龍九 원래 저희 생각은 현재 재단이 물러나고 관선이사가 들어오는 것이 현재로서는 차선이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상지대학의 경우를 보면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안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제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잘 안된다면 학교가 망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라도 학교하고 타협을 해서 학교를 세우는데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安曾鎬 학장은 교수협의회가 주장하는 바가 하나도 일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金相浩 학장은 소위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소수로 전락하고 있는 교수협의회 교수들을 마치 신분상에 위해를 가하려는 듯한 위협을 가하고, 權五福 처장은 교수협의회에 열심히 가담하고 있는 교수들이 이제 소수가 됐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명분이 없다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는 타협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薛 勳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다음은 李壽仁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壽仁委員 李壽仁 위원입니다.

먼저 安會鎬 증인하고 金相浩 증인에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全載旭씨가 전혀 경리부정이 없었다 더군다나 金相浩 증인은 교육부 감사에서 185억원을 경북대학의 법인학교예산에서 유용했다는 교육부 감사까지 부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립인가 취소된 그 학교까지 포함해서 8개 대학에 관련된 설립 당시의 출연자금 내역을 16일까지 저한테 보내십시오.

그리고 李龍九 교수하고 姜眞哲 교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분 교수께서는 모영기씨, 이보령씨, 김용현씨가 세분을 아십니까?

○證人 安會鎬 압니다.

○李壽仁委員 그 중에 두분은 全載旭씨와 거액의 뇌물을 주고 받은 탓에 한 사람은 도피했고 한 사람은 의원면직됐습니다. 그리고 이보령씨는 물론 구속이 되거나 기소가 된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일단 교육부 고위 관리들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證人 安會鎬 그렇습니다.

○李壽仁委員 그리고 동우대학 설립시부터 8개 대학을 더군다나 90년대에 들어서 1년뒤, 1년뒤, 1년뒤에 인수 설립 이런 것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것은 교육부의 일부 부패관료들과 짜고 하지 않고 유착이 되지 않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安會鎬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고위관리들하고만입니다. 저는 젊은 분들은 신뢰하고 있습니다.

○李壽仁委員 일부예요. 내가 교육마피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이것을 연구해보면 우리는 워낙 그런 것을 많이 겪어서 처음으로 이것을 발언하지만 학교 토지사기단 아시지요?

○證人 李龍九 압니다.

○李壽仁委員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용어가 없어요. 학교사기단 같은 사람들이예요. 이흥하, 全載旭 이런 사람들 학교사기단입니다. 이것은 연구하는 스터디그룹이 없으면 안 되고 비호그룹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李龍九 동감합니다.

○李壽仁委員 저는 이것을 고통 속에서 절실히 얘기하는 것이예요. 교육이 없습디다. 이것은 사유재산만 있고 재산증식만 있는 것이예요. 그리고 문어발식 학교증식과 부정부패 이것은 아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를 안 들지만 연구를해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것에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대학을 가져도 다 똑같은 사람이 학장도 하고 부학장도 하고 이사도 하고 이 사장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경리 이런 것은 한 사람이 통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것이 공통분모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따지자면 경문대학 총무과장 김성태씨 이런 분들은 같은 대학 사무국장이자 동시에 감사입니다. 이것이 정말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내가 여기에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장·차관 두분이 계시니까 내가 직접 묻지 않고 그러는 것이예요.

이것은 기가막힙니다. 기가 막히다는 것은 기관지가 딱 막혀서 숨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동대학의 사무국장과 동 고등학교 행정실장까지 맡았습니다. 이런 불법행위는 전형적인 범죄자 학교사기단, 교활한 학교사기단의 행위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지요?

○證人 李龍九 동감합니다.

○李壽仁委員 그리고 제가 일부러 존경하는 동료·선배위원들이 하신 말씀을 제가 다시 반복을 안 합니다. 그리고 법칙 규정 유형 이런 것 있습니다.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족벌체제 마피아체제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이흥하씨도 마찬가지이지만 全載旭씨도 법인의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학교를 보면 이사회 개좌 및 그 회의록이 가짜가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證人 李龍九 알고 있습니다.

○李壽仁委員 조사에 의하면 예를 들면 교육부의 징계 직후인 지난 8월2일에 같은 인물들이 9시에 경기도 평택에서, 10시에는 포천에서, 11시30분에는 강원도 고성에서 각각 다른 법인의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손오공이 나오더라도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전 손오공인지, 박 손오공인지, 김 손오공인지, 권 손오공인지, 안 손오



공인지 알 수가 없지만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지요?

○證人 李龍九 그렇습니다.

○李壽仁委員 姜眞哲 교수도 잘 들으세요.

‘학교자금 빼내고 고등학교 운영하는 자금 빼내고 공장부지를 샀다.’ 여기에까지 이르는 각종 부정부패를 전부 다 적시해서 교수들이 평택지청에 고발한 적이 있지요?

○證人 李龍九 있습니다.

○李壽仁委員 고발한 적이 있는데 全載旭씨가 전직 검찰총장을 변호사로 계약을 했지요?

○證人 李龍九 들었습니다.

○李壽仁委員 그 사위가 이 사건을 담당했지요?

○證人 李龍九 그렇습니다.

○李壽仁委員 그리고 호지부지 되었지요?

○證人 李龍九 수사를 거의 안 한 상태에서……

○李壽仁委員 수사를 거의 안 한 상태에서 옮겨 갔지요?

○證人 李龍九 그렇습니다.

○李壽仁委員 그리고 그 다음에 온 검사도 처음에는 하려고 하다가 호지부지 한 채 아직 안 하고 있지요?

○證人 李龍九 거의 안 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李壽仁委員 그리고 全載旭 학장님 여기에 안 나오셨지만 全載旭 학장님의 방에는 金起秀 당시 검찰총장의 업적을 화려하게 소개하는 책자를 늘 놓고 과시를 하고 내가 여기에서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 사람도 여기에 증인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런 것은 全載旭 학장님의 비호세력이 엄청난 것을 스스로 자랑하는 데에서 소문이 났지요?

○證人 李龍九 저희들이 그것을 느끼고 항상 기가 죽어왔습니다.

○李壽仁委員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것이 전혀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것까지 확인하고 결론으로 선배·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자주성, 공공성 이것이 학교법인에서 말하는 사립학교 특수성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유화해서 재산증식의 도구로 삼는 그런 학교법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교육계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證人 李龍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李壽仁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이상으로 경문대학 관련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문대학 관련 증인 일곱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대기실로 나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개 대학교 증인들에 대한 신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8시에 속개하여 교육부장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五委員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긴급동의 있습니다.

오전에 상지대학 질의·답변시에 용공조작사건에 대해 양심선언을 했던 김황일 당시 학생주임이 현재 이 곳에 와 있습니다. 긴급 증인으로 채택해서 대질신문할 것을 요구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어제 86년도 상지대 용공조작사건을 양심선언한 김황일 상지대 교학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李在五 위원의 동의가 있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황일 상지대 교학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8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20시07분 감사계속)

○委員長 咸鍾漢 그러면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으로 채택한 상지대학교 金晙一 교학부장의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金晙一 증인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金晙一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시겠습니까?

○證人 金晙一 예,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199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

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金晃一 증인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金晃一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0월13

원주시 한구동 건영아파트 101동 1304호

411128-1268415

證人 金晃一

○委員長 咸鍾漢 자리에 앉아주시시오.

金晃一 증인을 상대로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李在五委員 金晃一 증인, 제가 증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金晃一 증인, 여기는 국정감사장 이기 때문에 위증을 하거나 또 국회를 모독하는 발언을 하면 법에 의해서 처벌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證人 金晃一 예.

○李在五委員 증인이 상지대학교에 몇 년도에 취직하셨지요?

○證人 金晃一 76년도입니다.

○李在五委員 취직하기 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證人 金晃一 검찰에 있었습니다.

○李在五委員 검찰에서 직급이 뭐였습니까?

○證人 金晃一 그때는 임시직이었습니다.

○李在五委員 검찰 어디 있었습니까?

○證人 金晃一 원주지청에 있었습니다.

○李在五委員 원주지청에 있다가 본인이 스스로 그만 두었습니까?

○證人 金晃一 그만 두고서 상지대학으로 왔습니다.

○李在五委員 상지대학으로는 사무직으로 시험 보아서 들어갔습니까?

○證人 金晃一 아닙니다.

○李在五委員 누가 추천해서 들어갔습니까?

○證人 金晃一 그때 당시에 의사촌 매형되는 김연신씨가 추천을 했습니다.

○李在五委員 김연신씨는 상지대학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證人 金晃一 그때 당시에 중앙정보부 시절에 강원도 지부장을 했습니다.

○李在五委員 중앙정보부 강원도 지부장의 추천을 통해서 상지대학에 들어갔지요?

○證人 金晃一 예.

○李在五委員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서 무엇을 맡았습니까?

○證人 金晃一 학생과 일반직으로 들어왔습니다.

○李在五委員 학생과로 들어갔습니까? 증인은 대학은 어디 나오셨지요?

○證人 金晃一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중퇴했습니다.

○李在五委員 좋습니다. 지금은 직급이 무엇입니까?

○證人 金晃一 지금은 일반직 3급으로서 대학원 교학부장입니다.

○李在五委員 대학원 교학부장? 좋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하셨지요?

○證人 金晃一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그 기자회견 내용이 다 사실입니까?

○證人 金晃一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대로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李在五委員 사실입니까?

○證人 金晃一 예.

○李在五委員 그 당시에 교수프리미엄 사건으로 학생들이 데모했습니까?

○證人 金晃一 9월초부터 시작을 해서 한 40일정도 학생소요가 있었습니다.

○李在五委員 그 프리미엄 사건에 대한 학생들의 농성에 대해서 학교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학교당국이 농성하는 학생들에게 해산하라는 이야기를 구두로 한 적이 있습니까?

○證人 金晃一 그것은 학과장이나 지도교수들을 통해서……

○李在五委員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지도교수들이나 학교당국이 학생들의 농성을 풀라고 했는데도 안 푸니까 이러한 엄청난 사건을 조작을 해서 공권력을 투입해서 이 학생들의 농성을 해산했다 이 말입니까?

○證人 金晃一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거기에 문안은 누가 썼습니까?  
 ○證人 金晃一 제가 했습니다.  
 ○李在五委員 본인이 양심선언은 했지만 이것이 만약에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처벌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證人 金晃一 예.  
 ○李在五委員 각오합니까?  
 ○證人 金晃一 예.  
 ○李在五委員 그러면 복사는 누가 했습니까? 문안을 쓰기는 金晃一 증인이 하고 이것을 무엇으로 인쇄했습니까?  
 ○證人 金晃一 요인한테 시켰습니다.  
 ○李在五委員 학교 안에서 했습니까?  
 ○證人 金晃一 예, 학교 2층에서 했습니다.  
 ○李在五委員 어디 2층이요?  
 ○證人 金晃一 본관 2층입니다. 학장실 앞방입니다.  
 ○李在五委員 인쇄는 요인이 했습니까?  
 ○證人 金晃一 예.  
 ○李在五委員 몇 매나 인쇄했습니까?  
 ○證人 金晃一 그때 매수로 봤을 때는 한 3·400매 정도 되지 않나……  
 ○李在五委員 3·400매 인쇄해서 어디 어디 뿌렸어요?  
 ○證人 金晃一 학생들이 본관 3층에서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4층에 올라가서 뿌렸습니다.  
 ○李在五委員 증인도 뿌렸지요?  
 ○證人 金晃一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그 당시 기획실장 황재복씨하고도 같이 했습니까?  
 ○證人 金晃一 아닙니다.  
 ○李在五委員 황재복씨는 뭐 했습니까?  
 ○證人 金晃一 그때 당시에 학장, 사무처장, 기획실장…… 저는 병원에 나가 있었습니다.  
 ○李在五委員 좋습니다.  
 이렇게 묻겠습니다.  
 당시의 朴在佑 학장, 황재복 기획실장, 金淵東 사무처장이 증인을 불러서 그렇게 지시했습니까?  
 ○證人 金晃一 예.  
 ○李在五委員 朴在佑, 황재복, 金淵東 세 사람 중에 증인을 불러 놓고 직접 증인에게 지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證人 金晃一 일부 부분적으로 다릅니다.  
 왜냐 하면 朴在佑 학장이 한 부분하고……  
 ○李在五委員 이야기해 보세요. 朴在佑 증인이 뭐

라고 그랬어요?  
 ○證人 金晃一 학생들 소요가 도저히 끝나지 않으니 학생들 소요를 제지시키기 위해서는 공권력을 불러들여야 되겠는데 경찰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은 학내문제니까 학내에서 해결해야지 달리 방법이 없다고 답이 나온다, 그래서 세 분이……  
 그때 논의과정에는 제가 빠져 있었습니다. 나갔다 들어오니까 이미 세 분이 논의를 끝냈는데 황재복 실장 얘기가 화염병은 이미 제작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朴在佑 학장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화염병 만드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경찰병력이 들어올 수 없고 지금 학생들이 저렇게 빨간 깃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쓰는 것으로 봐서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불온유인물이라도 만들어서 살포해야만 경찰이 들어오지 않겠느냐는 식의 얘기를 거기서 했습니다.  
 ○李在五委員 金淵東 사무처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證人 金晃一 金淵東 사무처장은 그러한 대화를 하고 지시할 때 같이 있었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러니까 직접 지시한 것은 없고……  
 ○證人 金晃一 그때 앉아 있었습니다.  
 ○李在五委員 동석만 했지 金淵東 사무처장이 증인에게 지시한 것은 없지요?  
 ○證人 金晃一 예.  
 ○李在五委員 그러니까 뿌리는 데 가담하는 것은 증인만 했습니까?  
 ○證人 金晃一 본관에는 제가 했습니다.  
 ○李在五委員 다른 데는?  
 ○證人 金晃一 다른 데는 다른 사람들이 뿌렸습니다.  
 ○李在五委員 알았습니다.  
 金晃一 증인!  
 ○證人 金晃一 예.  
 ○李在五委員 불온유인물 내용이 여기에는 ‘가자! 북의 낙원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 맞습니까?  
 ○證人 金晃一 맞습니다.  
 ○李在五委員 또 다른 구절은 기억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證人 金晃一 ‘金日成 수령과 金斗煥 대통령은 협의를 해서 남북통일을 이루자’는 것부터 해서, 그때 당시에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증인! 증인이 이런 것을 만들고 뿌리고 또 이것을 그 당시 안기부에 갖다 주었지요?

○證人 金晃一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증인 손으로 몇 매 갖다 주었습니까?

○證人 金晃一 수거한 대로 다 갖다 주었습니다.

○李在五委員 안기부 원주분실에 갖다 주었습니까?

○證人 金晃一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그 당시에 전해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證人 金晃一 신조정관입니다.

○李在五委員 본인이 전달했지요?

○證人 金晃一 예.

○李在五委員 그러면 증인! 그 당시에 양심의 가책을 안 느꼈어요?

○證人 金晃一 그때 당시에는 학생들의 농성을 풀게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시를 할 때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고 이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리고 그 당시에 증인이 조사받고 2·3일 후에 나왔지요?

○證人 金晃一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金文起 증인이 그 당시 이사장이었지요?

○證人 金晃一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金文起 이사장이 증인을 불렀지요?

○證人 金晃一 예, 불렀습니다.

○李在五委員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하면서 수고했다 그리고 돈 100만원 주었지요?

○證人 金晃一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100만원이 수표였습니까?

○證人 金晃一 현찰이었습니다.

○李在五委員 새 돈이었습니까, 현 돈이었습니까?

○證人 金晃一 새 돈이었습니까.

○李在五委員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證人 金晃一 이사장실입니다.

○李在五委員 돈을 줄 당시에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증인하고 金文起 증인하고 단둘이 있었습니까?

○證人 金晃一 그때 배석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李在五委員 그 100만원 받아서 뭐 했습니까?

○證人 金晃一 제가 썼습니다.

○李在五委員 어디에 썼습니까?

○證人 金晃一 생활비에 보태 쓰고 제 용돈으로 썼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러면 13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이것을 폭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證人 金晃一 교수와 노조, 또 학생들이 13년 동안 10월이 되면 용공조작 사건에 대해서 규명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학생이 한 2,300여명 정도 되는 교수·직원·시민의 서명을 받아서 도경에다 공개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들이 이제는 당신이 결단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노조에서도 얘기했고……

○李在五委員 그야말로 본인의 양심의 발로군요?

○證人 金晃一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세월이 지났지만 더 이상 이런 사건을 물어볼 수 없다라는 양심에 의해서 폭로했습니까?

○證人 金晃一 예.

○李在五委員 오늘 오전에 金淵東 증인과 金文起 증인은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른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분들이 모른다고 얘기했을까요?

○證人 金晃一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이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李在五委員 알겠습니다.

증인! 86년 그 당시는 5공이 기승을 부릴 때로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공으로 조작하고 민주화운동을 했던 모든 부분을 용공으로 몰아서 탄압할 때입니다.

그럴 때 선량한 학생들을 희생시키면서 본인이 이적물을 만들어서 뿌리고 또 본인이 갖다 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 증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요?

○證人 金晃一 예, 잘못되었습니다.

○李在五委員 金文起 증인!

제가 오전에 얘기했지만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의 학원비리입니다. 학원의 설립자라든지 학원의 교주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선량한 학생들을 용공으로 몰아서까지 학교를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지요?

○證人 金文起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李在五委員 좋습니다.

증인! 오전에 증인은 金晁一 증인에게 100만원 준 일이 없다고 그랬지요?

○證人 金文起 없다고 그랬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했지요?

○證人 金文起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좋습니다.

76년도에 金晁一 증인을 누가 학교에 채용했습니까?

○證人 金文起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金淵東 사무처장이 채용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하도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李在五委員 좋습니다.

그 당시의 안기부 원주분실장 신 조정관을 아십니까?

○證人 金文起 모릅니다.

○李在五委員 증인!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證人 金文起 저는 지금 현재 어느 사람이 신 조정관인지 모릅니다.

○李在五委員 저는 증인이 정치인이었고 지금도 모당의 지구당위원장인 것을 알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선배의원이었다고 하는 것을, 더구나 3선의원이었다는 것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안이 다릅니다. 더구나 본인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군사정권 하에서 10년 반을 감옥에서 산 사람입니다. 위증하면 안 됩니다.

○證人 金文起 위증할 수 없습니다.

○李在五委員 그 당시에 상지대학교 이사장을 하면서 막강한 대학의 실력자가 그 당시 안기부 원주분실장을 모른다는 것이 납득이 갑니까? 신 조정관이라는 사람 아세요?

○證人 金文起 신 조정관이 분실장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李在五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분실장은 알아요?

○證人 金文起 지나간 사람은 어느 때 분실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실장은 다 압니다.

○李在五委員 金晁一씨를 채용할 당시의 안기부 원주분실장을 알고 있습니까?

○證人 金文起 그때는 누구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李在五委員 어쨌든 증인은 그 지역 대학의 총수로서 그 지역의 안기부 파견관이나 안기부 분실장이 내려오면 인사차라도 가끔 술자리를 하고 무슨 사안이 있으면 가끔 만나서 한잔씩 하지요?

○證人 金文起 술자리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만나서 대화는 합니다.

○李在五委員 그런 일이 있지요?

○證人 金文起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좋습니다.

지금 증인은 金晁一 증인이 이야기한 것을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증인이 당시에 춘천지방방위원 원주지원장 이창훈 판사에게 보낸 진정서가 있습니다.

그 진정서에서 증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공조작 의혹사건의 전말, 이 역시 허위사실의 적시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쪽 내려가서 ‘김학기 교수가 문제의 전단을 주어서 학장실에서 비상교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던 朴在佑 학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학장은 즉시 경찰당국에 신고함과 동시에 충격적인 동 문제를 비상교무회의에 부의, 긴급논의한 결과 사건현장을 확보하는 것이 긴급히 취해야 할 조치라는 데 의견일치를 보고……’

이렇게 그 당시 金文起 증인이 판사에게 이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는 진정서를 보낸 일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본이 여기 있습니다. 판사에게 보낸 진정서 복사본을 본인이 갖고 있습니다.

○證人 金文起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억이 안 납니다.

○李在五委員 발신이 金文起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 낸 적이 없습니까?

○證人 金文起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李在五委員 진짜 없습니까?

○證人 金文起 기억이 안 납니다.

○李在五委員 좋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당시에 경찰청 대공부장이었던 김효은 부장의 육성녹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틀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咸鍾漢 좋습니다.

○李在五委員 이 녹음내용에는 김효은 그 당시 부장이 학교측에서 왜 그 당시에 사건을 유야무야 했냐라고 하니까 여기에 누구 누구 이야기를 하면서 金文起 등 그런 것이 나옵니다.

(20시28분 녹음테이프 재생개시)

(20시30분 녹음테이프 재생종료)

○金貞淑委員 위원장님, 듣는 것은 뒤로 하고 시

간 다 가요. 빨리 질의합니다. 나중에 증거로 제시하고 지금 30분을 했어요.

○李在五委員 좋습니다. 증거로 제시하고 이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당시에 김효은 부장이 김문기 씨 등 아는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건에 김문기 증인이 판사한테 진정서도 보내고 경찰청 상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로비도 하고 더구나 이 사건의 지휘선상에 있던 상지대 박재우 학장, 도경 경찰국장 그 당시의 치안본부장이 다 김문기 증인과 대학동창들입니다. 이러한 개연성은 충분히 이 사건에 대해서 김문기 증인이 사전사후에 다 알고 조치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金文起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잘못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李在五委員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황일 증인, 지금 김문기 증인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金晃一 그것은 주장하시는 대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李在五委員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황일 증인이 양심선언에서 폭로한 86년도 상지대 용공조작 사건은 틀림없이 조작사건으로 증인과 황재복, 김연동, 박재우 등이 모의를 해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지요?

○證人 金晃一 맞습니다.

○李在五委員 그 배후에 김문기 증인이 있습니까?

○證人 金晃一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李在五委員 이상입니다.

○薛勳委員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김황일 증인은 100만원을 분명히 김문기씨한테 받았다고 하고, 틀림없지요?

○證人 金晃一 예.

○薛勳委員 정확하게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까지 얘기했으니까 됐고 김문기 증인은 준 적이 없지요?

○證人 金文起 저는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황일의 이야기는 제가 가끔 용돈을 준 적이 있는데 사용 용도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은 나는 잘 모릅니다. 늘 같이 있는 사람들이라 제가 용돈을

주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薛勳委員 알겠습니다. 김황일 증인은 김문기 당시 이사장한테 용돈을 100만원씩 받은 적이 있습니까?

○證人 金晃一 그렇지 않습니다.

○薛勳委員 아니지요? 100만원은 굉장히 큰 돈이지요?

○證人 金晃一 예.

○薛勳委員 이것은 위증이 확실히 나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위증입니다. 한 분은 분명히 100만원을 받았다고 하고, 또 한 분은 100만원 준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문안도 김황일 증인이 작성했지요?

○證人 金晃一 예, 그렇습니다.

○薛勳委員 살포도 했지요?

○證人 金晃一 예, 그렇습니다.

○薛勳委員 그런데 이로 인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습니까?

○證人 金晃一 경찰에서 받았습니다.

○薛勳委員 그 뒤로는 여기에 대해서 처벌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지요?

○證人 金晃一 그렇습니다.

○薛勳委員 그런데 지금 와서 양심선언을 한 것은 지금은 처벌받아도 좋다 이런 각오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證人 金晃一 예.

○薛勳委員 그러면 문안도 작성했고 본인이 살포도 했고 그 결과로서 돈 100만원을 김문기씨한테 받았고 여기까지가 본인이 이야기한 내용인데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 없지요?

○證人 金晃一 예.

○薛勳委員 알겠습니다. 김문기씨는 분명히 100만원을 준 적도 없고 가끔 용돈은 주었는데 그런 적 없다 이것이지요?

○證人 金文起 예, 그렇습니다.

○薛勳委員 알겠습니다. 고발합니다. 위증이 딱 떨어지네.

○李壽仁委員 지금 증인 대질신문 결과 상치하는 두 주장이 있고 이것이 당시 수사를 해서 학교 당국이 저질렀다는 사실을 안 수사당국이 수사축소를 한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사실은 국정조사감입니다. 지금薛勳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교육이 국가백년대계라는 고전적 명제는 언제나 진리지만 오늘날처럼 절박하게 다가온 적은 없습

니다.

정보혁명시대라고 하지만 국민의 생활정보화 또 더 나아가서는 민족의 새로운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밖에 담당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개혁은 물 건너가려 하고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그 자체가 붕괴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러니까 침통하기 짝이 없는 이 시기에 구시대의 낡디낡은 용공조작사건이 교육의 현장에서 더군다나 스승이 제자를 그렇게 만드는 작태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구시대의 낡디낡은 교육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교육적 지평을 반드시 열어야 할 이 마당에 이것은 교육위원회 명예를 위해서도 또 우리 교육위원회의 국민적 신뢰를 위해서도 이 용공조작사건의 관계자들을 교육위원회의 이름으로 반드시 고발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주실 것을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선배·후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하고 위원장께서도 이 문제를 안건으로 성실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입니다.

○**朴範珍委員**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오늘 하루로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학교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빨갱이로 용공조작하는 것은 큰 범죄입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진상을 더 가려내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어떨지 그것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두 분의 증언을 듣고 결론을 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녹음테이프도 다시 검증을 해보고 테이프에 말씀하신 분들을 다시 만나서 확인을 해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3당 간사들 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좀더 진지하게 조사를 한 후 국정조사까지 해야 된다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薛勳委員** 조금 전에 두 증인이 명백히 서로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분명히 위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두 분을 다 위증으로 일단 고발을 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

금 분명히 위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물쭈물 한다면 뒤로 넘긴다면 국회의 권위를 도저히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위증여부를 분명히 검찰당국에서 가려주도록 고발을 해놓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에 대해서 고발조치할 것을 동의합니다.

○**朴承國委員 朴承國**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위증도 고발해야 되고 불출석도 고발해야 되고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순간에 어느 누구 하나를 고발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 3일간 다 하면 18일날 교육부 감사를 합니다. 그때 모든 것을 합쳐서 해야지 매일매일 고발만 하고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건, 또 불출석 건 이런 것을 전부 합쳐서 18일날 함께 처리하도록 합시다.

○**薛勳委員** 그 의견도 좋습니다마는 우선 당장 명백히 둘 중에 하나가 위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음에 논의하자면……

○**朴承國委員** 속기하고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薛勳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처리해야 할 문제는 지금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고발을 결의해놓고 다음에 다 모아가지고 이것은 빠질 수 없고 하는 것을 정리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논의의 여지없이 고발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고발결의가 왜 그렇게 힘든니까? 여기에서 결의하면 되지요. 두 사람 다 고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없으니까……

○**朴承國委員** 지금 두 사람을 위증고발하는 것이 안됩니다. 어느 누구 하나가 위증했다는 것을 확인해서 그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지 어떻게 두 사람을 다 고발합니까?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되고 18일날 딱 해서, 위증범이라는 것은 위증자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3당 간사한테 맡겨주시고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일괄해서 질의를 하신 다음에 답변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시간은 각각 5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李壽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壽仁委員 李壽仁** 위원입니다.

장관님이 하셨던 발언, 그리고 사립학교의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에 교육부에서 장관께서 이상희 이사장, 김찬국 총장, 김문기 전 이사장을 불러놓고 '사립대학에는 주인이 있어야 한다. 주인은 바로 설립자이므로 설립자가 맡아서 운영해야 된다'라는 뜻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지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

이상희 이사장님과 김찬국 총장 그리고 김문기 증인님이 이 점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8일에 임시이사진 파견대학 이사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총장 직선은 필요없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가 이 점을 확인해 주십시오. 장관님의 이 발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립학교법에 대한 근본적인 무지의 소치이고 또 그것은 불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취임 뒤에 사립학교정책의 토대가 되는 사립학교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설립자는 법 주체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학교법인 교원이 있을 뿐입니다. 사립학교법의 어느 조항에도 설립자가 사립대학의 주인이라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 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文起 증인은 교육부를 상대로 이사장 취임 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서울고법에 이어서 대법원까지 지난 6월17일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학교법인은 사유물이 아니라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의 자동적 중임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철저히 법에 입각해 행동해야 할 일국의 장관님께서 설립자, 주인, 운운하시면서 법에 배치되는 언동을 하심으로써 교육계를 아주 혼란시킨 것은 명백히 책임질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책임을 지실 것인지 이 점도 밝혀 주십시오.

전 법인 이사장의 법적 지위와 교육부장관의 역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金文起 증인이 엄청난 불법 부정을 저질러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법적으로 상지학원과 아무 관계가 없고 관선이사를 통해서 발전하고 있는 상지대에 분규를 조장하고 또 조장하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러한 분을 장관께서는 상지대의 한 주체로 설

정하고 지난 7월30일 강원도 방문시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사장·총장과의 3자 대화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 관선이사를 다시 파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민일보 99년7월30일자 신문입니다.

장관께서는 이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임시이사과 정이사는 선임방법만 다를 뿐 권리는 동일합니다. 교육부에서 선임한 상지학원 현 이사장의 권리와 역할을 교육부장관께서 스스로 부정하고 아무 법적 권한도 없는 金文起 증인과 현 이사장, 총장의 3자 대화를 강요한 듯한 사실 이 자체가 장관님의 선을 넘은 언동이고 또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장관과 金文起 증인의 회동 및 그 결과의 문제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더 철저히 밝혀주시고, 장관께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현 이사장과 총장 그리고 金文起 증인과 회동을 하게 되었는지, 장관님 자신이 발의한 것인지 아니면 부하 직원들의 건의에 의해서 인지, 본인이 발의했다고 할 경우에는 사립학교법도 모르는 셈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엄청난 파장이 있게 되지요. 그리고 비리재단과의 유착을 오해받기에 알맞습니다.

그리고 부하 직원들의 건의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면 선이, 하부선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하부선 어디까지인지 이것을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7월29일에 3자 회담결과가 신문에 나가 마자 청와대로부터 질책을 받고 그 경위를 문자 담당국장 등 부하직원이 제대로 보고를 하지 못해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29일 당시 대학업무를 총괄한 고등교육지원국장이 경문대 관련 뇌물수수로 직위해제된 김용현이 아닌지 묻습니다.

그리고 7월29일 상지대 관련 3자 회동과 관련있는 주무 사무관, 과장, 국장의 명단을 밝히고 기안자가 누구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뇌물수수죄를 저지른 김용현을 3개월뒤에 돌려 주었다는 단 한 하나의 이유만으로 파면하지 않고 의원면직시킨 까닭이 무엇인지 그것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래대학은 경일건설이 그



재단을 산다 그래서 아까 미래대 관계자가 우리는 꼭 이사진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제가 들은 소문이 상당히 사실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건설회사 총수가 자기 아들 둘, 그 중에는 부도를 낸 사람도 있습니다. 교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위 이렇게 셋이 들어 가서 실력자 행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장관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래대학을 장악하고 대구대학의 새로운 이사장까지 교육부와 교섭해서 장악하려 한다 라는 그런 소문이 상당히 퍼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을 확인해 주시고 발언시간이 다 됐지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대구미래대는 즉각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薛 勳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薛 勳委員 장관께서 과거의 일들이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용을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지학원의 金文起씨가 설립자나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본위원이 결론부터 말한다면 전혀 설립자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지학원은 독립된 형태의 신설된 법인이 아니고 청암학원이라는 본래 법인의 명칭을 바꾼 법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법인 등기부상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金文起씨는 1973년10월28일 청암학원의 임시이사로 선임됐고 1973년11월3일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74년3월8일 학교법인의 명칭을 청암학원에서 상지학원으로 변경했고 74년3월10일 상지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지학원의 본뿌리니 청암학원이고 청암학원의 설립자는 원홍목씨가 설립자입니다. 따라서 상지학원의 설립자는 원홍목씨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金文起씨는 청암학원에서 명칭이 변경된 상지학원의 초대 이사장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불구하고 상지학원의 설립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입니다. 따라서 그에게 학교를 넘긴 설립자를 욕되게 하는 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설립자 문

제를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여러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金文起씨는 당시 강원도 교육위원회 현 교육청입니다. 교육감이었던 김수근씨를 통해 가지고 청암학원 설립자인 원홍목씨로부터 법인을 인수한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인수과정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993년3월27일 강원도민일보에 난 청암학원 설립자 원홍목씨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지난 72년 유신정권 당시 문교부장관이었던 閔寬植씨가 강원도교육감 김수근씨를 통해 金文起씨에게 무상양도 하라고 압력을 가해 와 당시 30억원에 달하는 원주대를…… 그 때는 원주대입니다. 돈 한푼 받지 않고 金文起씨에게 빼앗겼다 라고 93년 강원도민일보에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金文起씨 재산 기부의 허구성을 말해 보겠습니다.

상정추, 상정추는 金文起씨를 지지하는 단체입니다. 상정추가 주장하는 金文起씨의 기부내역을 보면 1974년에 상지대학 설립 당시에 우산동 660번지 등 총 6만2,092평을 기부했고 1989년 종합대학 승격시에 우산동 663의 1번지 등 2만9,416평을 기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법인 소유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동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金文起씨가 기부를 했다면 등기부 등본상에 '증여' 또는 '기부'라고 표기되어 있어야 함에도 등기부 등본상에는 2필지만 증여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나머지는 매매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2필지는 쓸모가 별로 없는 땅입니다. 이 땅은 증여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金文起씨가 기부했다고 주장하는 우산동 660번지의 경우에 동주장에 따르면 1973년6월10일 金文起씨가 매입하고 이를 6개월뒤인 1973년12월7일에 법인 이전 등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월에 金文起씨가 매입해 가지고 12월에 법인으로 이전 등기했다면 당연히 증여 또는 기부라고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말해서 金文起씨가 6월에 매입한 토지를 12월에 법인이 金文起씨로부터 산 것입니다. 매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동 주장이 사실이라면 분명히 기부했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토지는 증여라고 표기되어 있

고 어떤 토지는 왜 매매라고 되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金文起씨가 증여하지 않고 매매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땅은 증여가 되어 있고 제대로 가치가 나가는 땅은 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金文起씨가 재산을 기부했다는 이야기의 허구성입니다.

따라서 金文起씨가 매입했다는 증거자료를 확실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매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증거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를 테면 증거자료로는 매매계약서, 그리고 자금출처,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법인에 기부했다는 증빙자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법인에 기부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하나도 없습니다. 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낼 것입니까?

이상 사실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다음은 朴承國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承國委員 朴承國 위원입니다.

오늘 3개 대학과 앞으로 남은 6개 대학에 대한 자료를 전부 검토를 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대학의 분류라는 것은 재단자금, 교비유용·횡령 이런 건이 있고 그 다음에 교수채용의 비리라든가 입학비리 학생·교수협의회·재단·총장간 불화, 이 네가지가 모든 학교의 분류의 썩입니다. 이 네가지만 없다면 분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학법을 3일간 읽어 봤습니다. 이 네가지는 교육부가 법만 철두철미하게 지킨다면 하나도 해결 안될 것이 없습니다. 단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제도의 미비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법대로 좀 처리해 주시고 이 법대로 처리를 안하시고 감사가 왔다 갔다 또 누가 대학국장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자꾸 이상한 일만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나 학생들이 재단의 비리때문에 본연의 임무를 두고 분류를 해서 규탄하는 집회를 하는 것은 말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교수는 연구하고 학생을 가르치면 됩니다. 학생은 열심히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각종의 사건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업을 희생하고 연구를 희생한다는 것은 이 나라의 큰 손실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수협의회라는 것이 임의단체인데 이것이 법제화되든 교무위원회가 법제화가 되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중심이 돼서 자율적으로 학교가 해결하는 방법을 주어야 되고, 또 총장 선출제도도 분명히 해 주어야 됩니다. 법제도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어떤 데는 총장을 사학재단이 법에 따라서 처리하는가 하면 어떤 데는 교수협의회에서 선출을 해야 되고…… 이것이 한 나라 안에서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 또 분류를 했을 때 분류에 가담하는 교수나 학생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과 교수가 분류를 발견하면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교육부에 알리면 되지 그분들이 이것때문에 수업을 안하고 떠들어서는 아무 이득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다음은 金貞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貞淑委員 아침에 제가 잠깐 교육부에게 언급을 해 드렸습시다마는 상지대학은 지금 학생들…… 용공으로 조작된 사건이 나타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이라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지요. 하루빨리 교육부는 신속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도 수집하시고 그 때 당시의 수사기록이나 경찰청같은 데에 협조를 하셔서 이런 모든 것들이 공개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자체조사를 하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국회에서도 후속조치가 있겠습시다마는 교육부가 어디까지나 적극적으로 주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미래大 문제는 제가 잠깐 없어서 잘 모르겠습시다마는 전해 들은 얘기로는 모두 사이 좋게 합의해서 잘 하신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교육부는 사립대학 분류가 있는 곳에 자체 해결이라고만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교육부가 좀 관여를 하셔서…… 그것은 간섭이 아니라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또 원래 학교를 설립하고 많은 돈을 투자한 前 이사장이랄지 이런 분들의 의견도 존중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문대학교 문제는 본위원회도 흥분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학교를 대여섯개씩 가지고 있고 3년 동안 4개 대학과 1개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이 정도가 되려면 교육부와 안 짜고는 안 됩니다. 교육부에서 도와주는 세력이 강하게 있고 그것 말고도 플러스 뒤에서 봐주는 비호세력이 없이는 이렇게 한꺼번에, 일평생 대학 하나 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갑자기 할 수 있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의혹이 있다고 말을 듣고 이러시는데 지금 교육부의 대학정책이 갈팡질팡합니다.

외대 같은 데는 조금 문제가 생기려고 하니까 임시이사를 파견해 가지고 난리가 났고 서원대학 이랄지 청주대학이랄지 이런 데는 학교가 난리가 나고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수업을 못하고 국회에 와서 작년 내내 여기에 와서도 했고 해도 지금까지도 임시이사를 안 보낸 대학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러니까 정책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대학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사학분류가 난 모든 1차적인 책임은 교육부에 있습니다.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라 하는 것은 책임회피 하겠다는 것이고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사학에 자율성을 주고 대폭 사학을 좋은 방향으로 잘 지도를 해서 이런 분류가 안 나면 모르겠지만 나 있는 현재까지의 분류사태는 본위원회의 입장에서는 교육부가 1차적인 책임은 있다. 교육부가 개입하지 않고는 어떻게 3년 동안에 4개 대학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상상이 안 가는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 그 증거로 경문대학과 관련해서 모영기씨도 나타나 있고 김용현씨도 나타나 있는데 이런 분들 이런 사건이 난 뒤에도 경문대학은 계속해서 학교를 만들었어요. 뇌물수수사건이 났는데도……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교육부가 반성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경문대학은 임시이사 파견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김용현씨 얘기도 나왔는데 아까 李壽仁 위원님 질의 중에도 나타났습니다마는 이

것은 파면감입니다.

어떻게 교육부 직원이 이렇게 투명한 공무원이 되자고 제2건국을 한다고 이러는데 이렇게 지금도 관련되어 있는 부패공무원을 의원면직 정도로 한다는 것 이것은 좀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咸鍾漢 다음은 申樂均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樂均委員 저는 경문대와 관련해서 교육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상지대 질의시간에 “대학에 주인이라는 개념은 없으며 따라서 사고 파는 대상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경문대의 경우 沈奎燮 전 이사장과 全載旭 현 이사장 사이에 양도·양수 계약까지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위반이 명백해 졌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沈 전 이사장이 “내가 대학을 팔았다.” 라는 그 발언에 대한 사실 확인도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오전에 安會鎬 증인은 ‘全載旭 이사장은 이제 손을 떼었다. 이사가 대부분 퇴진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이 이사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金貞淑 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원하는 답의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경문대의 실질적인 운영권자인 全載旭 이사장이 지난 81년 이후 5개의 대학과 1개의 고등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개의 대학에 대한 인가를 내놓았고 이중 북서울대학교는 경북대학의 교비 유용까지 드러나서 인가후 2개월만에 인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쏘이사는 86년부터 2년에 1개씩 학교를 세우거나 인수한 결론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쏘이사는 강원도 원주의 문막 대학 설립인가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인가를 하였기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지 그것을 자세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다음은 金許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許男委員 金許男 위원입니다.

오늘 세 대학을 이렇게 질의도 하고 서로 이야

기해 보았습니다.

대개 비슷합니다. 이 문제를 잘못 따져 가지고 시끄럽게 해서 서로 싸움 붙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랴'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될 수 있으면 학교를 살리는 방향으로, 교육위원회가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판결문을 내는 곳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학교를 잘 이끌어나가게 하느냐 정상화 시키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훌륭한 판사의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어린애 하나를 두고 서로 부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칼을 들고 "절반으로 잘라서 나누어 가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은 "그냥 잘라라" 라고 하고 한 사람은 "제발 나는 포기할 테니까 아이를 자르지 마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느껴 가지고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아서 그런 판결을 한 예가 있는데 이번에 그것을 참고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쌍방을 해 가지고 정말 고집센 사람은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 고집센 쪽을 쳐 버리고 정말 타협하려고 애를 쓰는 쪽에다가 학교를 맡겨주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겠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감사를 다니면서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음성도 높였습니다.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교육을 바르게 해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권위, 권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학교가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되어서 우리 교육을 바로 서게 하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在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五委員 상지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朴正元 교수에게 이것은 제 신상발언과 결들여서 2분만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상지대학 학생들이 제 지구당에 와서 데모를 하고 거기에 유인물 두 종을 뿌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證人 朴正元 예, 상지대학 뿐만 아니라 교육단체가 연합해서……

○李在五委員 그런데 상지대학 버스가 있었습니까.

○證人 朴正元 상지대학에서도 왔습니다.

○李在五委員 학생들은 주로 상지대학 학생들이입니다.

46개 단체가 공동으로 문건을 냈지요?

○證人 朴正元 예.

○李在五委員 그 46개 단체 중에 원주에 있는 단체가 26개입니다. 이 46개 단체 대표들이 다 모여서 결의를 했습니까?

○證人 朴正元 원주를 대표하는 단체 하나와 나머지는……

○李在五委員 46개 단체 대표자들이 모여서 결의를 했습니까?

○證人 朴正元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러면 원주에 있는 단체가 26개인 데 그 중에 황성군 농민회, 한국공항공단 원주지부 노조, 데이콤 강원지부 노조, 원주의료원 노조, 한국통신 원주통신망 노조 몇개만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단체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단체 대표들도 참석했습니까?

○證人 朴正元 그것은 민주노총, 아마 원주시 지부에 속해 있는 단체 같은데요. 자기들의 대표단체를 통해서 참여한 것입니다.

○李在五委員 알겠습니다.

저도 이런 운동의 선배로서 말하는데 모든 운동의 생명은 도덕성과 정직성입니다. 이해하시지요?

그날 뿌린 유인물의 내용은, 물론 저 개인이 들어 있는 유인물 '한국 교육 망치는 李在五를 이대로 두고 보아야 하는가' 하는 유인물이 저의 전지역구에 뿌려졌는데 지금도 제가 한국교육을 망친다고 보십니까?

○證人 朴正元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 많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李在五委員 이것 하나만 있으면 제가 이 말을 안 하는데 상지대학 학생들이 전학협에 관계되어 있습니까?

○證人 朴正元 전학협에 가입해 있는 단과대학도 한두개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그 학생들이 내 지구당에 해를 가 했는데 각종 유인물을 뿌리고 지구당 정문에 화염병을 던지고 페인트를 던지고 온갖 욕설을 써놓은 사진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우리도 데모 해 보았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전혀 제 개인이나 우리 당과 관계없는 'BK21사업 입법반대, 교육발전 5개년계획

안 철회, 반민중적 국회의원 李在五是 즉각 물러가라.' 본인과 우리 당은 BK21 반대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證人 朴正元 예.

○李在五委員 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아직 법안으로 상정 안된 것 알고 있지요?

○證人 朴正元 예.

○李在五委員 그런데 우리 지구당에 와서 화염병을 던지고 페인트로 온갖 옥설을 다 써놓고 전 사무실을 못쓰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면 도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證人 朴正元 학생들이 잘못 알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李在五委員 알겠습니다.

장관님, 상지대학 문제와 대구대학 문제의 처리는 전적으로 교육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교육부에서 상지대학 문제와 대구대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경문대학 문제 이것은 장관님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한 사람이 부부간에 7개 학교에 하나는 이사장, 하나는 학장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물론 장관이 허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신다고 보십니까, 납득이 안 가지요?

○教育部長官 金德中 예.

○李在五委員 그런데 그 중에 경문대, 경동대, 문막대 물론 문막대는 허가만 났고 실제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3개 대학을 공교롭게도, 실무당사자가 장오현이라는 사람이 교육부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 차관과 장관은 같은 사람인데 이런 것으로 볼 때 교육부와 설립자와의 유착설에 대해서 근거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다음 朴範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範珍委員 朴範珍 위원입니다.

오늘 3개 대학을 우리가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두 학교 상지대학교하고 대구대학의 경우는 임시이사가 나가 있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결과 두 대학의 경우에는 이번 개정된 사립학교법 때문에 학교에 상당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립학교법 개정이 구재단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임시이사 교체를 전제로 한 것도 아닙니다.

이 법 개정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임시이사 임기를 1년으로 하되 현재 임시이사의 경우에는 공포된 날로부터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하자 경과조치를 두자 이렇게 합의가 되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전체 상임위에 넘어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임시이사의 기간이 너무 짧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우리가 정회를 하고 재론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늘리고 대신 현 이사의 경우에는 일단 연말로 임기를 끝내고 내년도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예요. 그러면 차라리 공포된 날로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임기가 몇 달 더 늘어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법개정이 된 경위와 취지를 잘 살려서 일단 현재 임시이사가 나가 있는 현재 이사의 경우에는 내년에 당연히 전원 재임용한다는 것을 교육부장관이 천명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시이사가 나가 있는 학교는 혼선을 계속 빚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장관의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분규대학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분규대학에 전부다 교육부 공무원하고 유착관계가 다 드러나고 있어요. 참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오래된 이야기지만 93년에 경동대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학교정책실장인 모영기 전 실장이 8,000만원 받았고 또 경문대학과 관련해서는 1,000만원을 받았고 고등교육국장이 받고 또 대구대학 문제와 관련해서는 감사관 또 대학지원국장 또 서기관 등등해서 5명이나 관련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분규대학만을 다시 한번 교육부 밖의 이사들이 참여하는 무슨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 '사학분쟁조정 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설치해서 거기 심의를 거쳐서 분규대학 문제를 처리하도록 장관의 자문기구로 두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문대학교의 양도 양수과정을 보면

이것은 명백하게 불법행위입니다. 과거의 오랜 관행에서라지만 돈을 주고 사고 판 것이예요. 이것은 현행법 위반으로 법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장관의 입장이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咸錫漢 다음은 李源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馥委員 李源馥 위원입니다.

오늘 이 제한된 시간에 3개 대학 또 내일 3개 대학 또 모레 3개 대학 해서 9개 대학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이 9개 대학의 분규를 우리 국회가 이 제한된 시간에 제대로 정말 조사해서 어느 한쪽 편이 맞고 틀리고 이것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사법부에서 어떤 판정을 내려 주어도 자기한테 맞지 않으면 승복을 안할 분들이 많을텐데 하물며 국회가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루어서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으로 결정 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승복할 리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은 우선 우리나라 사학분규의 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 노출시켜 보자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상당한 의도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상이 노출되면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가에 대한 어떤 구조의 틀이 잡힐 것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 구조의 틀은 바로 법적 구조 또는 행정적 구조의 틀이 되겠습니다. 법적, 행정적 구조의 틀의 원인을 분명하게 저희가 확인하게 됨으로써 다시 말하면 다음 바로 사립학교법과 교육법 여러 관계법령을 개정하는데 저희가 참고하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확인하고 있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의 잘못 가는 대학들의 이 양태는 한마디로 복마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학경영을 장사의 개념으로, 사학경영을 그야말로 부동산 투기나 부정한 부정축재의 수단으로 운영해온 아주 오래된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끊임없이 이제 와서

는 어떻게 사학경영의 투명성을 정말 제도화하느냐 이 점을 찾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보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계속 듣겠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한 장관의 생각을 우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실제 현상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사실상 매매가 밑으로부터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온 대학만이 아니라 사실은 과거에 여기 오지 않은 많은 대학들이 일반적 관행으로 양도·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법적 행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적 관행으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부의 고위 관료가 오히려 알선수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커미션까지 받아먹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커미션 받아먹는 일을 마냥 우리가 닦아가기 어려운 것이 그렇게 안하면 대학이 수습이 안되는 것입니다. 어쨌건 그런 일들이 발생할 정도의 이 제도적 모순. 이쯤 되면 이제는 설립자에 준해서는, 설립자본에 준해서는 오히려 매매를 양성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왜 이것을 거꾸로 묶어놓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드는지 저는 그것이 법규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본부할 적에도 상세하게 하겠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양성화 제도에 대한 검토를 이제는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설립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양도·양수를 해서는 사실상 횡령 사기에 해당합니다. 설립자 이외에는 대학 재산을 한푼도 들이지 않고 그야말로 설립자 외에는 대학재산을 자기는 하나도 낸 것 없이 대학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넘림넘림 거리면서 다 넘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류 비주류 갈라져 가지고 전부 말하자면 사실은 다른 것을 포장할 뿐이지 사실은 이 대학의 재산권을 놓고 재산운영권을 놓고 재산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스러기로 생겨나는 많은 이권을 놓고서 사실은 주류와 비주류가 싸우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설립자들은 설립자의 권한과 명예를 분명히 해주고 설립자는 분명히 설립하는 의도 자체가 설립해서 사회에 환원하고 학교에 준다고 하면 그 명예가 최대한 존중되게끔 하는 법적 장치, 행정장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설립자가 경우에 따라서 학교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다 몸이 안

좋아서 어떻게 뭐 안좋아서 어떻게 하면 저는 설립자가 다음 사람들에게 인수인계하는 것을 양도·양수하는 것을 양성화하는데 그 양도·양수에 있어서의 합법적 금액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마는 정부 고시가격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그 사람이 얼마를 투자했는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인수인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나머지 분은 대개 보니까 지금도 보면 설립자가 투자한 것은 예를 들면 300억이고 사회적 가치는 7,000억쯤 된다 하면 나머지는 전부 동창회 몫이고 학교교수들 몫이고 학생들 몫이고 사회 몫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양도·양수를 가능하게 하는 공시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점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답변하기가 아직은 이르긴 하겠습니까마는 장관께서는 심사숙고해서 가지고 연구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회 구성을 놓고도 각 대학의 각 부처들간에 설립자도 설립자 권한이 있고 이사장은 이사장 권한이 있고 교수단은 교수단 권한이 있고 학생단, 동문단, 지역구민 다 나름의 지분과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학교들은 평온하게 가는데 이 힘의 균형이 깨지는 학교들은 꼭 분규가 발생합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높이거나 전략적으로 독재적으로 끌고 나갔을 때 분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학의 이사회에 대한 구성에서부터 이런 힘의 균형이 맞아질 수 있는 이사회 구성에 대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교육부의 생각 그것도 지금 말하면 너무 졸속적으로 같 것 같으니까 연구를 이제부터 제대로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에 운영권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것은 감사권입니다.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이 감사권은 어찌 보면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이 갖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한테 감사권을 준다는 것은 학생들이 잠시 있다가 떠나기 때문에 따라서 학생편과 이사회편의 가장 중립지역에 있는 교수들한테 감사권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스타디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어진 제한시간

이 있다고 해서 이 정도 하겠습니까마는 설립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학교재산에 눈독 들이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원칙이 정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전부 사실은 여기저기 눈독들이고 남의 약점 잡고 서로 머리 맞대고 싸우고 사실은 그런 형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설립자에 대해서만큼은 그 명예가 사회적으로 명확하게 그야말로 회복되고 기여하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 사회에 대학을 설립하고 돈 내가면서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교육부는 분명한 입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명확한 얘기보다는 어설피게라도 교육부가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咸鍾漢 감사합니다.

安相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相洙委員 安相洙 위원입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오늘 맨 처음 질의자로 나서고 맨 마지막에 질의자로 나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들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서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저는 사실 오늘 오전에 동료위원중의 한 분의 발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열린 목적이 상지대의 운영권을 김모씨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열렸다는 그런 발언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위원이 된지는 며칠 안되었습니다마는 매일 아침에 국회에 출근하면서 정말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국가를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옵니다.

저는 金文起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일면식도 없고 상지대뿐 아니라 여기 참석하고 있는 모든 대학의 어느 누구와도, 계파와도 인간적 관계가 물론 없고 방에 찾아오는 분들도 있었던 모양인데 자료만 다 받고 저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오로지 우리 사학의 분규가 빨리 해소되고 그래서 우리 사학이 발전될 수 있도록 걱정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배위원님들도 그러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아까 말씀하신 위원께서도 잠깐 흥분해서 요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까마는 하여간 단어선택을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朴正元 대표한테 좀 묻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그런 요지의 질의가 있었습니까마는 현재도 지난번에 통과된 우리 사립학교법안이

개악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證人 朴正元 그렇습니다.

○安相洙委員 어떤 조항이 그러시다고 그랬지요?

○證人 朴正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저는 최초로 제출되었던 사립학교에 공익이사가 반드시 파견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사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단의 전횡이나 비리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조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安相洙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임기 2년 조항도 마찬가지로입니까?

○證人 朴正元 그 부분은 해석에 따라서 물론 조금 달리 해석할 수는 있겠다고 봅니다마는 저는 어쨌든 2년만 있으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 바로 그런 것들이……

○安相洙委員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회 교육위원들이 반개혁적으로 보이십니까?

○證人 朴正元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安相洙委員 그러면 5적, 7적이라는 표현이 적당합니까?

○證人 朴正元 그 부분을 제가 혼자서 답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교육단체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安相洙委員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되고 자기 혹은 자파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보편선·공동선을 위해서 고민하고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면 선이고 다르면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개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냉철한 지성과 따뜻한 감성을 가르쳐야 하는 교수의 신분으로는 더욱 써서는 안 되는 단어들이고 또한 적절치 못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교수님들이 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장관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저도 학교분류에 공무원들이, 일부이기는 하겠지만 다라는 그렇게 다 관여가 되었다는 데 대해서 정말 실망과 저 자신 모멸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무언가 분위기를 일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서 어디 다니겠습니까? 정말 교육부가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12월말에 임기가 끝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아마 앞으로 사학분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점은 결국 이사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이 자리에서도 간단하게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金日柱 위원 말씀하십시오.

○金日柱委員 金日柱입니다.

제가 아까 상지대학에 묻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묻지 못했습니다.

李相禧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처음 임시이사로 갔을 때 교수가 몇 명 있었습니까?

○證人 李相禧 한 150·60명 되었습니다.

○金日柱委員 이 중에 전에 있던 교수를 퇴출시킨 것이 현재까지 몇 명입니까?

○證人 李相禧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金日柱委員 그러면 전 교수협의회장을 하셨던 金燦鎬 교원징계위원장!

○證人 金燦鎬 예.

○金日柱委員 몇 명이 밀려나갔습니까?

○證人 金燦鎬 다섯 사람입니다.

○金日柱委員 그 중에 증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證人 金燦鎬 예, 저도 포함되었습니다.

○金日柱委員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3개 대학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대구대학의 朴鈇忻 총장님! 지금 계세요?

○證人 朴鈇忻 예.

○金日柱委員 그리고 金春一 교수협의회 회장, 그 다음에 張華煥 전 협의회장이 세 분에게 오늘 질의하면서 내가 굉장히 흐뭇해요. 그리고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수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내가 아주 뿌듯한데 총장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전 이사장의 큰 아드님이 아주 똑똑하다고, 자주 만나고 있다고, 우리는 화합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가 끝난 다음에 총장님하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金春一 교수협의회장하고도 약속했어요. 그 다음에 張교수는 가장 불이익을 당한 사람인데 내가 가슴을 열어야 화합이 되겠다고 말했어요. 이래야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아까 모대학에 대해서 물으니까 못하겠습니다, 해본 일도 없습니다 그래요. 꼭 내가 지금부터 한 50년 전후 어떤 곳에 살던 생각이 나요. 극에서 극



으로 달리는 곳이에요.

나는 북에서 17살 때 단신 월남한 사람입니다. 무상몰수하고 무상분배하는 곳에 제가 살다 왔어요. 그 곳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주국까지 무너지고 말았어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에도 모순은 굉장히 많다, 그러나 인간을 철창 속에 가두고 하는 정치는 아니다……'

제가 1967년6월에 독일에 가서 있었던 일이 있는데 독일 자유학생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의 발포에 2명이 희생 당했어요. 그러나 학생들은 모두 학교에 돌아와서 뼈라를 만들어 가지고 전 독일지역에 뿌렸어요. 여론 들어 보니까 학생들이 옳았다, 그래서 학교로 다 쫓아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다는 아닙니다마는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최고 지성인들입니다. 시장 장사꾼들 이상의 발언들이 오고 가는데 목청 큰 사람이 제일입니까? 이 나라 교육의 앞날이 몹시 걱정됩니다. 뭐 하나 켄 것을 촌사람이 어디 가서 금은보화나 켄 것처럼 흥분하고 앉아 있어요. 저는 어떤 편에도 서고 싶지 않아요.

나는 모 대학의 재단이사서 7년2개월 동안 하면서 2년 동안 부패를 막으려다가 막지 못하고 사표를 2년 동안 가지고 다녀서 봉투가 다 달알았어요. 내가 그것을 내면서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얘기했어요. 교육은 하루 아침에 개혁이 안 됩니다. 李壽仁 위원도 요전에 말씀하대요. 시간이 걸려야 합니다.

내가 1986년2월27일에 사표내면서 그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소 고빠 길면 어느 발엔가 밟힐 날이 온다, 분명히 기억해라 그랬는데 92년에 터져 나옵니다.

5적이요, 7적이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는 이 나라의 교육을 담당할 자격이 미달입니다. 함량미달이에요. 세상에 자기들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 극렬세력들이 대한민국 전체 국민 중에 몇 %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편에 서지 않겠습니다. 누구를 옹호하지도 않습니다. 나도 빨갱이로 몰려서 투옥되었던 일이 있어요. 李承晚 대통령 하야시키고 자유당 청사 점령하고……

나는 아버지, 엄마 다 묻히고 형도 처형 당한 모습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쪽이 나아요.

내가 눈물이 나서…… 여러분이 무슨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까?

나는 다시 대구대학 朴총장님 그리고 金春一 교수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張華煥 교수님께 머리 숙입니다. 수년 동안 불이익을 당하고도 제가 가슴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화합에 앞장서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꼭 예수님을 만나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과거에 없었던 분을 처음 뵈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육계의 모범이 되세요. 제가 꼭 대구대학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감사합니다.

다음 金璿鏞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璿鏞委員 의사진행발언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한없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朴浚圭 의장께서 IPU총회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석을 하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교육부 감사를 하면서 제한적으로 분류대학 감사를 했는데 동료위원들께서 신문을 아주 심도있게 해주시고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서 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결짓는 질의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교육위원회 운영의 관행을 잘 모릅니다마는 3당 간사들이 의논을 하셔서 신문이 끝났으면 증인들은 퇴장시키고 교육부의 답변을 별도로 듣도록 정리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3당 간사들이 좀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교육부에 대해서 어려운 질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교육부 입장을 지금 당장 밝혀야 할 사항도 있고 상당히 숙고를 하셔서 답변할 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답변을 못할 사항들은 3당 간사들이 의논하셔서 18일 교육부 본부감사 때 받을 수 있도록 양해도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기본적으로 증인신문이 끝났으면 증인들은 돌려보내 주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부하고 국회하교의 문제입니다. 심도있게 질의하셨고 답변만 남아 있는데, 답변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민감하고 어려운 답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양해해서 18일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단, 이것은 내 입장에서의 얘기이고 이런 것들을 3당 간사들이 잠깐 의논해서 국회의 입장을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源龍委員 제가 설명을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협의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오늘 민감한 것들도 많은데 졸속적으로 답변하다가 졸속행정이 될 위험도 많고 해서 어차피 3개 대학씩 해서 9개 대학을 한 다음에 하루 이틀 쉬고 나서 교육부 본부 국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한 총정리는 교육부 본부 국감할 때 장관께서 답변을 주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 지금까지 어차피 같이 계셨으니까 일반적으로 교육부가 현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李壽仁委員 긴급동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부 본부 최종감사에서는 하도 할 얘기가 많아서 도저히 오늘 질의한 것을 그날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오늘 제가 질의한 것은 장관님께서 아주 성실하고 확실하게 하나도 빠지 말고 16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양해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李榮一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되 늦어도 10월16까지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내용 모두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日柱委員 증인을 우선 내보내자고요.

○李源龍委員 오늘 할 범위내에서는 오늘 하기로 한 것이니까……

○委員長 咸鍾漢 여러분! 증인들을 모두 내보내도 되겠습니까?

○李源龍委員 증인들이 있는 장소에서 지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어차피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은 아니니까 일반론적인 얘기는 오늘 하고……

○朴承國委員 위원장!

○委員長 咸鍾漢 말씀하세요.

○朴承國委員 지금 어떤 것은 오늘 하고 어떤 것은 18일에 한다, 아마 장관께서도 머리에 정리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진지하게 하려면 서면으로 받는 분은 서면으로 받고 18일날 또 받아야 되지 지금 사안을 둘로 나누어서 대답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8일날 하도록 합시다.

○金貞淑委員 저도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문제가 시간을 따지고 염려하는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학이 지금 이대로 존속해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대학교육까지도 황폐화되어 가지고 마구잡이로 분규가 일어나느냐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이것은 밤을 세워서 다 같이 앉아서 토론을 해도 모자란다고 봅니다. 오늘 저녁에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교육부는 정말 고민하고, 대답도 오늘도 하고 18일날 또 하고 우리도 계속해서 또 묻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마침 오늘 각 대학에서 오셔서 잘 되었고 생각해요. 같이 앉아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대화시간에 느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저는 저녁에 이런 상태에서 끝까지 하기를 적극 요구를 합니다.

○金許男委員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다 일리가 있지만 모든 것이 서로 의견이 안맞고 잘못되면, 우리끼리도 서로 의견이 다르면 표현할지도 모릅니다. 이것 이러다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안정되게 하자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관님이 이것은 별로 분규가 없을 말이다 하고 간단히 하고 그외의 중요한 말은 18일로 연기하는 방향에서 오늘은 끝마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을 여기 모셔놓고 우리끼리 아까처럼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는 것은 참 안 좋을 것 같아서 나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 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늦게까지 참석해 주신 증인들 감사합니다.

오늘 증인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에 닿는 것이 많았습니다. 내 손을 깨물면 내 손이 아픕니다. 남의 손을 깨물면 남의 손도 아프지 않겠습니까? 우리 너무 소아적인 것을 벗어나서 '모두가 나'라는 대아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오늘 어떻게 이렇게 한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티격태격 치고받고 싸우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한 발만 뒤로 물러서면 정말 오손도손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대학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

은데 다가오는 21세기가 어떤 세기입니까? 그 지식기반 사회에서 우리 대학이 살아남으려면 정말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서 죽기살기로 해도 따라갈 수 있을까말까 한데 왜 이렇게 갈갈이 찢어져가지고 큰 문제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한 발씩 물러나서서 서로 양보하시고 좀 넉넉하게 학교문제를 조금 거리를 두고 들여다보셔서 잘 풀여가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조금씩만 한 발씩만 뒤로 물러나면 정확한 내 얼굴이 보일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소중한 나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내가 교수가 되었고 당신을 통해서 내가 재단을 운영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소중한 의미를 준 너와 내가 이렇게 치고받고 싸운다는 자체가 어설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 소중하게 교육부도 거두고 교육위원회도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제도적인 장치로 보완을 해드릴 것은 보완해 드리고 격려해 드릴 것은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여시고 서로 힘을 합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늦은 시간이기에 귀가하실 분들은 모두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차관과 함께 교육부에 대한 질의·답변은 저희들끼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薛勳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薛勳委員 위원장하고 크게 다른 의견은 아닌데 그러나 전제는 조금 다릅니다. 양보라는 미덕은 어디에서나 다 좋습니다. 그러나 양보할 일과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양보를 강요할 상황이 아니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누가 거짓을 하고 있고 누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모두 다 양보하면 좋다, 그것은 이상론입니다. 말은 맞을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가시도록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실 분은 가시도록 하고 끝까지 남아서 들을 분들은 듣게 하고 그리고 장관 답변에 대해서는 아까 부의장 말씀대로 18일날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여기에서 모든 것을 결판내야 할 상황은 아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하기 때

문에 더 정확히 하려면 서면으로 하는 것도 좋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답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답변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고맙습니다. 李壽仁 위원 말씀하세요.

○李壽仁委員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회의 의사가 아님을 명백히 해주시면서 발언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원칙의 차이, 노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시적인 현상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의 누적적 결과물인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을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 교육계의 황폐화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 저의 25년간 경험에서 나오는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상당히 좋은 말씀 같지만 이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으나 위원장으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할 것은 명백하고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절대로 없다는 것이 저의 신념이니까 저도 저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위원장도 그런 얘기는 개인 의견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委員長 咸鍾漢 존경하는 李壽仁 위원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지껏 논의를 해서 위증이 밝혀질 때는 고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여러 증인들이 말씀하신 것 시시비비를 가려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풀여가기 위해서 이 자리 만든 것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되 들으면서 생각하기에 마치 막으로 증인들과 참관인들을 보내면서 느끼는 소회가 참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글픈 소회를 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위증관계는 간사들에게 위임을 해주셨기에 간사들이 협의를 해서 조사할 것은 조사해서 풀여가도록 하고 또 교육부에서 풀여주어야 할 문제는 교육부에서 정확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풀여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長官 金德中 오늘 앉아서 위원님들의 좋은 질의에 의해서 저도 공부할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차관께서 아마 조금 걱정이 되어서

기술적인 문제는 차관이 답변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할 것은 제가 답변하고 기술적인 문제나 과거와 관련된 문제로 제가 잘 모르는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차관이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金瑋鎬 위원 말씀하세요.

○**金瑋鎬委員** 교육부는 내가 이해 못할 부분들이 있어요. 장관께서 잘 모르시면 자료를 받아가지고 장관이 공식적으로 답변하세요. 차관한테 답변하게 하고 실장한테 답변하게 하고 잘 모르는 것은 밑으로 밀어버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자료를 받으셔서 가지고 장관이 소신있게 책임지고 답변하세요.

○**教育部長官 金德中** 그러시면 시간을 좀 주시면……

○**金瑋鎬委員** 답변하기 어렵고 민감한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 양해를 해주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 어려운 민감한 질의들이 많이 나왔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교육부의 입장을 정리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지금 대단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기술적으로 어찌고 어찌고 한 것은 밑에다 미루고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난 번부터 몇 번 이야기했는데……

○**教育部長官 金德中**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委員長 咸鍾漢** 장관께서는 장관께서 답변할 수 있는 것만 하시고 차관이 답변해야 될 민감한 사안은 18일날 정리를 해서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도 요구하셨으니까 서면답변과 18일날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장관의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日柱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李壽仁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민감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답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요. 잘 정리해야지 건성건성 답해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장관께서 준비하셔서 국감 마지막날 본부 답변 때 정말 소상히 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일 어디 외국여행을 떠납니까? 그러니까 건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金瑋鎬 부의장 말씀에 절대 동의하는데 오늘 여기서 마치고 그리고 답변요청한 위원들한테는 소상히 16일까지 서면답변을 드려가지고 18일날 부족한 부분을 더 질의할 수 있

도록 하고 정말 질의를 위한 질의가 아니라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제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칩시다.

○**金貞淑委員** 그런데요. 지금 교육부가 오늘 온종일 들었지만 장관님은 아까 식사중에 몰랐던 것을 많이 배웠다고 계속 그러시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여기 교육위원들이 하시는 말씀도 다 알아요. 무엇을 얻어왔는지도 다 아는데 알면서도 이 날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또 넘길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온종일 또 앞으로 3일 동안, 내일도 똑같이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모레도 이런 피로운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고도 서면으로 하자…… 18일날 저도 그날 할 것이 무지무지 많아요. 밤을 새워도 모자라요. 저는 서면 필요 없습니다. 답 다 알아요. 서면으로 한다면 교육부가 제게 무슨 답을 주려는지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실천을 안해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려면 철저히 하고 아니면 하지 말자고요.

○**委員長 咸鍾漢** 장관께서는 답변하세요.

○**金日柱委員** 내가 정식으로 동의했는데요.

○**委員長 咸鍾漢** 장관 답변만 듣자고요.

○**金貞淑委員** 저는 서면으로 원하지 않는 것이 누구는 그동안에 답을 몰라서 안 했습니까? 지금 보세요. 경문대학 같은 경우에 지금 양도·양수계약서 쓰면 실정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3일 동안이나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도 안 찾아냈어요. 그런데 그 계약서 사본이 온 위원실에 다 와 있어요. 누구나 다 달라면 줄 수 있는 계약서가 있는데도 감사할 때 안 찾아냈다고요.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감사예요.

○**委員長 咸鍾漢** 장관 답변하세요.

○**金許男委員**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마감날 다 모아가시고 답변하면 좋을 것이에요.

○**委員長 咸鍾漢** 그러지 마세요. 장관 답변하세요. 3당 간사 나가서 이야기하세요. 장관께서는 답변하실 수 있는 선까지 답변을 하세요.

○**朴範珍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서면답변을 원하는 위원은 서면답변을 받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직접 들겠다는 분은 들도록 해주세요.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왜 자꾸 회의진행을…… 회의진행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그래서 지금 답변을 하시라고 했어요.

○**李壽仁委員** 장관님께 말씀드립니다. 제 서면답

변은 정말 기능적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있는 대로  
해주세요. 여기 3당 간사가 합의해 가지고 고발여  
부 운운하는데 나는 단독으로라도 할 용의가 있어  
요.

그러니까 절대로 선불리 넘어 가지려 하지 마세  
요. 아시겠습니까? 진실하게 제가 속기록에 올려놓  
을 작정입니다.

○教育部長官 金德中 제가 성실하게 답변하겠습  
니다.

그러면 李壽仁 위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薛勳 위원님이 질문하신 金文起 이사  
장이 설립자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지학원은 62년3월6일 원홍목씨가 설립한 청암  
학원을 74년3월8일에 명칭 변경 승계한 법인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상지대학은 청암학원이 상지학  
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설립운영된 대학이라고  
보고 있으며 金文起씨는 동 대학설립시 재산을 출  
연한 것으로 당시의 이사회 회의록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지학원의 설립자가 누구냐는 문제는  
한 마디로 단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보  
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지학원으로 명칭이 바뀐 후에도 동  
법인이 78년12월18일 정관변경 신청시에 첨부한  
정관과 80년2월2일 제출한 정관의 임원이 원봉훈  
등 8명으로 되어 있어 상지학원에서 청암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하여 설립 당초의 임원 관련  
정관이 변경될 수는 없다는 점으로 인정됩니다.

동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 관련 정관변경도  
동 법인에서 청암학원에서 상지학원으로의 명칭변  
경시 선임된 이사를 설립 당초의 임원으로 하여  
정관 변경 신청한 것을 우리 부에서 이를 확인치  
못하고 인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우리 부는 동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검토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薛勳委員 잠깐만요. 나는 솔직해지고 싶은데  
이 부분에서 장관께서는 담당직원이 작성해준 원  
고를 지금 읽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서면으로  
해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서면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장관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장관의 양심  
에 따라 가지고 부하직원이 일방적으로 해준 얘기

만 따를 것이 아니라 장관이 판단했을 때 장관이  
갖고 있는 양식으로 판단했을 때 잘못됐다 했을  
때는 장관의 뜻을 담아 가지고 답변해 달라는 취  
지에서 서면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제가 서면  
답변을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장관께서 읽고 계신  
부분들은 장관의 뜻이 아니라 부하직원의 답변이  
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장관의 뜻을 묻고 싶은 것  
입니다.

장관께서는 지금까지 교직사회에 계시면서 덕망  
을 쌓아온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장관 스스로 판  
단했을 때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에  
따라서 답변해 달라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그  
래서 서면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  
십시오.

○李源龍委員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委員長 咸鍾漢 말씀하세요.

○李源龍委員 아까 3당 간사간에 얘기된 것을 포  
함해서 또 지금 薛勳 위원께서 주신 말씀까지를  
포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  
다.

3당 간사간에 얘기된 것은 정말 오늘 이 짧은  
시간에 3개 대학 분류라고 하는 아주 복잡 미묘한  
여러 분쟁의 현상을 교육부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교육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교  
육부가 실수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고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강론적인 답변들에 대  
한 것은 어차피 9개 대학을 다 들은 다음에 총 정  
리해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날 구체적으로  
들어 가도록 하고 오늘은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  
에 교육부 입장에서 추상적이기는 하겠습니까마는  
얘기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 그런 정도의  
답변만 듣고 상세한 것은 다음에 들었으면 좋겠습  
니다.

이렇게 합의가 된 것인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나  
는 끝까지 들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시다면 방금 薛勳 위원님이 말씀하  
신 것처럼 내 것은 서면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그 뜻을 표명해 주시고 내가 질의한  
부분은 오늘 꼭 들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그렇  
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계속하세요.

○**教育部長官 金德中** 그러면 金貞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金貞淑 위원님과 李在五 위원님, 申樂均 위원님께서 한 개인이 수개의 대학을 설립 운영하는 문제에 대하여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나의 대학을 설립하여 혼신의 힘을 쏟아 부어도 대학다운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사람이 수개 대학을 설립 운영할 수 있게 한 점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한 사람이 다수 대학을 설립 운영할 수 없도록 모든 지혜와 방안을 동원하여 근원적인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법인의 이사장과 대학의 총장간의 분규와 갈등이 야기될 수 있어 양자간에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보다 분명히 해주는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였으며 둘째, 대학설립의 불신 원인을 야기하고 있는 대학설립준칙제도를 개선해서 대학설립 기준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셋째, 현재 임시이사를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있습니다라는 실질적인 지도 감독권을 발휘하여 분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분규해결을 위한 지도 감독권을 강화하는 입장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예·결산등 회계처리 및 재정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를 강화하는 방안과 다섯째, 법인 상호간에 자금거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예·결산 거래내용을 연계 종합 분석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섯째, 설립인가 조건 미이행 대학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에도 검토를 하겠으며 일곱째, 학교법인 상호간에 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문제와 친인척들이 대학운영 담당 직위를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도 깊은 연구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사학분쟁처리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출범시켰습니다라는 분규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의 법제화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포함하여 사학분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연구하기 위하여 금년중에 정책연구를 시작하겠으며 추진과정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중에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金貞淑 위원님께서 金晁一 전 교무처장이 폭로한 상지대학의 용공조작 사건은 교육부가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金晁一 전 교무처장의 용공조작 폭로건은 오늘 신문보고 알았습니다라는 등 사건이 오래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내용의 성격상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기에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확인이 가능한가를 알아보고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서 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金貞淑 위원님께서 경문대학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교수 및 일부 학생들은 대학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심하여 근본적으로 현 임원진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현 대학 경영진들은 퇴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간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로서는 1차적으로 대학측과 교수·학생들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지도·중용하는 한편, 검찰수사 결과 학교비 유용등 대학 운영 비리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대학에 대한 행·재정 제재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학내 소요가 장기화되어 현 대학 경영진들이 학교 운영능력을 상실하고 관계법령상 임원취임 승인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임시이사 선임을 통한 대학 정상화를 검토하겠습니다.

○**金貞淑委員** 장관님, 제가 딱 세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세가지 질의가 뭐냐 하면 앞서서 하신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사학 분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여기 배경에는 교육부의 대학행정 관리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셔야돼요. 일관성이 없어요.

제가 외대를 예를 들었어요. 어떨 때는 조그마한 뭐가 하나 밝혀져도 임시이사를 딱 내보내고 그래가지고 임시이사가 나가서 또 다른 분규가 나고 또 서원대학교, 경원대학, 청주대학교는 지금도 안

나가고 있어요. 작년에 말씀했던 이 세계 대학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입장을 취하고 절대 임시이사를 안내보내는 것입니다. 온통 학교가 마비상태에 빠지도록까지 놔두면서도 교육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학 분류는 자율적인 해결로 해라' 원칙을 그렇게 내세우고 있어요. 해결이 안되는데 그것이 무슨 원칙입니까?

그런데 어디는 며칠만에 드르륵 내보내고 어디는 계속 이유를 대면서 지금까지 안내보내고 국회에서 내보내라고 모든 의견을 주어도 안내보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분류 대학 뒤에는 반드시 교육부의 고위관리가 있더라 이거예요. 고위 관리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짙다 이거예요.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지금 법으로 사립대학은 매매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양도·양수 계약서를 경문대학은 했어요. 沈前 이사장하고 全載旭이라는 분하고 해서 계약서가 막 지금 돌아 다녀요. 우리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7월8일에서 14일까지 8일동안 교육부가 감사를 했는데 발견 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 우리한테도 다 와 있는 계약서를 '발견을 못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여기에 의혹의 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발견하고 은폐를 했는지 그런 의혹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의혹이 뭐냐 하면 朴範珍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영기씨 8,000만원 뇌물, 1,000만원 누구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다구요. 이렇게 뇌물사건이 있어서 또 대학을 네개, 다섯개씩 인수를 하고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리고 향간에서 돌아다니는 소문이 교육부와 짜고 하는 것 아니냐, 비호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 자꾸 이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각오를 단단히 하신다든지 뭐를 밝히라 이것이에요. 이것 한해 두해 일이 아닙니다. 번번히 이런 일이 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임시이사 파견을 하실 것인지 이 세가지입니다.

○教育部長官 金德中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 검찰의 조사가 나오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金貞淑委員 서원대학교 임시이사 파견이라는 것은 최완배 이사장 다 해외로 빼돌리고 나중에 했잖아요. 그리고 경원대학도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할 때 시간 다놓치고 崔元榮이 나가고 난 다음

에 했고 청주대학은 아직도 안하고 있고 경원대학교는 그렇게 학교 인수해 가는 과정에서 불법이라고 우리가 지적했어도 그냥 李吉女 재단에 넘겨가지고 지금 李吉女 재단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송에서 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교육부하고 무엇인가 비호세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금년에만 이런 것이 아니고 작년도도 하고 언제나 사학의 분류뒤에는 반드시 따라 다녀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에 대한 각오와 앞으로의 방침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教育部長官 金德中 지금 申樂均 위원님, 朴範珍 위원님, 金貞淑 위원님 같이 학교 양도·양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질의해주신 것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도·양수 계약서는 공식문서가 아니어서 저희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경문대학의 양도·양수 금품수수하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말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할 경우에는 관련당사자를 고발조치하여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을 받도록 제가 하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朴承國 위원님께서서는 교수 학생의 역할 관계, 교무위원회의 위상, 총장선출 문제, 분류에 가담하는 학생들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분류 전반적인 대책을 검토할 때 포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安相洙 위원님께서 올 12월이면 현 이사진들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이사진들을 선임해야 하는데 그 기준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등 10개 법인이 있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재임 중인 임시이사를 내년 1월1일자로 새로운 이사진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만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있는 개별대학의 사정이나 학내 상황 그리고 지역 여론 등이 매우 다양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사진 교체시에는 개별대학 별로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과 지역사회 여론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학분쟁처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가지고 신중하게 처리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朴範珍 위원께서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인해 내년부터 임시이사(가) 새로이 선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입법취지로 볼 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학의 경우에는 현 이사를 그대로 임명하는 것을 장관이 천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시이사의 임기를 정한 사립학교법의 개정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이 지적하신 점 그리고 지역여론 및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종합하여서 사학분쟁처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朴範珍委員 되풀이하지만 금년말로 임시이사의 임기를 제한한 것은 바꾸라는 취지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저희들이 통과시킬 때는.....

그 점을 교육부에서는 존중해야 될 것 같아요. 바꾸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임기 시작이 연도 중간에 있기 때문에 임기의 시작과 끝나는 것을 명확히 하려면 차라리 신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教育部長官 金德中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源馥 위원님께서 설립자에 대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한 회수방안.....

○李源馥委員 제 질의는 서면으로 해주시고 본부 감사때 제대로 하겠습니다.

○教育部長官 金德中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金德中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관 그리고 증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국정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경원대학교, 그리스도신학대학교 그리고 한국의국어대학교의 학내문제와 관련하여 교육부에 대한 감사가 계속 되겠습니다.

교육부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2시20분 감사종료)

首席專門委員  
職務代理  
立法審議官

尙 元 鍾  
金 基 尙

○被監查機關參席者

教育部

長 官  
次 官  
平生教育局長  
高等教育支援局長  
監 查 官

金 德 中  
李 元 雨  
車 直  
金 炫 植  
具 永 書

상지대학교

理 事 長  
前 理 事 長  
前 副 總 長 兼 總 長 職 務 代 理  
教 授 協 議 會 表 共 同 代 表  
前 教 員 懲 戒 委 員 長  
前 副 總 長  
前 事 務 處 長  
法 人 事 務 局 長  
大 學 院 教 學 部 長

李 相 禧  
金 文 起  
張 光 洙  
朴 正 元  
金 燦 鎬  
金 東 鎬  
金 淵 均  
鄭 大 東  
金 晃 和 一

대구대학교

理 事 長  
總 長  
前 理 事 長  
大 邱 未 來 大 學 長  
教 授 協 議 會 長  
教 授  
大 邱 廣 域 市 教 育 委 員  
前 大 邱 未 來 大 學 教 授 協 議 會 會 長

李 成 大  
朴 鈞 圻  
黃 鍾 東  
李 藝 淑  
金 藝 一  
孫 春 濟  
李 光 漢  
張 鐘 煥  
華 煥

경문대학

理 事 長  
學 長  
教 授 協 議 會 長  
教 授 協 議 會 會 員  
前 理 事 長  
副 學 長  
法 人 事 務 局 長

李 相 集  
金 相 浩  
李 龍 九  
姜 眞 哲  
沈 奎 燮  
權 奎 福  
安 曾 鎬

○出席監查委員

咸鍾漢 金貞淑 朴承國 安相洙  
李壽仁 李源馥 李在五 金瑋鎬  
盧武鉉 朴範珍 薛勳 申樂均  
金光洙 金日柱 金許男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